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이윤진 이정림 임준범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7-09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이윤진 이정림 임준범

머 리 말

영유아기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고도 하며 부모의 양육관, 양육태도, 양육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격, 태도,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전통사회에서도 부모교육은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전통사회의 대가족 하에서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자녀를 함께 양육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핵가족화 구조에서 자녀양육은 올곧이 부모의 몫이다. 전통사회보다 부모의 역할이 더 많아졌고, 더 중요해졌다고 하겠다.

본 연구소는 부모교육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올해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서 부모교육에 관심이 많아 자발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서 수강하는 부모님들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모님들을 표집하여 조사했는데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특성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정의 부모님이라고 해서 부모교육에 관심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 정부는 부모님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부모교육 지원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 육아종합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담당자분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학계 전문가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직무대행 이 미 화

차 례

요약	1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18
4. 선행연구	24
5. 용어정의	27
6. 연구범위	29
II. 부모교육 정책 현황	30
1. (학)부모교육 관련 법령	30
2.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지원체계	37
3.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실시 현황	47
4. 국외사례	61
III.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실태: 가구조사	71
1. 응답자 및 자녀 특성	71
2. 정부지원기관 이용 현황	73
3.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77
4. 자녀 재원 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현황	87
5. 부모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	96
IV.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 실무자조사	104
1. 응답자 특성	104
2.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05
3. 부모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	116
V. 어린이집·유치원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 원장조사	124
1. 응답자 특성	124

2. 부모교육 운영 현황	125
3.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136
4. 부모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	145
VI. 요약 및 영유아기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안	154
1. 연구결과 요약	154
2. 정책방향	160
3. 정책방안	164
참고문헌	168
Abstract	171
부록	175
부록 1. 부모용 설문지	177
부록 2. 센터(기관)용 설문지	184
부록 3. 원장용 설문지	188

표 차례

〈표 I-3- 1〉 부모 면담조사 참여 부모 특성	19
〈표 I-3- 2〉 부모 면담조사 참여 자녀 특성	19
〈표 I-3- 3〉 센터장 또는 실무자 면담조사 현황	20
〈표 I-3- 4〉 원장 면담조사 현황	20
〈표 I-3- 5〉 가구조사 표본할당	21
〈표 I-3- 6〉 가구조사 설문내용	21
〈표 I-3- 7〉 센터(기관)조사 표본할당	22
〈표 I-3- 8〉 센터(기관)조사 설문내용	22
〈표 I-3- 9〉 원장조사 표본할당	23
〈표 I-3-10〉 원장조사 설문내용	24
〈표 I-3-11〉 전문가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현황	24
〈표 II-1- 1〉 학생·학부모의 권리	30
〈표 II-1- 2〉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2
〈표 II-1- 3〉 학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비교	33
〈표 II-1- 4〉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서의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 관련 조항	34
〈표 II-2- 1〉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현황(2017년 6월 기준)	39
〈표 II-2- 2〉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2017년 6월 기준)	41
〈표 II-2- 3〉 중앙육아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사업	42
〈표 II-2- 4〉 클로버 부모교육 내용 및 운영 기본사항	43
〈표 II-2- 5〉 2016년 클로버 부모교육 내용 및 실적	44
〈표 II-2- 6〉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2017년 6월 기준)	45
〈표 II-3- 1〉 2014년-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추진 현황	47
〈표 II-3- 2〉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추진 현황	48
〈표 II-3- 3〉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내용별 현황	49
〈표 II-3- 4〉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진행 형태별 현황	50
〈표 II-3- 5〉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대상 교육 추진 현황	50
〈표 II-3- 6〉 최근 3년 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상담 추진 현황	51
〈표 II-3- 7〉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상담 추진 현황	52

〈표 II-3- 8〉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 참여프로그램 대상별 참여인원	53
〈표 II-3- 9〉 2014년~2016년 어린이집 부모 운영위원회 교육 추진 현황	53
〈표 II-3-10〉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필수사업 영역과 내용	54
〈표 II-3-11〉 2014년 대비 2015년 사업영역별 참여인원 현황	55
〈표 II-3-1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회기수 현황	57
〈표 II-3-13〉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주최 부모교육(2017년 기준)	59
〈표 II-4 1〉 후지미노시 자녀양육지원센터 설립 목적	68
〈표 III-1- 1〉 응답자 특성: 부모	71
〈표 III-1- 2〉 응답자의 자녀특성	72
〈표 III-2- 1〉 센터(기관) 이용 기간	73
〈표 III-2- 2〉 센터(기관) 이용 경로	74
〈표 III-2- 3〉 지난 한달 동안 센터(기관) 방문 횟수	75
〈표 III-2- 4〉 센터(기관) 방문 시기	76
〈표 III-2- 5〉 센터(기관) 방문 목적	77
〈표 III-3- 1〉 센터(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 기간	78
〈표 III-3- 2〉 센터(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로	78
〈표 III-3- 3〉 센터(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 목적	80
〈표 III-3- 4〉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 개수	81
〈표 III-3- 5〉 부모교육 프로그램 신청방법·교육방법	81
〈표 III-3- 6〉 부모교육 프로그램 신청방법(변인별)	82
〈표 III-3- 7〉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방법(변인별)	83
〈표 III-3- 8〉 부모교육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도움정도(전체)	84
〈표 III-3- 9〉 부모교육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변인별)	84
〈표 III-3-10〉 부모교육 교육방법에 대한 도움정도(변인별)	85
〈표 III-3-11〉 향후 기관(센터)의 부모교육 이용 계획	86
〈표 III-4 1〉 자녀 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정도	87
〈표 III-4 2〉 자녀 재원 기관의 참여한 부모교육 만족도	88
〈표 III-4 3〉 자녀 재원 기관의 부모교육 비참여 이유	89
〈표 III-4 4〉 자녀 재원 기관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인지 여부	91
〈표 III-4 5〉 자녀 재원 기관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운영 여부	92
〈표 III-4 6〉 자녀 재원 기관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부모대표 위원활동 여부	93

〈표 III-4- 7〉 자녀 재원 기관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부모대표 참여 이유	94
〈표 III-4- 8〉 자녀 재원 기관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부모대표 위원활동 비참여 이유	96
〈표 III-5-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 참여 의견	97
〈표 III-5- 2〉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제고방안	98
〈표 III-5- 3〉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100
〈표 III-5- 4〉 영유아기 부모교육 커리큘럼 표준화에 대한 의견	103
〈표 IV-1- 1〉 응답자 특성: 실무자	104
〈표 IV-2- 1〉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106
〈표 IV-2- 2〉 참여도가 높은 이유(1순위)	107
〈표 IV-2- 3〉 참여도가 높은 이유(1+2순위)	108
〈표 IV-2- 4〉 참여도가 낮은 이유(1순위)	109
〈표 IV-2- 5〉 참여도가 낮은 이유(1+2순위)	109
〈표 IV-2- 6〉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111
〈표 IV-2- 7〉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선정 기준(1순위 및 1+2순위)	113
〈표 IV-2- 8〉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1순위)	114
〈표 IV-2- 9〉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1+2순위)	115
〈표 IV-2-10〉 부모교육 프로그램 자체 평가 실시 여부(복수응답)	116
〈표 IV-3- 1〉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필요성	116
〈표 IV-3- 2〉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의견	118
〈표 IV-3- 3〉 부모교육 표준화에 대한 의견	120
〈표 IV-3- 4〉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참여 제고 방안	121
〈표 IV-3- 5〉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사항	123
〈표 V-1- 1〉 응답자 특성: 원장	124
〈표 V-2- 1〉 2017년 상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평균 개최 횟수	126
〈표 V-2- 2〉 2017년 상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평균 부모 참여 정도	127
〈표 V-2- 3〉 2017년 상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부모 평가 실시 여부	128
〈표 V-2- 4〉 부모교육 참여도가 높은 이유(1순위, 1+2순위)	130
〈표 V-2- 5〉 부모교육 참여도가 낮은 이유(1순위, 1+2순위)	131
〈표 V-2- 6〉 연간 계획 시 부모교육 수립 계획 여부	132
〈표 V-2- 7〉 연간 계획 시 부모교육 프로그램 선정 방식	134
〈표 V-2- 8〉 부모교육 운영의 어려움(1순위, 1+2순위)	135

〈표 V-3- 1〉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137
〈표 V-3-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 현황	138
〈표 V-3- 3〉 학부모 대표 선정 방법	139
〈표 V-3- 4〉 학부모 대표 선정 시 어려운 점	140
〈표 V-3- 5〉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142
〈표 V-3- 6〉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참여 정도	143
〈표 V-3- 7〉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144
〈표 V-4 1〉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필요성 정도	145
〈표 V-4 2〉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147
〈표 V-4 3〉 부모교육 커리큘럼 표준화에 대한 의견	149
〈표 V-4 4〉 부모교육의 참여 제고 방안	151
〈표 V-4 5〉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152

그림 차례

[그림 II-2-1] 유아교육진흥원 전달체계	40
[그림 II-2-2]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41
[그림 II-2-3]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달체계	46
[그림 II-3-1]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참석자 현황	49
[그림 II-3-2] 최근 3년 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상담 추진 현황	51
[그림 II-3-3]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 연간 참여인원 현황	56
[그림 II-3-4]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연간 참여인원 현황	58
[그림 II-3-5]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자녀 함께하는 토요 돌봄프로그램 평균 참여인원 현황	58
[그림 II-4-1] CT-PEN 자료실 내 부모교육 지원 내용	63
[그림 II-4-2] Collaborative for Children 부모교육	64
[그림 II-4-3] ECDA 부모교육 콘텐츠	65
[그림 II-4-4] SPED 부모교육 가이드	66
[그림 II-4-5] MTL 관련 동화 및 부모 가이드 북	66
[그림 III-5-1]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101
[그림 IV-2-1]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도 및 만족도	112
[그림 IV-2-2]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1순위, 1+2순위)	115
[그림 IV-3-1]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실무자대상)	119
[그림 V-4-1]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원장대상)	148
[그림 VI-1-1]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제고 방안 비교분석	158
[그림 VI-1-2]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위해 정부 우선 지원사항 비교분석	159
[그림 VI-1-3] 영유아기 부모교육 표준화 의견에 대한 비교분석	159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부모교육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본 연구는 부모교육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되고자” 부모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영유아 부모에 주목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과는 달리, 참여의 구속력이 전혀 없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에 주목하여 부모교육의 실태와 참여 동기 등을 파악함.
-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며 최근, 초·중등학교 학부모 교육정책이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기조로 수립, 추진되고 있기 때문임.
 - 일부 시도 교육청(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16년, 2017년에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 참여권 보장임.

나. 연구내용

- ‘부모교육’의 의미와 범위를 조작적으로 정의함.
- 학령기 학부모교육 정책 현황을 분석함.
- 영유아기 부모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 현황을 분석함.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규정한 부모교육 관련된 조항들을 비교분석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 사업을 정리함.

- 국외 부모교육 지원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 시기, 횟수, 참여프로그램 종류·신청방식, 교육방식, 만족도, 개선점 등을 조사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또는 센터장) 대상으로 해당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부모의 참여 정도,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 종류, 실시 횟수, 교습방법, 강사초빙, 운영의 어려움 등을 파악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란 점에서 원장 대상으로 부모교육 운영 현황, 운영의 어려움, 부모교육에 부모의 참여정도, 참여의 어려운 점을 파악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함.

다. 연구방법

- 문헌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실시함. 이 중 설문조사 표집은 다음과 같음.
 -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설문조사 기준) 영유아 부모 500명(자녀 연령별, 지역별 고려)을 대상으로 실시함. 최종 757명 부모가 참여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교육 담당 실무자(또는 센터장) 총 100명 대상으로 실시함. 최종 114명이 참여함.
 - 모집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장 많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표집함.
 -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최종 528명이 참여함.

라. 용어정의

- 본 연구에서의 부모교육은 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교육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하거나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목적이 분명한 교육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으로 제한하며, 이러한 부모교육에 부모가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부모교육 참여”라고 정의함.
- 본 연구의 부모교육에는 장난감 및 도서대여, 공동육아나눔터, 부모 자조모임 등은 해당되지 않음.

마. 연구범위

- 본 연구가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초점을 두고 진행함에 따라 부모교육이 필요한 부모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부모교육 정책 현황

가. (학)부모교육 관련 법령

- 무상·의무교육의 공교육체제가 실시되고 있는 초·중학교는 부모를 학부모라 명명하고 학부모를 학교교육의 주체로 규정해서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권한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화함.
-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제정 목적은 단위학교에서 법적근거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함임.
- 학부모회는 “학부모 구성 및 운영의 목적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함이 목적이므로 기존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는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함.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의 부모참여(권리 측면) 및 부모교육(의무 측면)에 해당하는 법 조항들을 비교분석함.
 - 권리 측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법 조항이 ‘운영위원회’임. 학부모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반드시 구성해야 함.
 - 의무 측면에 해당하는 법 조항으로 2017년에 신설된 ‘보호자 교육’임(영유아보육법 제9조의 2).
- 건강가정지원법에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양육지원 강화, 건강가정교육의 의무적 실시 등의 관련 법조항들이 있음.

나.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지원체계 및 현황

- 교육부의 유아교육진흥원(취학전)과 전국학부모지원센터(학령기),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현황을 정리, 분석함.
 - 본 연구에서 정의한 부모교육 범주에 따라 강의식 부모교육, 부모상담 프로그램, 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에 운영과 이용 현황을 고찰함.
 - 매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센터를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음.

다. 국외사례

- 미국은 연방국가인 만큼, 표준화된 프로그램보다는 각 주의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 예를 들면, 이민자들이 많은 국경지역에는 다양한 언어와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리콘벨리가 포함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장과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 싱가포르의 교육부 제공의 부모교육과 ECDA(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 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으로 구분됨. 후자에서는 4개 언어(영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부모교육 자료들을 제공함.
- 일본은 우리나라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구라 할 수 있는 “지역자

녀양육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은 전통적으로 초중등 학부모학회인 PTA(Parent Teacher Association)가 자율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관 주도의 학령기 학부모 정책은 없음.

3.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실태

가. 응답자 및 자녀 특성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는 총 757명이고, 경인권, 전라권, 서울 순으로 표집되었으며, 지역규모로는 중소도시 51.9%, 대도시 42.0%, 읍면지역 6.1%로 약 9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
- 응답자의 87.6%가 어머니가 응답해서, 어머니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모학력은 4년제대졸이 약 52%로 가장 많았고, 취업모의 비율은 49.4%로 비취업모와의 차이는 거의 없었음.
- 영유아 자녀의 특성은 여아가 51.4%로 남아보다 약간 많았고, 연령은 만 5세 19.4%, 만 4세 17.6%, 만 2세 17.3% 순이며 평균 3.57세로 집계되었음.
- 자녀의 80.4%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음.

나. 정부지원기관 이용 현황

- 정부지원기관을 이용한 기간은 평균 2.48년임. 즉, 정부지원기관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간이 약 2년 5개월로 장기간 이용해 온 것을 알 수 있음.
- 정부지원기관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지인 소개”가 34.1%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검색”, “집근처에 있어서” 순으로 나타났음.
- 본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지난 한달 동안 해당 기관을 방문한 횟수는 “주 1회 방문”이 71.5%로 가장 많았고, 방문 시기는 “주중에 방문한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음. 방문 목적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76.1%로 가장 많았음.

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수강하게 된 시점은 “1년~2년 미만”이 가장 많았음. 해당 자녀의 현재 평균연령(3.57세)을 감안하면, 자녀가 영아일 때부터 부모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해당 기관을 알게 된 경로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35.4%,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추천” 30.6%, “지인 소개”가 20.0% 순으로 나옴.
- 부모교육을 이수한 목적으로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49.8%로 가장 많았고, “양육정보를 얻으려고”도 40.6%로 높게 나타남.
 - 해당 기관에서 이수했거나 이수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수는 1개라고 응답한 경우가 82.2%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 부모교육 프로그램 신청방법과 교육방법을 알아본 결과, 오프라인 신청이 65.1%, 온라인 신청은 34.9%로 오프라인 신청이 더 많았으며, 교육방법은 소형강의식이 62.3%, 대형강의식은 25.2%로 대부분 강의식 수업으로 부모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자녀양육의 도움정도는 3.67점~3.93점(4점 척도)으로 나타남. 이수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향후 이용계획은 “가급적 수강할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4% 가장 높았으며, 반드시 수강하겠다는 응답도 28.3%로 조사됨.

라. 자녀 재원 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현황

-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유아학원 등)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의 참여정도를 묻는 질문에 76.7%가 “참여한다”(최대한 참여 39.4%+가급적 참여 37.3%)고 응답함.
 -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을 찾아서 참여한 부모는 재원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도 높은 참여도를 보임.
- 자녀의 재원 기관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5.2%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

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자녀의 재원 기관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의 대부분은 “시간이 없어서”(63.0%)이며, “기관방문이 어색해서”(8.7%), “다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8.7%) “별로 도움이 안 돼서”(2.2%) 등이 소수의견으로 나옴.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대해 51.4%가 “안다”고 응답함. “모르다”는 응답도 48.6%로 상당히 많이 나옴.
- 자녀의 재원 기관에서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알아본 결과, “운영하고 있다” 70.5%, “운영하고 있지 않다” 5.7%, “잘 모르겠다” 23.3%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78명(18.1%)의 부모에게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원장 및 교사 추천”이 36.9%로 가장 많았고, “기관의 운영을 알고 싶어서”도 32.1%로 높게 나타남.
 - 대부분(81.9%)의 학부모는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았는데, “시간이 없어서”(49.2%), “부모대표 타이틀에 대한 부담”(24.6%),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2%) 등을 비참여 이유로 꼽음.

마. 부모교육 활성화

- 자녀 재원 기관의 부모 참여에 대해서 76.6%의 학부모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함. “최소한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20.3%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96.9%로 대부분의 학부모가 자녀 재원 기관 운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가장 많이 꼽음(58.8%). 다음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17.3%)임.
-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해 64.6%는 “타당하다(적절하다)”, 34.9%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함.

- 의무화를 할 경우, 맞벌이 가정의 실제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의무화 하더라도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의무교육도 아닌데 의무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옴.
- 클로버 부모교육처럼 부모교육 커리큘럼 표준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2.5%로 대부분의 부모가 찬성함. 이에 반해 “부모의 다양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11.9%에 그침.

4.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

가. 센터(기관) 및 응답자 특성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담당 실무자는 총 114명임. 표본할당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체의 50%, 건강가정지원센터 39%, 유아교육진흥원 11% 순으로 조사에 참여함.
- 응답자 특성은 여성이 약 96%로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20~30대 연령의 1년~3년 미만이 가장 많았음.

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각 센터(기관)에서 실시한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를 알아본 결과, 참여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가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3.85점/4점)로 나타남.
- “오프라인 개별양육 상담프로그램”(3.43점), “소규모 강의식 부모교육”(3.24점), “집단양육 상담프로그램”(3.10점) 순으로 나타남. 강의식보다는 체험식,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설명식보다는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참여도가 높은 이유는 “유익한 교육내용”(41.2%), “부모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36.8%), “강사의 전문성”(8.8%), “적극적 홍보”(4.4%), “유명강사”(4.4%) 순임(1순위 기준).
-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자녀동반이 어려워서”(23.7%), “부모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20.2%), “교육시간이 맞지 않아서”(18.4%), “홍보 부족”(12.3%),

“진부한 교육내용”(9.6%) 순임(1순위 기준).

- 각 센터(기관)에 따라 참여도의 차이가 나타남. 유아교육진흥원은 “유명강사”(23.1%,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유익한 교육내용”(49.1%),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모의 높은 관심”(34.1%)을 참여도가 높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음.
- 부모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실무자 입장에서 알아본 결과,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이 3.84점(4점)으로 가장 높았고, “소규모 강의식 부모교육”(3.76점), “오프라인 개별양육상담”(3.67점), “집단양육상담”(3.62점)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참여도의 순서와 거의 동일한 결과임.
- 각 센터(기관)에서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은 “부모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82.5%로 가장 많이 나옴. 이는 부모의 요구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 42.1%로 가장 많았고, “예산부족” 14.9% “강사초빙의 어려움” 13.2% “부모교육 담당 인력부족” 13.2% 순으로 나옴.
- 98.2%의 센터(기관)에서 부모교육 진행 후, 참여한 부모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응답함.

다.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의 모든 담당자가 부모교육은 필요하다고 응답함. 92.1%가 “반드시 필요하다”, 7.9%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해서도 62.3%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고, 20.2%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교육 참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함.
- 부모교육 커리큘럼의 표준화에 대해서는 기관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나옴.
 -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는 “표준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온 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는 “강사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교육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유아교육진흥원 담당자는 “표준화는 부모의 다양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부모 참여 제고 방안으로는 “맞춤형 교육”을 가장 많이 꼽았고(32.5%), 부모 교육 이수한 부모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의 입소 우선 순위 부여”(21.9%), “부모교육 이수시간 마일리지 적립”(21.1%) 순으로 꼽음.
-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대국민 홍보”(25.4%), “부모교육 법제화”(24.6%)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5. 어린이집·유치원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

가. 응답자 특성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원장은 총 528명으로 어린이집 원장 340명, 유치원 원장 18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43.6%로 가장 많이 표집되었으며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순으로 표집됨.

나. 부모교육 운영 현황

- 2017년 상반기(1월~6월) 기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평균 횟수를 조사한 결과, “원장 또는 교사가 실시한 부모교육”이 7.48회로 가장 많았고, “부모상담”이 2.06회,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이 1.73회 순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 프로그램별로 학부모의 참여정도를 확인해보면, “오리엔테이션 및 설명회” 참여도가 3.37점으로 가장 높고,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3.36점, 부모상담 3.22점, 원장 또는 교사가 실시한 부모교육은 3.05점, 전문강사 초청 부모교육은 2.82점으로 나타났음.
-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 참여도가 높은 이유로는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라서”가 68.4%로 가장 많았고, “부모들의 부모교육 자체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14.6%, “유익

한 교육내용”이 6.6%로 그 뒤를 이음.

- 이와 반대로 부모들의 참여도가 낮은 부모교육의 이유로는 “부모들의 낮은 관심”이 42.6%로 가장 많았고, “교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31.3%, “진부한 교육내용” 10.2%, “자녀동반의 어려움”이 8.7%순으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을 포함한다고 99.6%의 원장이 응답함. 연간 계획 수립 시, 프로그램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교사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의견이 39.8%,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다는 의견이 37.1%로 확인됨.
- 부모교육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가 37.5%로 가장 많았고, “예산부족”(21.0%), “교육시간”(13.8%),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12.1%), “강사 초빙”(11.4%) 순으로 조사됨.

다.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 운영위원회의 인원수는 평균 7.07명으로 집계됨. 유치원은 평균 6.81명, 어린이집은 평균 7.21명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학부모는 운영위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학부모 대표를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학부모 자원”이 40.3%로 가장 많았고, “반(학급) 대표 부모 중에서 추천(또는 투표)”가 22.2%로 그 뒤를 이음.
- 학부모 대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음. 그러나 “자원하는 부모님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가 다음으로 많이 나옴.
- 올해(2017년) 상반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알아본 결과, 평균 2.33회로 집계됨.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의 참여 정도는 3.58점(4점)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는 “개최일정 조정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고(53.8%), “학부모의 낮은 관심”(11.4%), “운영위원 선정의 어려움”(9.8%) 순으로 나옴. 기타가 19.5%로 높게 나왔는데, 이 중 “어려움이 없다”가 12.2%를 차지함.

라.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99.4%가 “필요하다”(이 중 83.1%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함.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도 64.4%가 “적절하다”고 응답함.
- 부모교육 커리큘럼 표준화에 대해서는 54.0%의 원장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28.0%는 “강사를 표준화하지 않으면 교육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 부모 참여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이 41.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강사비 지원과 같은 “부모교육 운영비 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함.

6. 요약 및 영유아기 부모교육 내실화 방안

가. 연구결과 요약

- 부모, 실무자, 원장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알아본 결과를 비교분석함.
- 3개 집단 모두 영유아기 부모의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으나, 부모집단의 찬성 응답비율(64.6%)이 실무자(70.2%)와 원장(71.0%)에 비해 낮음.
-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맞춤형 부모교육”을 3개 집단 모두 1순위로 꼽음. 그러나 집단 간 응답비율의 차이는 큼.
 - 부모의 약 60% 정도가 이를 지지했다면, 실무자는 이에 절반에 가까운 30% 정도만 지지함.
-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집단 간 확연한 차이를 보임.
 - 실무자는 “대국민 홍보”와 “부모교육 의무화”를 거의 비슷하게 많이 꼽았다면, 원장은 “부모교육 운영비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고, “대국민 홍보”는 7.8%에 그침.

-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전국 공용으로 표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 실무자, 원장 모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실무자는 “강사를 표준화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도 1순위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옴.

나. 정책방향

- 부모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균형 있는 관점으로 접근함.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3개 집단 모두 높게 나왔으나,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함. 의무화한다면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공론화 과정 필요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교육 목표는 자녀행복추구권 추구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 이수 시간은 최소화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 이수 시기는 ‘예비부모기(期)’가 적절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교육 이수와 인센티브 연계는 지양
 - 부모교육 관련 법령 정비
 - 부모교육은 예비부모부터 체계적으로 실시

다. 정책방안

- 부모교육 관련 법률(영유아교육법, 건강가정지원법) 정비
- 부모교육 관련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정부 역할 강화
 -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센터 확충, 전문 강사 양성 및 배치, 예비부모 교육 의무교육의 가이드라인 제정
- 부모교육의 체계화
 - 생애주기별에 따라 예비부모, 영아기 부모, 유아기 부모로 구분해서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함.

부모교육 참여 지원

○ 최근 신설한 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에 '부모교육'을 추가 명시함.

다양한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부 중심의 핵가족 사회에서 자녀의 성장·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름 아닌 부모(주양육자)일 것이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유전 인자를 전수 받고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한 개인의 성격, 태도, 가치관 형성에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그리고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사회 속에서 어떠한 정보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으면서(이순형 외, 2011: 9, 12), 많은 부모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미국의 부모교육 역사를 보면, 1960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있었다. 부모교육(parent education)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에게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활동이었다면, 헤드스타트(Head Start) 운동이 일어난 1960년대 이후의 부모교육은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화하였다(김영옥, 2016: 19). 즉, 부모가 가르침을 받는 수동적 입장에서 부모가 교육기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쌍방향적인 과정으로 변화한 것이다(정옥분·정순화, 2012: 50).¹⁾

우리사회도 대학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고학력 부모들이 증가하고 책이나 매스컴, SNS 발달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부모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객체이기 보다는 필요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교육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고 실시하는 데 개입하는(정옥분·정순화, 2012: 50) 교육의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성인교육은 자기 주도적 결정 원칙이 강조되므로 국가의 지원도 지원을 요구하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박성희, 2010: 215), 우리나라도 부모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마미정, 2015: 24).

1) 부모와 교육기관의 수평적 관계, 쌍방향 관계라는 관점에서는 부모교육 보다는 부모참여(parent participation) 용어를 사용한다(정옥분·정순화, 2012: 50).

한편, 유관 선행연구들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영유아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참여할 의향도 매우 높다(김은설·최진·조혜주·김경미, 2009: 김은설·장혜진·김문정·Susan Walker, 2011: 102; 이윤진·김아름·임준범, 2016: 127). 김은설 외(2009) 연구에 의하면, 74.8%의 부모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거나,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참여를 못하는 실정이다(김은설 외, 2011: 80; 이미화 외, 2015: 54-55).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학예회,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담임 상담,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의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자녀와 직접 관련된 상담이나 학예회 등을 제외하고는 참석율이 저조하다(김은설 외, 2009).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대다수 부모들은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참여할 의향은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담이나 학예회, 재롱잔치에 참여하는 정도이다.

이처럼 부모교육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본 연구는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되고자” 부모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영유아 부모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과는 달리, 참여의 구속력이 전혀 없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에 주목하여 부모교육의 실태와 참여 동기 등을 파악한다. 부모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를 찾아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로부터 부모교육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도 조사 대상을 이렇게 정한 중요한 이유이다.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모에 주목하는 이유는 초·중등학교 학부모교육정책이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기조로 수립,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도 교육청(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 참여권 보장을 위해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기 부모교육에 대한 정책기조는 부모의 자발성보다는 의무 쪽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2017년 3월 14일자 “영유아보육법”에 “보호자의 교

육”이란 범조항을 신설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영유아기 부모(보호자) 대상으로 필요한 부모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부모(보호자)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객체)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종종 발생하는 아동학대 발생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용이 보편화면서 영유아기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또 관련 법률에 부모교육 조항을 신설한 것은 초중등교육에서는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화로 자리매김하려는 정책과는 기조가 상이한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부모교육 정책은 학령기 부모정책과 일관된 기조 하에 상호 연계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부모교육 역시, 권리와 의무라는 양관점이 균형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참여실태와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모교육’의 의미와 범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령기 학부모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학령기 학부모교육 정책이 역사적으로 먼저 추진되었고, 현재는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영유아기 부모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규정한 부모교육 관련된 조항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부모교육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 사업이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해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 부모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부모들의 참여 현황을 정리하였다.

넷째, 국외 부모교육 지원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부모교육은 다채롭게 실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을 선정해서 분석하였다.

다섯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 시기, 횟수, 참여프로그램 종류·신청방식, 교육방식, 만족도, 개선점 등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 참여 실태를 알아보고, 부모의 권리적 측면에서 ‘운영위원회’ 인지 정도, 위원으로써의 참여 여부, 참여 및 비참여 이유 등을 파악하였다.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해 부모교육의 의무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정부지원사항 등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여섯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또는 센터장) 대상으로 해당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부모의 참여 정도,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 종류, 실시 횟수, 교습방법, 강사초빙, 운영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였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부모교육의 의무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정부지원사항 등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일곱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란 점에서 원장 대상으로 부모교육 운영 현황, 운영의 어려움, 부모교육에 부모의 참여정도, 참여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였다. 부모의 권리적 측면에서 부모의 자발성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방법, 실시횟수, 운영의 어려움 점 등을 파악하였다. 부모, 실무자(또는 센터장)와 동일하게 부모교육의 의무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정부지원사항 등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법령 및 지자체 조례, 정책자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발간하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부모교육 현황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국외사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집, 분석하였다.

나. 면담조사

1) 학부모

본 연구에 총 8명의 영유아기 부모가 참여하였다. 다음 표의 사례 1~3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영유아 부모들이며 사례 4~8까지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다. 연령은 모두 30대이며 사례 3을 제외하고 모두 어머니이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며 맞벌이는 2가구이며 월 평균가구소득은 300만원부터 800만원에 이른다. 면담내용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 보완자료로도 활용하였다.

〈표 1-3-1〉 부모 면담조사 참여 부모 특성

사례	관계	연령	학력	월 가구소득	직업	가구유형
1	부	33	대학원졸	약 550만원	회사원	맞벌이
2	모	31	대졸	육아휴직중	교사	맞벌이
3	부	35	전문대졸	약 300만원	회사원	외벌이
4	모	36	대졸	약 650만원	회사원	외벌이
5	모	31	대졸	약 600만원	회사원	외벌이
6	모	38	대졸	약 800만원	회사원	외벌이
7	모	34	대졸	약 550만원	영업직	외벌이
8	모	39	대졸	약 600만원	회사원	외벌이

다음 〈표 1-3-2〉는 면담조사에 참여한 부모의 해당 자녀에 일반적 특성이 다. 영유아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큰 아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총 8사례 모두 첫째이며 남아와 여아가 반반씩 차지했다. 이들 모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다. 민간어린이집 재원아가 총 5사례로 가장 많았다.

〈표 1-3-2〉 부모 면담조사 참여 자녀 특성

사례	성별	출생연도	출생순위/총자녀수	이용 중인 기관
1	남	2015	1/1	민간어린이집
2	남	2015	1/1	국공립어린이집
3	여	2014	1/1	민간어린이집
4	남	2012	1/2	사립유치원
5	남	2012	1/2	사립유치원
6	여	2013	1/1	민간어린이집
7	여	2012	1/1	민간어린이집
8	여	2012	1/1	민간어린이집

2) 센터장 또는 실무자

본 면담조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부모교육을 기획, 담당하는 센터장 또는 실무자는 총 6명이 참여하였다. 면담조사를 통해 각 기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교육 실태 등을 파악하고, 면담내용을 기초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면담내용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 보완자료로도 활용하였다.

〈표 1-3-3〉 센터장 또는 실무자 면담조사 현황

날짜	참석자	실시목적
3월	센터장 3명	2017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운영 현황 파악 및 설문조사 협의 등
6월	센터장 2명	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운영 현황 파악 및 설문조사 협의 등
7월	진흥원장 1명	2017년 유아교육진흥원 부모교육 운영 현황 파악 및 설문조사 협의 등

3) 원장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총 7명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관 선정 기준은 영유아 부모에게 기관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사항은 함께 논의하는 '열린어린이집' 및 '행복학교 우수유치원'으로 했다. 면담내용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 보완자료로도 활용하였다.

〈표 1-3-4〉 원장 면담조사 현황

날짜	참석자	실시목적
6월	열린어린이집 원장 4명	기관운영에서 있어 부모참여 현황(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등) 및 부모교육 참여 현황 등 파악 등
6월	국공립유치원 원장 2명	
7월	사립유치원 원장 1명	

다. 설문조사

1) 가구조사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2016년 기준 16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설문조사 기준) 영유아 부모

500명(자녀 연령별, 지역별 고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최종 총 757명의 영유아 부모가 표집되었다(표 III-1-1 참조). 본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의 표본할당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전체 수와 지역을 고려하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양적으로는 가장 많지만 영유아 대상으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영유아 전용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표집수를 더 많이 할당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 가구조사 설문지를 배치하고 설문조사 기간 동안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표 I-3-5〉 가구조사 표본할당

구분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기관수	할당인원	기관수	할당인원	기관수	할당인원
서울	1	20	27	81	26	21
경인권	1		32	96	41	32
충청권	3	15	6	23	16	13
전라권	3	15	7	26	20	16
경상권	4	20	18	57	39	31
강원·제주권	2	10	4	17	9	7
합계	14	80	95	300	151	120

가구조사 설문내용은 다음 〈표 I-3-6〉와 같다.

〈표 I-3-6〉 가구조사 설문내용

구분	설문내용
부모(가구) 특성	거주지역, 연령, 성별, 학력, 가구소득, 자녀수
자녀 특성	출생년도, 성별, 형제관계, 기관이용 여부
센터(기관) 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 여부, 인지경로 등 • 참여 시기·횟수·이유, 참여 프로그램 종류, • 만족도(강사, 프로그램 내용), 개선점 등
유치원·어린이집 부모교육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용 여부, 기관종류 및 설립유형별, • 운영위원회 인지 및 위원 여부, 참여할 의사 등 •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참여 여부, 참여 이유 및 불참 이유, 요구사항 등

(표 I-3-6 계속)

구분	설문내용
정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 •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부모교육 의무화 등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 부모교육 관련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2) 센터(기관)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교육 담당 실무자(또는 센터장) 총 1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최종 114명이 표집되었다(표 IV-1-1 참조). 가구조사를 실시한 각 센터의 부모교육 실무자(또는 센터장)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센터(기관) 조사의 표본할당은 다음과 같다. 가구조사와 동일하게 기관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많지만, 본 연구주제에 따라 영유아 전용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실무자를 더 많이 할당하였다.

〈표 I-3-7〉 센터(기관)조사 표본할당

구분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기관수	할당기관	기관수	할당기관	기관수	할당기관
서울	1	1	27	16	26	5
경인권	1	1	32	19	41	8
충청권	3	3	6	4	16	3
전라권	3	3	7	4	20	4
경상권	4	4	19	12	39	8
강원·제주권	2	1	4	2	9	2
합계	14	13	95	57	151	30

센터의 실무자 대상의 설문내용은 다음 〈표 I-3-8〉와 같다.

〈표 I-3-8〉 센터(기관)조사 설문내용

구분	설문내용
응답자 특성	연령, 성별, 학력, 경력, 직위, 기관소재지
센터 운영 현황	<p>공통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기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류, 선정 과정 • 부모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과 부진한 프로그램 및 이유 • 강사 초빙, 운영비, 운영방법(교습방법) 등 어려운 점, • 운영 프로그램 평가방법, 횟수 등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전달체계 및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점 등

(표 I-3-8 계속)

구분		설문내용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센터 특화 프로그램 종류, 선정과정, 등 • 부모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과 부진한 프로그램 및 이유 • 강사 초빙, 운영비, 운영방법(교습방법) 등 어려운 점, • 운영 프로그램 평가방법, 횟수 등
	정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전달체계의 개선점 및 요구사항 •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 부모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 • 부모교육 관련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3) 원장조사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 500명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 현황, 부모교육 현황 등 부모교육 관련 내용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528명이 표집되었다(표 V-1-1 참조).

면담조사를 통해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부모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제외하고, 국공립, 민간, 법인 중심으로 모집단에 비례하여 표집하였다. 유치원도 모집단에 비례하여 설립유형별로 할당하였다. 두 기관 모두, 지역별 설치된 기관 수를 고려하여 할당하였다.

〈표 I-3-9〉 원장조사 표본할당

구분	어린이집 계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서울	53	17	34	2	19	4	15
경인권	97	14	78	5	53	26	27
충청권	36	3	26	7	23	15	8
전라권	32	3	18	11	29	19	10
경상권	81	10	60	11	49	24	25
강원·제주권	17	2	10	5	11	8	3
합계	316	49	226	41	184	96	88

원장 대상의 설문내용은 다음 〈표 I-3-10〉와 같다.

2)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는 ‘클로버 교육’이라는 센터 고유의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표 1-3-10〉 원장조사 설문내용

구분	설문내용
응답자 특성	연령, 성별, 학력, 경력, 직위
기관 특성	기관소재지, 기관종류, 설립유형, 인가 및 현학급수, 총 유아수 등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방법, 부모 참여 정도, 개최 횟수
부모교육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부모교육 계획여부, 부모요구조사 및 반영 정도 부모교육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과정, 실시시기 부모교육 참여 정도, 불참 이유, 부모교육 평가 실시 여부 부모교육 실시의 어려움(재정, 주제, 강사초빙 장소 확보 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전달체계 및 부모교육 내실화에 필요한 지원 및 요구사항 등
정책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회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부모교육 의무화 등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부모교육 관련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담당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방향, 연구내용, 설문지 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정책방안의 내용에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표 1-3-11〉 전문가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현황

날짜	참석자	실시목적
3월	부모교육 담당 공무원	본 연구 소개 및 연구방향 등 협의
5월	부모교육 연구 학계 전문가 2인	연구방향, 연구내용 및 설문내용 자문
6월	부모교육 담당 공무원	중간보고 현황 소개 및 자문
8월	부모교육 담당 공무원	설문지 검토 자문
11월	부모교육 연구 학계 전문가 2인	본 연구결과 소개 및 정책방안 협의
11월	부모교육 담당 공무원	

4. 선행연구

영유아기 부모 교육을 주제를 다룬 정책연구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³⁾ 김은설·최진·조혜주·김경미(2009)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육아지원기

3)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9년 김은설·최진·조혜주·김경미(2009) 연구부터 최근 2016년 김길숙·김지현·이혜민(2016) 연구까지 부모교육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상세하게 다루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소에서 수행한 선행연구 중심으로 정리함.

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 및 참여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란 용어를 병행 사용하였다. 즉, 부모교육을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부모 대상 교육뿐 아니라 육아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롱잔치, 체육대회, 부모참여 공개수업, 운영위원회 등을 연구 내용에 포함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전국의 영유아 부모 1,260명을 지역규모별로 균등할당하여(각 420명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1,440개 대상으로 기관에서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학부모들은 기관에서 부모참여 프로그램일 대체로 잘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46.9%, 보통이다 42.1%로 나왔으며(김은설 외, 2009: 124), 참여한 부모참여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3.8점~4.0점(5점 만점)으로 대체로 높았고, 74.8%의 학부모들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하였다(김은설 외, 2009: 153). 부모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부모(n=160)에게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교육을 위한 시간내기 힘들”(45.6%)이 가장 많았고 “책, 마스크를 통해 정보를 얻음”(22.5%), “부모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음”(21.9%) 순으로 나왔다. 기관장 조사의 주요 결과로는, 어린이집보다(49.4%)는 유치원(64.8%)에서 부모교육(강연회, 특강, 워크숍 등) 프로그램은 더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계획 수립할 때, 88.5%의 기관이 부모교육을 고려하며(김은설 외, 2009: 135). 94.3%의 기관장이 향후 부모교육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김은설 외, 2009: 169)고 응답하였다. 학부모와 기관장 모두,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의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하며 실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나(김은설 외, 2009: 120), 학부모 참석율은 학예회(61.3%), 상담(79.9%) 외에는 참석율이 절반 미만이었다.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석율은 36.4%(김은설 외, 2009: 121)로 보고되었다.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정보센터(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국가 주도의 부모교육센터 설립, 지자체 및 교육청의 부모교육 예산 확대, 부모교육 참가 부모에게 크레딧 부여, 부모교육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김은설·장혜진·김문정·Susan Walker(2011) 연구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특성별에 따른 부모교육 실태와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특성별을 고려한 부모교육 기본과정을 개발하였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농어촌 가정, (도시) 저소득 가정으로 가정을 유형화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맞벌이

와 저소득 부모는 1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고, 다문화 부모는 5회 이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김은설 외, 2011: iv). 참여한 부모교육 주최 기관으로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37.8%로 가장 많아서(김은설 외, 2011: iv), 영유아기 부모들의 부모교육 실시 기관으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특성별을 불문하고 80.4%가 부모교육을 알고 있었으며 92.8%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김은설 외, 2011: iv).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사례는 “없다”가 73.5%로 대다수로 보고되었다(김은설 외, 2011: 79).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부족” 39.7%, “교육정보 모름” 29.8%, “자녀돌볼 사람 없음” 17.3% 순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1: 80). 가구특성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시간부족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2009년도의 김은설 외 연구와 동일하다. 다문화 가정을 제외하고, 부모들은 가구특성과 상관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김은설 외, 2011: 87).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모교육에 가장 많이 참여했으나(59.3%)(김은설 외, 2011: 86),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보센터(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2.5%로 극히 일부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1: 87).

한편, 육아지원기관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육아지원기관의 부모참여 확대가 강조되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열린어린이집을 발굴, 확산하여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현장에 전파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보육사업안내, 2016: 123) 목적으로 “열린어린이집” 개념을 도입하였고,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열린어린이집 가이드 라인」(권미경·도남희·강은진·최지은·신윤승·서원경·김유미, 2015) 「부모참여 확대를 위한 열린보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연구」(권미경 외, 2015)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더 나아가 국가차원에서 영유아 부모뿐 아니라 예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이미화 외, 2015).

부모교육에 대해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부처에서 부모교육이 실시되자, 이에 대해 현황 정리를 위한 연구가 김길숙·김지현·이혜민(2016)에 의해 수행되었다. 다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분석, 정리한 것 외에도 생애주기별(예비부모, 영유아기 부모, 아동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 28종

류 프로그램 및 가족특성별(가족폭력·아동학대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저소득가족, 이혼가족·이혼위기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족) 17개 프로그램 등 총 45개 프로그램을 수집, 분석하였다.

5. 용어정의

‘부모교육’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부모교육’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부모교육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부모교육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⁴⁾

이순형 외(2011)은 “부모교육(parent education)이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부모 스스로 효과적인 자녀양육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자녀에게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다양한 교육활동”이자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계몽적 활동으로 특정 전문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정의하였다(이순형 외, 2011: 10). 또한, 부모교육(parent education)은 부모훈련(parent training)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부모역할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닌 특정 내담자를 위해 전문 자격증을 지닌 가진 치료자가 행하는 활동인 부모치료(parent therapy)와는 구별하였다(이순형 외, 2011: 10).

김영옥(2016)은 부모교육, 부모훈련, 부모참여, 부모지지, 부모역할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부모교육과 부모훈련을 구별하였다. 부모교육(parent education)은 “부모가 유아교육 및 발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자가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부모훈련(parent training) 부모교육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구체적 절차와 개입이 있을 때는 부모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정의하였다(김영옥, 2016: 18). 또한, 부모참여(parent involvement/parent participation)는 부모가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는 특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부모와 교사가 동반자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유대관계를 갖는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김영옥, 2016: 18)이며, 부모지지(parent support)는 “친지의 도움을 포함하여

4) 부모교육 정의에 대해서도 김은설 외(2009)연구, 김길숙 외(2016) 연구에서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므로 이를 참조바람.

교회, 지역사회 내의 각종 학부모회, 지방단체, 아동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기업체, 기타 사회사업기관으로부터의 지원 및 지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김영옥, 2016: 18).

김경희 외(2006)는 부모교육을 부모참여의 하나의 형태로 보았다. 즉, 부모참여란 정책결정, 부모교육, 기금마련, 자원봉사, 교사와의 정보교환 등 모든 종류의 부모와 교육기관 간의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김희진(2008)은 부모교육이란 “부모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가 강조된 용어으로써, 강연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태도, 기술, 전략 등을 가르치는 다양한 활동”을 부모교육의 예로 제시하였다.

김길숙 외(2016) 연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어 바람직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살펴본 부모교육의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모에게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 지식, 기술 등을 강연회나 워크숍의 형태로 알려주는 활동(=가르쳐 주는 활동)을 부모교육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인 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부모교육이라 한다면, 문제가 있는 부모 대상의 교육을 할 경우에는 부모치료, 부모개입 등의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학령기 학부모 정책의 기조는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 참여권 보장이다. 이러한 개념에서는 학부모는 교육의 대상, 교육의 객체가 아니라 학교교육정책이나 교육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학부모이다. 따라서 학령기 학부모 정책에서는 교육이란 용어를 붙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 조례에서 ‘학부모교육’은 학부모회 기능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학부모교육은 다양한 학부모회 활동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교육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교육이란 부모들의 다양한 참여활동들⁵⁾의 하나의 범주로서, 여기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기획한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 등을 제공해서 양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그리고

5) 다양한 부모활동을 참여수준에 따라 자원봉사, 자원제공, 의사결정, 단순참여로 유형화함(김은설 외, 2009: 12; Galen(1991), 김경희 외(2006), 재인용).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부모교육에는 장난감 및 도서대여, 공동육아나눔터, 부모 자조모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의 부모교육은 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교육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하거나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목적이 분명한 교육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으로 제한하며, 이러한 부모교육에 부모가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부모교육 참여”라고 정의한다.

6. 연구범위

서론에서도 기술했듯이 본 연구는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부모의 권리와 의무 양 측면을 균형 있게 접근한다. 그런데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최근 정책기조는 권리보다는 의무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듯하다.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편적 이용 등이 맞물리면서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유관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던 권리적 측면에서의 부모, 부모교육을 들여다보고자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거나 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위원회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 중에 하나인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초점을 두고 진행함에 따라 정작 부모교육이 필요한 부모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에 취약계층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반가정의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물리적 공간으로는 정부지원으로 전국적에 설치,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제한한다.

II. 부모교육 정책 현황

이 장에서는 부모교육 정책의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먼저, 학령기 학부모교육 정책 현황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영유아 부모교육 정책 현황을 법령 및 전달체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 관할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중심으로 부모교육 사업의 추진 실적 및 부모의 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국외 부모교육 지원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1. (학)부모교육 관련 법령

가. 학령기 학부모 참여 관련 법령

교육주체의 하나로 부모의 권리가 강조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5년 5.31 교육개혁위원회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을 제시하면서 부터이다(강인수, 2017: 3). 1997년 구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3법체제로 개편하고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교육권 개념조항을 교육기본법에 규정하였다(강인수, 2017: 3). 학교 교육의 주체는 크게 1)어린이와 학생 2)부모 3)교원 4)학교설립·경영자 5)국가로 구분한다. 요컨대,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은 1997년 개편한 교육법에서이다.

공교육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공교육의 원리인 의무성, 무상성, 중립성에 따른 체계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1-1> 학생·학부모의 권리

공교육법의 원리		학생(부모)의 권리	내용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성	학교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에서의 학교선택권 • 비의무교육에서의 학교선택권 • 입학, 진급 등 학생분류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적정하게 배치된 학교통학권 등

(표 II-1-1 계속)

공교육법의 원리		학생(부모)의 권리	내용
	무상성	교육조건정비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국고부담청구권 • 학교시설·환경정비요구권
	중립성	교육내용 선택권·결정권 교육과정 참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작성·선택권 • 종교의 자유 • 교육과정 선택권, 결정권, 참여권 • 학문의 자유 • 애국행사참여 결정권
		학문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출판에 대한 자유 • 집회, 수색, 압수에 대한 권리 • 대학에서의 학생의 지위, 발언권 • 대학자치와 학생의 권리
	일반인권	시민적 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두발, 복장 등 표현의 권리 • 집회, 결사의 자유 • 학교참여권

자료: 강인수(1989. 교육법연구. p.48(강인수(2017),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의 권리 실현과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방향. p.8에서 재인용).

무상·의무교육의 공교육체제가 실시되고 있는 초·중학교는 부모를 학부모라 명명하고 학부모를 학교교육의 주체로 규정해서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권한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화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조례의 목적은 단위학교에서 법적근거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함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2015. 10. 8.).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모든 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학부모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법인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2015. 10. 8.).

서울시 동조례 제5조(기능)을 보면,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등 5개를 제시하고 있다. 학부모교육은 이 중에 하나임을 할 수 있다.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일

원으로 학교 활동에 ‘자발적’ ‘적극적’ 참여가 목적으로,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학부모교육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권)에 포함된다.

<표 II-1-2>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 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방식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5.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능)	<p>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재정 지원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2016. 10. 8).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학부모회는 “학부모 구성 및 운영의 목적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므로(동조례 제1조(목적), 표 II-1-2 참조) 기존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는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표 II-1-3 참조).

<표 II-1-3> 학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비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의 제정 및 개정사항 • 학교의 예결산 •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 교육자료 선정 • 학부모 부담 경비 • 방학중 교육활동, 수련활동 • 초빙교원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용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건의 • 발전기금 조성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의견제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 및 제안사항 수렴. 학교장, 학운위에 제시 •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각종 학부모 지원봉사 등 • 학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녀교육 지도나 교육정책이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녀교육 역량강화 추진 • 그 밖의 학부모회 관련 사업

자료: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하나 조례 연수자료집(2013. 2).

나. 어린이집·유치원의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에 중앙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보호자 대표'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5조(유아교육위원회)에서도 중앙 및 시도 위원회에 구성 시, 학부모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을 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아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의 설립, 운영의 목적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이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위원수의 1/2 이상이 학부모 대표로 구성해야 하지만,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위원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학부모 대표를 유치원 교원과 함께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기관 운영, 예·결산, 경비, 급·간식 및 기타 등등 제반 사항들을 심의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표 II-14 참조).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에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가 1:1 구성이 원칙이며 부모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 127). 주요 모니터링 분야는 건강, 급식, 위생, 안전 영역이다.

부모참여라고 하기에는 모호할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는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운영실태 참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2015년에 신설하였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관의 방법, 내용, 일시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 130).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 참여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별 우수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129).

한편, 최근 영유아보육법은 부모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현재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법제처 사이트, 검색일: 2017년 6월 14일), 제9조의2(보호자 교육) 조항을 2017년 3월 14일자로 신설하였다. 보호자 교육(부모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이 될 수 있지만,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항을 제정했다는 취지에서 부모교육을 제도화해서 강조될 것 가능성이 높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이와 같이 보호자 교육(부모교육)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한 것은 부모를 교육의 객체화, 대상화한 것으로써, 학령기 부모정책 기초와는 상반되는 정책이라 하겠다.

<표 II-1-4>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서의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 관련 조항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보육정책위원회·유아교육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제6조 보육정책위원회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 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②)

(표 II-1-4 계속)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제19조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한다(제19조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②). •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제19조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③)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제19조3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④) 1.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사항 2. 어린이집 예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사항(아동학대 예방 포함) 4. 보육시간, 보육과정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사항 6.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협력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 수납액 결정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19조의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초빙교사 추천에 관한 사항

(표 II-1-4 계속)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의 5(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제19조의 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부모모니터링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25조의 2 ①).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제25조의 3 ①). 	
보호자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국가와 지방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9조의2. 2017. 3. 14 신설). 	

자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법제처 사이트, www.law.go.kr, 검색일: 2017년 6월 3일)

유아교육·보육은 현재, 초·중학교 수준의 무상교육·보육도 아니고 의무교육·보육 기관도 아니다. 공교육·보육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학령기

- 6)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 7)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의 학부모들과 동일한 수준의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 정책으로 보편적 지원을 함에 따라 앞으로는 영유아기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중요한 정책의제가 될 것이다. 부모교육도 이러한 맥락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공교육·보육제도가 완비되어 갈수록 부모의 참여권은 점차 강화될 것이다. 이 속에서 자녀양육 역량을 위한 부모교육은 부모의 자발적 요구와 함께 추진되어야 하겠다.

다. 건강가정지원법 부모교육 관련 법령

건강가정지원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1조 목적). 동법의 제4조에는 건강가정 영위를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권리란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이며 의무는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또한, 동법의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라 해서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자녀양육지원의 목적이 다름아닌, 아동의 행복추구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 관련해서는 동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의 ②의 2. 부모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동조 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건강가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정리하면, 건강가정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동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지원체계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부처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있다. 이상의 정부 세 부

처들은 해당 부처 소속 산하 기관(센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기관에 행·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차원이나 유아지원기관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부모교육 참여 지원 체계는 제외하고 정부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서 이상에서 언급하였던 세 부처 중심의 부모교육 실시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기타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모교육 현황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교육부의 유아교육진흥원 및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교육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기관은 유아교육진흥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이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학령기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본 연구범위는 아니지만, 연구배경 차원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교육은 주로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다. 2017년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전남, 경북, 세종시를 제외한 14개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세종, 대전, 전북, 광주, 대구, 경남, 울산, 부산, 제주에 설치되어 있다(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apkt.info/sub/map.asp?m_type=3, 검색일: 2017년 5월 26일). 유아발달과 교육과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아체험학습교육원은 부산, 경기, 전북, 경남 등 전국 4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각 지역별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교육에 관련된 전문 지식 제공 및 부모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연수 내용을 구성하여 부모들을 지원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 대구, 광주 지역 등의 유아교육진흥원을 비롯하여 아버지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연수 내용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홈페이지의 유아교육진흥원 메뉴 참조, http://www.kapkt.info/sub/map.asp?m_type=3, 검색일: 2017년 5월 26일).

〈표 11-2-1〉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현황(2017년 6월 기준)

단위: 개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개수	1	1(1)	1	1	1	1	1
지역	세종	경기	강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
개수	-	1(1)	1	2	1(1)	1(1)	1
총 14개(4)							

주: ()는 유아체험학습교육원 및 유아종합학습분원임.

자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http://www.kapkt.info/sub/map.asp?m_type=3), 검색일: 2017년 6월 22일

2)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전국 시·도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전국 93개의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체교육 형태의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모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를 포함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이트 참조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HAFAAA-AA&bmode=view&idx=HAFAAAA>, 2017년 5월 2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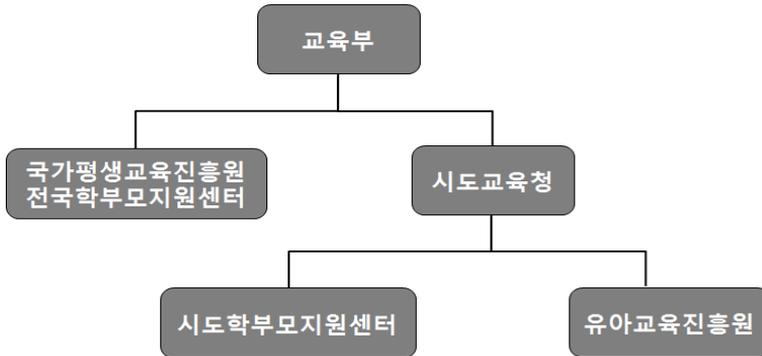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주요 부모교육 기능으로는 학부모 On누리 사이트를 통한 교육정보 제공 및 온라인 교육 실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SNS와 블로그를 이용하여 교육현안 분석,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자녀교육 정보과 같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창의성 및 인성교육 등 자녀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주제로 학부모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PC와 모바일을 통해 부모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이트 참조,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HAFAAAA&bmode=view&idx=HAFAAAA>, 검색일: 2017년 5월 26일).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는 제외하므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을 다루지 않는다.

3) 전달체계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도 교육청의 관할 아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부모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관련 사업을 수행 및 지원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전국 시·도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 산하에 있으며 시·도학부모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산하로 이들 교육청과 연계되어 부모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김길숙·김지현·이혜민, 2016: 133).



자료: 김길숙·김지현·이혜민(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 p. 133 재구성함

[그림 II-2-1] 유아교육진흥원 전달체계

나.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1) 설치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 7조에 근거하여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제공, 보육교직원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이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6).

시·도(광역시)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 2017년 현재 총 76개의 시·군·구 센터와 18개의 시·도 센터가 설치, 운영 중이다(표 II-2-2 참조). 부모교육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센터는 이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다. 시·도보다는 시·군·구 단위에서 부모교육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군·구 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도 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도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발된 클로버 부모교육은 전국의 모든 지방육아종합센터에서 실행하고 있다.

〈표 II-2-2〉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2017년 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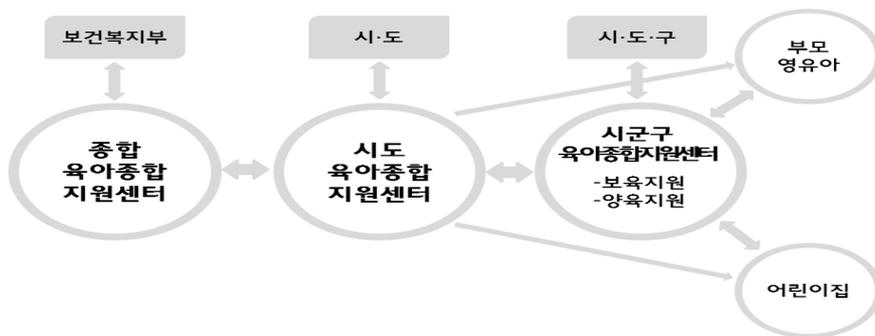
단위: 개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개수	25(1)	5(1)	1(1)	5(1)	- (1)	- (1)	3(1)
지역	세종	경기	강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
개수	-(1)	24(2)	1(1)	2(2)	4(2)	5(2)	1(1)
총 76개(18개)							

주: (): 광역센터수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검색일: 2017년 6월 22일

2) 전달체계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법 제51조의 2, 시행규칙 제39조 2에 근거하여 국가 및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육아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424).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지사는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여 다음과 같은 전달체계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5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 8.

[그림 II-2-2]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중앙육아지원센터에서는 지방육아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외의 정부

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육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424). 예를 들면 중앙육아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과 같은 전국공통사업 매뉴얼 및 자료 제작 등으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육아종합센터는 관할 지역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한 지역 특성에 기반하여 영유아 부모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 등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425).

3) 부모교육: 클로버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은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앙센터의 가정양육지원사업은 크게, 맞춤형 부모교육, 맞춤형 양육서비스, 열린 부모참여 지원, 아이사랑플래너 상담으로 구분된다(표 II-2-2 참조). 이중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명이 '클로버 부모교육'이다.

<표 II-2-3> 중앙육아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사업

구분	사업명(세부내용)
맞춤형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로버 부모교육 자료제작 및 보급 • 클로버 부모교육 사업 담당자 설명회 • 클로버 부모교육 사업 강사진 교육 • 클로버 부모교육 홍보물 제작 • 클로버 부모교육 모니터링 • 클로버 부모교육 중간 간담회·사업평가회 •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강사진 교육 •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교재 실비보급 •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사업평가회
맞춤형 양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환경지표 강사진 교육 • 놀이환경지표 활용(지표제작) • 놀이환경지표 활용(가정방문) • 온라인 전문상담위원 위촉, 운영, 평가회
열린 부모참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자료개정 및 보급 • 사업 관련 자료제작 • 부모모니터링단 강사진·담당자 교육 • 부모모니터링단 우수사례 공모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평가 및 간담회
아이사랑플래너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사랑플래너 교육자료 및 사례집 제작 • 아이사랑플래너 교육 • 양육상담 운영

(표 II-2-3 계속)

구분	사업명(세부내용)
아이사랑플래너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사랑플래너 상담 홍보물 제작·보급 아이사랑플래너 상담 사업평가회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85.

클로버 부모교육은 부모대상 교육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으로 구분된다. 부모대상 교육의 주제는 나, 아이, 가족, 이웃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주제는 가족과 이웃이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클로버 부모교육은 부모대상 교육과 부모자녀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소중한 나, 멋진 아이,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이라는 4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회 차에 걸쳐 소그룹 형태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모자녀 체험활동은 긍정의 가족과 아름다운 이웃이라는 주제로 영아대상 12개, 유아대상 20개로 총 32개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센터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d1_600062.jsp, 검색일: 2017년 5월 26일).

<표 II-2-4> 클로버 부모교육 내용 및 운영 기본사항

구분	부모대상				부모/자녀(체험)	
	나	아이	가족	이웃	가족	이웃
제목	소중한 나	멋진 아이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가족행복 제작소	이웃사랑 무대
내용 특성	성격유형 검사를 통해'나'에 대한 강점을 발견하고, 긍정적 가치 향상에 초점	아이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대화법, 양육효능감 향상에 초점	가족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에 초점	이웃과 함께하는 리더십 역량강화, 함께 성장하는 자세에 초점	-	-
회기	1회기/2회기				영아(6회)/유아(10회)	
소요 시간	2시간 이내				회기당 90분 이내	
인원	1회기당 최소 10명 이상				회기당 8가족 이상	

자료: 중앙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d1_600062.jsp, 검색일 2017년 5월 26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클로버 교육'은 전국 공통의 영유아 부모교

육 프로그램이다. ‘클로버 부모교육’은 2015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이소희 교수 연구팀이 개발하였다. 전국적으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영유아 자녀 및 가정의 안정된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다양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통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56). 아울러, 강사진 양성교육을 1박 2일로 실시하여 총 364명의 주제별 전문 강사진을 양성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57).

〈표 II-2-5〉 2016년 클로버 부모교육 내용 및 실적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이고 공통된 부모교육을 통해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사업의 정체성 확립 •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유의 부모교육 실행을 위해 전국 영유아 가정에게 긍정적 부모역할 증진 • 공통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확산, 보급함으로써 보편적이고 일관된 부모교육을 실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건강한 가정양육환경 조성 및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위한 주제별 부모교육 자료제작(숙명여대 이소희 교수연구팀) • 강사진 양성교육 진행: 클로버 부모교육 강사진 200명, 부모-자녀체협 프로그램 강사진 164명 대상으로 1박 2일/1회 실시 •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강사진 매뉴얼, 부모대상 교재, 부모-자녀체협 활동 교재 보급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56

다.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 설치현황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과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a).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2015년도에는 전국의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는 151개소(시·도(광역시) 센터 7개소, 시·군·구 센터 144개소)로 보고되었다(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 20). 2017년 현재 기준으로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총 167개로 집계되었다. 이 중 시·군·구 센터는 161개, 시·도(광역시) 센터는 6개로,

시·군·구 중심으로 센터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6〉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2017년 6월 기준)

단위: 개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개수	25(1)	9(1)	8	9	5	1(1)	3
지역	세종	경기	강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
개수	-(1)	31(1)	9	17	20	22(1)	2
총 161개(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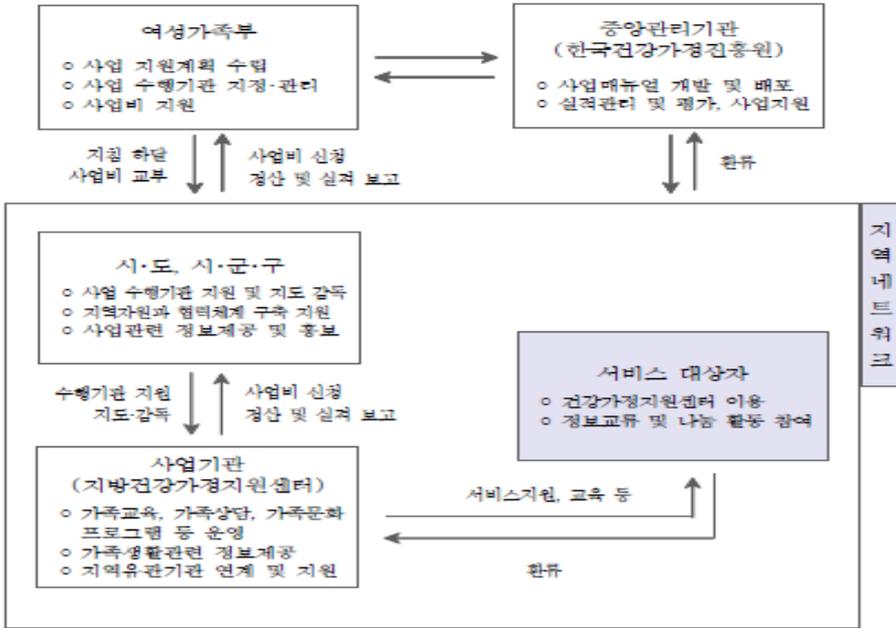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광역센터수입.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ynet.or.kr/>), 검색일: 2017년 6월 22일

2016년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가 실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17a: 9). 2016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이 78개소이었는데 2017년 101개소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7a).

2) 전달체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달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 관리 감독 및 지도를 수행한다. 둘째, 시·도 및 시·군·구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지원과 관리 감독, 지도 등을 수행한다. 셋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주요 가족정책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고 평가한다. 넷째,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국건강진흥원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다섯째,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일차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단위 가족행활 교육·상담·문화·돌봄사업을 수행한다(여성가족부, 2017a: 11-12).



자료: 여성가족부(2017a),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 13

[그림 II-2-3]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달체계

라. 기타 부처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모교육 이외의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모교육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보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맞벌이 부모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여성 역량 강화 및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길숙·김지현·이혜민, 2016).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같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길숙·김지현·이혜민, 2016). 그러나 서론의 연구의 범위에서 밝혔듯이, 기타 부처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3.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실시 현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1) 부모교육 추진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겠다.

지난 3개년 간 부모교육은 총 16,960회(360,664명)로 집계되었으며, 2014년에는 5,787회(125,091명), 2015년에는 3,406회(84,563명), 2016년에는 3,543회(137,230명)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자체 부모교육의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 1,271회(33,196명)로 가장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 지역에서 1,036회(38,591명), 경기북부 지역에서 284회(12,547명)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47).

〈표 II-3-1〉 2014년-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추진 현황

단위: 회, 명

지역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16,960	360,664	5,787	125,091	3,406	84,563	3,543	137,230
서울	8,062	152,152	3,862	66,993	1,464	33,426	1,271	33,196
부산	655	16,895	26	671	105	2,487	226	17,593
대구	428	16,172	6	397	185	5,218	50	6,083
인천	836	20,751	306	8,726	251	6,205	83	4,416
광주	95	1,452	73	778	14	300	29	2,288
대전	92	4,564	4	80	16	1,301	83	1,889
울산	1,649	15,778	491	6,857	269	4,083	175	7,821
세종	97	1,261	17	310	7	93	33	1,595
경기	2,106	47,454	417	11,544	539	11,357	1,036	38,591
경기북부	752	14,861	153	4,648	243	4,148	284	12,547
강원	133	7,821	28	2,175	34	2,345	28	2,217
충북	181	5,146	13	1,115	29	1,477	9	199
충남	430	13,860	152	4,101	28	3,880	29	608
전북	392	15,370	22	7,942	59	1,549	68	2,854
전남	50	1,662	31	1,330	4	105	16	538
경북	617	14,481	108	4,017	82	3,209	45	2,236
경남	291	6,977	51	2,295	55	2,262	26	567
제주	94	4,007	27	1,112	22	1,118	52	1,992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47.

2016년 시·도 및 시·군·구 센터에서 진행된 자체 부모교육 추진 현황을 살펴 보면, 시·도 센터에서 601회, 시·군·구 센터 2,942회를 추진하여 총 3,543회가 진행되었다. 참석인원은 시도센터 28,225명, 시군구센터 109,005명으로 총 137,23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 부모교육이 1,271회, 참석인원 33,19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 지역이 1,036회에 참석인원 38,591명, 경기북부 지역이 284회에 참석인원 12,547명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42).

〈표 11-3-2〉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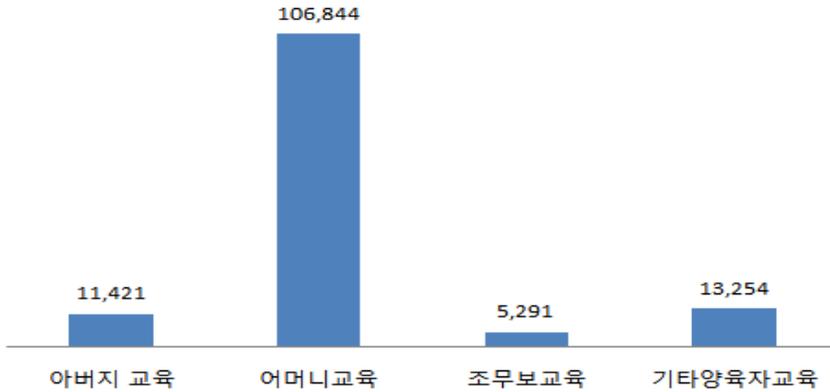
단위: 회, 명

지역	총계		시도센터		시군구센터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3,543	137,230	601	28,225	2,942	109,005
서울	1,271	33,196	33	1,443	1,238	31,753
부산	226	17,593	10	309	216	17,284
대구	50	6,083	46	6,030	4	53
인천	83	4,416	31	521	52	3,895
광주	29	2,288	29	2,288	-	-
대전	83	1,889	83	1,889	-	-
울산	175	7,821	115	4,547	60	3,274
세종	33	1,595	33	1,595	-	-
경기	1,036	38,591	30	1,275	1,006	37,316
경기북부	284	12,547	15	532	269	12,015
강원	28	2,217	20	2,112	8	105
충북	9	199	8	151	1	48
충남	29	608	21	471	8	137
전북	68	2,854	20	703	48	2,151
전남	16	538	16	538	-	-
경북	45	2,236	29	1,647	16	589
경남	26	567	10	182	16	385
제주	52	1,992	52	1,992	-	-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42.

부모교육에 참석한 인원을 대상별로 확인한 결과, 총 인원 136,810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어머니(106,884명)로 전체 중 78.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타양육자 13,254명(9.7%), 아버지 11,421명(8.3%), 조부모 5,291명(3.9%)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43).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 143.

[그림 II-3-1]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참석자 현황

부모교육 내용으로는 총 6,142회 중 양육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3,157회(4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3,028회(47.2%), 아동학대예방 135회(2.1%), 자녀권리존중 92회(1.4%)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44).

<표 II-3-3>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내용별 현황

		단위: 회(%)				
구분	총계	어린이집이용	양육지원	아동학대예방	자녀권리존중	
교육 횟수	6,412	3,028	3,157	135	92	
	(100.0)	(47.2)	(49.2)	(2.1)	(1.4)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 145.

부모교육의 진행 형태는 대집단 교육, 소집단 교육, 기타 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인 이하의 그룹으로 진행하는 소집단 교육은 4,566회(5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교육 1,572회(20.4%), 대집단(집체교육) 1,569회(20.4%)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45).

〈표 II-3-4〉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진행 형태별 현황

단위: 회, %

구분	총계	대집단(20인 이상)	소집단(20인 이하)	기타(체험 연수 등)
교육 횟수	7,707	1,569	4,566	1,572
	(100.0)	(20.4)	(59.2)	(20.4)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 145.

2016년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전체 20개 센터에서 676 회를 15,169명에게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요리프로그램, 숲체험, 동화프로그램, 전통체험프로그램, 봄맞이 생태프로그램, 안전교육 프로그램, 그림책 프로그램, 친환경 프로그램(텃밭체험) 등이 이루어졌다.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교육을 실시한 센터의 시도·시군구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48).

〈표 II-3-5〉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대상 교육 추진 현황

단위: 개소, 회, 명

지역	총계			시도센터			시군구센터		
	참여센터	횟수	참여자	참여센터	횟수	참여자	참여센터	횟수	참여자
계	20	676	15,169	3	57	1,119	17	619	14,050
서울	4	52	1,530	-	-	-	4	52	1,530
부산	1	36	463	-	-	-	1	36	463
대구	1	29	687	1	29	687	-	-	-
인천	2	43	605	1	27	402	1	16	203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3	23	534	-	-	-	3	23	534
세종	-	-	-	-	-	-	-	-	-
경기	4	355	9,584	1	1	30	3	354	9,554
경기북부	3	52	882	-	-	-	3	52	882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1	25	378	-	-	-	1	25	378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1	61	506	-	-	-	1	61	506
제주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 148.

2) 양육상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 형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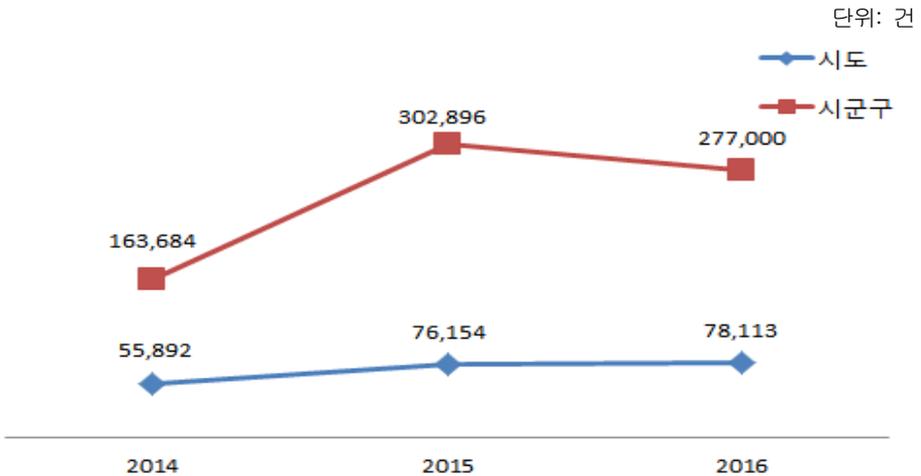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총 219,576건, 2015년 379,050건, 2016년 총 355,113건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53). 2015년 대비 2016년의 양육상담 건수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6〉 최근 3년 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상담 추진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53,739	219,576	379,050	355,113
시도센터	210,159	55,892	76,154	78,113
시군구센터	743,580	163,684	302,896	277,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 153.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 153.

[그림 II-3-2] 최근 3년 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상담 추진 현황

2016년도 상담 건수는 총 355,113건으로 상담 경로를 분석하면 홈페이지 상담 8,888건(2.5%), 전화 상담 299,551건(84.3%), 대면 상담 45,049건(12.7%), 외부기관 연계 상담 1,625건(0.5%)으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51). 전화상담이 보편적인 상담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표 II-3-7〉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상담 추진 현황

		단위: 건(%)			
구분		홈페이지	전화	대면	외부기관 연계
총계	355,113(100.0)	8,888(2.5)	299,551(84.3)	45,049(12.7)	1,625(0.5)
시도센터	78,113	6,830	63,315	7,916	52
시군구센터	277,000	2,058	236,236	37,133	1,573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 151.

시도 및 시군구센터(91개소)에서 총 355,113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므로 한 센터당 연간 평균 3,902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월 325건, 일 13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52).

한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기금을 받아, 시도센터와 함께 수요자 맞춤형 전문적인 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아이사랑플래너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60). 아이사랑플래너란 성장단계별 양육방식 조언 등을 위해 직접 양육자를 찾아가 1:1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말한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144). 2015년 아이사랑플래너 상담 건수는 개별상담 428건, 집단상담 164건이 실시되었다.

4)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해 동안 제공한 참여프로그램의 대상별 참여인원은 다음과 같다. 총 참여인원은 663,830명이며, 이 중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이 596,010명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50).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모들 대부분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8〉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 참여프로그램 대상별 참여인원

단위: 회, 명(%)

구분	총계		영유아		영유아+부모	
	횟수	인원	횟수	참여 인원	횟수	참여 인원
계	61,372	663,830(100.0)	28,472	67,820(10.2)	32,900	596,010(89.8)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 150.

참여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미술, 요리, 신체, 과학, 음악, 감각활동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실내놀이실(체험실)을 통하여 제공한 프로그램은 총 15,755회 이루어졌으며 경기 북부 지역이 4,929회로 가장 많은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 지역 3,721회, 경기 지역이 3,567회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149).

5)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위원 교육 추진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2012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3개년 간 교육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33개 센터에서 62회(6,557명), 2015년에는 40개 센터에서 89회(6,829명), 2016년에는 51개 센터에서 89회(5,086명)를 실시함으로써 총 실적은 240회(18,472명)이다. 신규 센터의 증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2016년에는 어린이집 부모 운영위원회 교육에 참여한 센터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96).

〈표 II-3-9〉 2014년~2016년 어린이집 부모 운영위원회 교육 추진 현황

단위: 개소, 회, 명

지역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횟수	인원	센터	횟수	인원	센터	횟수	인원	센터	횟수	인원
총계	240	18,472	33	62	6,557	40	89	6,829	51	89	5,086
서울	47	1,922	8	9	515	10	22	786	13	16	621
부산	7	132	-	-	-	2	3	77	3	4	55
대구	5	381	1	1	146	1	2	120	1	2	115
인천	23	3,511	5	14	2,417	3	4	400	4	5	694
광주	-	-	-	-	-	-	-	-	-	-	-
대전	21	1,372	1	1	313	1	4	631	1	16	428
울산	18	2,078	2	4	602	2	8	895	2	6	581

(표 II-3-9 계속)

지역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횟수	인원	센터	횟수	인원	센터	횟수	인원	센터	횟수	인원
세종	3	81	-	-	-	1	1	22	1	2	59
경기	33	2,578	6	8	484	7	9	819	11	16	1,275
경기북부	25	2,361	3	9	880	3	9	973	5	7	508
강원	11	546	1	3	167	2	5	191	1	3	188
충북	8	667	1	1	172	1	4	339	1	3	156
충남	16	948	2	6	242	2	8	638	2	2	68
전북	9	185	1	2	54	2	4	75	2	3	56
전남	-	-	-	-	-	-	-	-	-	-	-
경북	8	1,376	1	3	533	1	3	693	2	2	150
경남	3	150	1	1	32	1	1	27	1	1	91
제주	3	184	-	-	-	1	2	143	1	1	41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 96.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1) 영역별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연계 등 6개 영역의 사업이 ‘공통필수사업’으로 시군구 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다. 각 영역별 사업 내용은 다음 <표 II-3-10> 과 같다.

<표 II-3-10>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필수사업 영역과 내용

영역	내용
가족돌봄나눔 (3개 사업 중 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가족봉사단: 기존의 가족봉사단의 내용을 ‘돌봄’을 주제로 전환하여 운영 모두가족 품앗이: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 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 다양한 그룹운영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일 돌봄 프로그램
가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기 부부,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포함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 예비부부: 부모대상 고비용 혼례교육: 연간 센터당 30명 교육 남성대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 교육 등 - 연간 20시간 이상

(표 II-3-10 계속)

영역	내용
가족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집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사업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접근과 가족구성원이 함께 하는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을 포함 - 가족단위의 면접 상담 유도 - 연간 상담실적이 100명 이하인 센터는 가족집단상담을 연간 2건 이상 반드시 포함
가족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사랑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1회, 수요일, 연간 20시간 이상(※참가자 상황등 고려 요일변경가능)
다양한가족 통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지원, 관계향상교육, 놀토 프로그램 등 서비스 실시 - 2인 이상 가족 대상, 10시간 이상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협의체 참여, 협약 및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협의체,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및 참여 - 유관기관 사업협약 5건 이상

자료: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6). 2015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실적보고서 p.13.

2) 영역별 참여인원 현황

영역별 사업에서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은 ‘가족돌봄나눔’이다. 2015년 기준 전체 영역 중 849,735명(36.9%)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2014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영역은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이고 ‘가족문화’, ‘가족돌봄나눔’ 사업도 전년 대비 참여인원이 증가하였다. 반면, 가족상담은 7.5% 감소하였다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 30).

〈표 II-3-11〉 2014년 대비 2015년 사업영역별 참여인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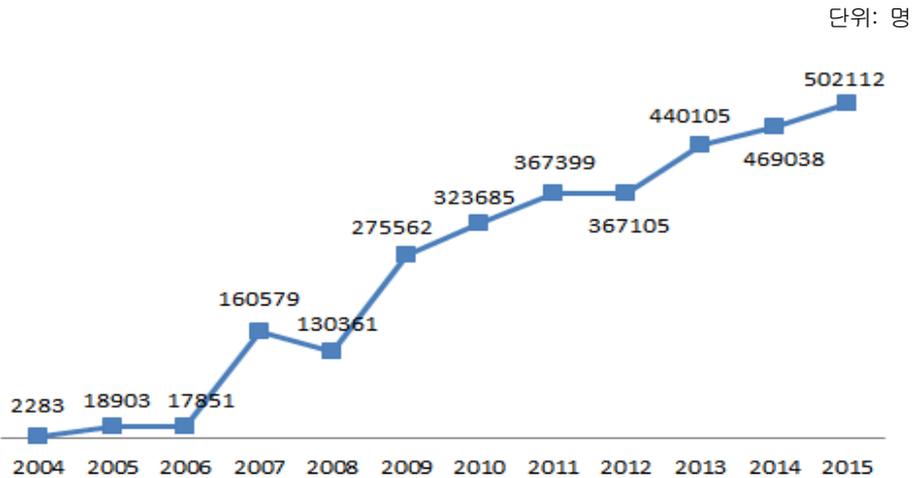
구분	가족 돌봄 나눔	가족 교육	가족상담		가족 문화	다양한 가족통합 서비스	계
			일반 상담	프로 그램			
2014년	737,911	469,038	167,888	85,156	500,119	78,325	2,038,437
2015년	849,735	502,112	184,968	78,804	581,256	107,443	2,303,318
영역별비중(%)	36.9	21.8	8.0	3.5	25.2	4.7	100.0
전년대비증감비율(%)	15.2	7.1	9.6	-7.5	16.2	37.2	13.0

자료: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 2015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실적보고서 p.30.

한편, 건강가정지원사업은 가족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부분 시군구 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다(표 II-2-6 참조).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달리, 광역센터가 없는 시도가 많지만, 시군구센터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시도에 설치된 광역센터는 전체 151개 중 6개에 불과하다.

3) 가족교육 참여 현황

가족교육의 2015년도 참여인원은 총 502,11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센터당 평균 참여인원은 3,325명, 평균 회기수 100.9회기로 저년대비 다소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 51).



자료: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6). 2015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실적보고서 p.52.

[그림 II-3-3]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 연간 참여인원 현황

가족교육은 남성교육, 부모교육, 부부교육, 자녀대상 교육으로 분류하고, 부모교육과 부부교육을 또 생애주기별로 세부 분류한다. 세부프로그램 분석 결과, 기타교육 165,31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모교육이 104,169명으로 2순위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중에서는 초등 저학령기 자녀 부모교육이 26,134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다음으로 예비부모교육, 영유아기 부모교육, 청소년기 자녀(중년기) 부모교육, 성인기자녀(노년기) 부모교육, 조부모교육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 52).

〈표 II-3-1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회기수 현황

단위: 명, 회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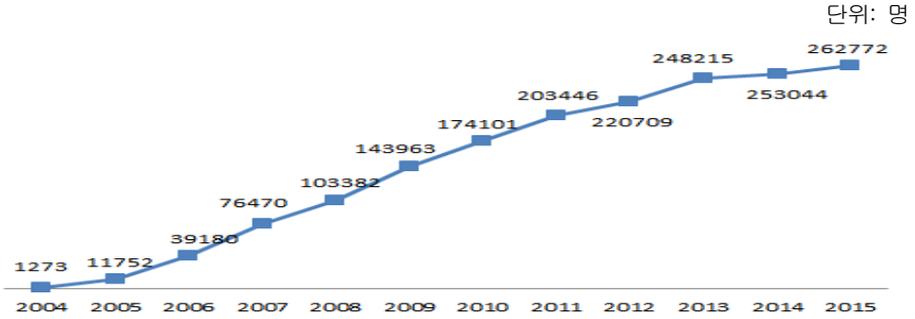
대상	세부분류	참여인원			합계	진행 회기수
		남	녀	비구분		
남성	남성대상교육	38,205	5,990	35,380	79,575	2,215
부모 교육	예비부모교육	7,811	9,028	7,625	24,464	907
	영유아기자녀	2,129	12,612	5,073	19,814	972
	초등저학령기자녀	3,013	14,711	8,410	26,134	1,138
	청소년자녀(중년기)	1,341	8,407	3,894	13,642	634
	성인기자녀(노년기)	1,017	3,523	6,372	10,912	295
	조부모교육	441	3,397	5,365	9,203	235
	소계	15,752	51,678	36,799	104,169	4,181
부부 교육	신혼기 가족교육	791	1,502	280	2,573	126
	중년기 가족교육	2,887	8,474	4,770	16,105	802
	노년기 가족교육	2,427	14,362	16,137	32,926	1,085
	소계	15,752	24,338	21,161	51,604	2,013
자녀교육	자녀대상 교육	8,996	11,557	80,896	101,449	2,291
기타	기타교육	11,558	26,004	127,753	165,315	4,349
합계		80,616	119,567	301,929	502,112	15,049
비율		16.1	23.8	60.1	100.0	-

자료: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6). 2015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실적보고서 p.53.

가족교육은 42.18%가 건가센터에서 실시되었으며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 경우는 정부기관이 16.89%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13.37%, 중·고등학교 9.82%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 54).

4) 가족상담 참여 현황

가족상담에 참여한 인원은 2015년 기준 262,772명이며 가족교육 참여인원보다 더욱 가파르게 증가추이를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가족상담 참여인원 현황을 보면, 일반상담(면접/전화/사이버/방문/기타)와 프로그램(집단상담/자조모임)을 포함하여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8%가 증가하였다. 일반상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상담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다(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 57). 일반상담 내용 중 가족상담이 전체 56.8%로 가장 많고, 그 중 부부관계 갈등 상담이 20.3%로 가장 많았다. 일반상담은 크게 부부문제, 자녀문제, 그 외 가족문제, 개인문제 4가지로 분류되는데, 개인문제가 가장 많은 비율(43.2%)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부부문제(33.7%), 자녀문제(18.1%), 그 외 가족문제 5.1%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 64).



자료: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6). 2015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실적보고서. p.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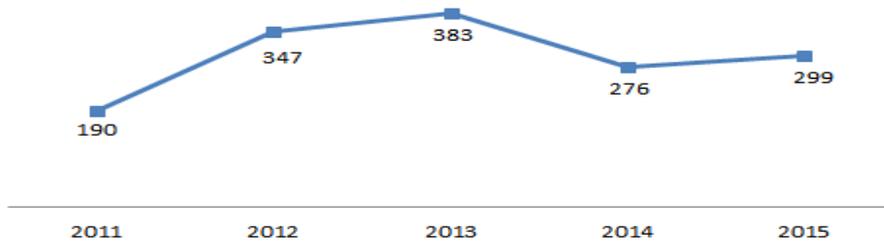
[그림 II-3-4]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연간 참여인원 현황

5) 아버지-자녀 토요일 돌봄 프로그램 참여 현황

토요일휴무가 일반화되면서 주중에 시간이 많이 못 보내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유아 또는 초등학교 자녀와 아버지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는 104개로 13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건가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토요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때문에(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 84) 참여자가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돌봄, 품앗이, 상담 등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토요일 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이상 운영한다. 활동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지, 페트병, 풍선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놀이, 제조, 게임 등 아버지와 자연스런 접촉이 가능한 활동을 실시한다(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 84).

단위: 명



자료: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6). 2015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실적보고서. p.85.

[그림 II-3-5]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자녀 함께하는 토요일 돌봄프로그램 평균 참여인원 현황

다. 유아교육진흥원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지역의 상황 및 특성에 맞게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육아종이나 건가에서처럼 전국 공통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부모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버지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길숙 외, 2016: 66).

〈표 II-3-13〉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주최 부모교육(2017년 기준)

구분	주제(내용)	대상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연수 단기과정 · 일반연수 심화과정 · 학부모·조부모 동아리 운영 	서울특별시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및 조부모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부모 자격」 반 학부모 연수 · ‘행복한 아이 키움’ 학부모 연수 · 취약계층 가정 학부모 연수 ·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한 학부모 연수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발달 및 가족관계 이해 · 부모의 역할 및 자녀와의 소통 방법 · 손자녀 양육방법 및 100세 건강법 · 아버지가 알아야 할 자녀 양육 기술 	유치원 학부모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아카데미 연수 · 학부모 동아리 운영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학부모교실 · 감성글씨와 수채화기법 ·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 (조부모교육) 손자녀와 함께 전래놀이 해요 · 우리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하다 	광주시내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부모자격증 연수(기초) · 좋은부모자격증 연수(심화) · 학부모(아버지) 연수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마음을 읽는 우리가족 대화법 · 조부모교육 -내 손주를 위한 사랑의 기술- · 바른 먹거리, 건강한 우리 아이 · 좋은 아빠 교실 -아빠와 함께 놀이해요- · 엄마의 선물.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 취학 전 예비학부모 교육 	울산광역시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역주민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17개 과정) 	학부모

(표 II-3-13 계속)

구분	주제(내용)	대상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국공사립유치원 학부모, 예비학부모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공감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 좋은 부모 되기 연수 이수제 	만 3~5세 유아 부모 및 예비학부모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중심 부모교육 • 찾아오는 부모교육 • 찾아오는(가는) 조부모교육 •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놀이 교실 	공사립유치원 부모 및 조부모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연수(10개 과정)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유아의 창의·인성 교육활동을 돕는 체험활동 연수 • 전문가 상담 및 교육활동을 통한 정서 행동 치료 연수 	제주도 내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

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i.go.kr/03parents/training.asp?activem=3&actives=0&activek=1>,

검색일: 2017년 6월 8일

2)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child.pen.go.kr/sub.php?MenuID=47>, 검색일: 2017년 6월 8일

3)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daegu-i.go.kr/content/03parent/01_01.jsp, 검색일: 2017년 6월 8일

4)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iecedi.or.kr/sub/parent_info1.php?mn=parent&fn=board&bn=board_20,

검색일: 2017년 6월 8일

5)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iedu.gen.go.kr/subContents/parents/parentsGuidance.asp?pageKey=87>,

검색일: 2017년 6월 8일

6)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dje-i.go.kr/sub/info.do?m=040101&s=kids>, 검색일: 2017년 6월 8일

7)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uskids.kr/hakbumo/hakbumo01.php>, 검색일: 2017년 6월 8일

8) 강원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wch.go.kr/hb/infant/sub04_01, 검색일: 2017년 6월 8일

9)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cbiedu.go.kr/home/sub.php?menukey=60>, 검색일: 2017년 6월 8일

10)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cn-i.go.kr/2014/parents/sub_01.jsp, 검색일: 2017년 6월 8일

11) 경상남도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nchild.go.kr/index.child?menuCd=DOM_000000103010004001,

검색일: 2017년 6월 8일

12)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jjkids.go.kr/jjkids/040101/sub>, 검색일: 2017년 6월 8일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도별로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으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처럼, 각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집해서 정리한 중앙차원의 사업보고서는 발간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의 참여현황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4. 국외사례

본 절에서는 부모교육과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 선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나가고 있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은 부모교육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하나이며, 가장 발전된 부모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교육에 많은 관심이 두고 있으며, 그 중 부모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아울러 우리와 달리, 초중등학교의 학부모회가 자발적으로 활발히 실시하고 있고, 우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사한 자녀양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가. 미국

미국의 부모교육의 태동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교회에 모여 종교적 신념을 토대로 효과적인 훈육 및 양육 방법을 상의 하던 18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김은설, 장혜진, 김문정, Susan Walker, 2011).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다양한 연방정부 프로그램(Head Start, Healthy Ramillies 등)을 운영하여 자국의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왔고, National PAT(Parent As Teacher) Center를 만들어 부모행동에 대한 척도(parenthood behavior scale)의 개발 및 PET(Parent Efficiency Training)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로 부모들의 교육 요구에 대한 맞춤형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양상은 주로 주 (states) 단위의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주의 특성을 기본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1) 부모교육 관련 법 조항

미국의 연방헌법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주 단위의 지역 내 부모교육 및 참여에 관련한 법률은 Elementatry and S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의 sec 1116[20 U.S.C. 6318] PARENT AND FAMILY ENGAGEMENT에 간접적으로나마 명시하고 있다(<https://legcounsel.house.gov/Comps/Elementary%20And%20Secondary%20Education%20Act%20Of%201965.pdf> p68~72 자료 참조). 그 내용은 지역교육기관(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이 모든 부모와 가족구성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과 활동 및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의 절차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활동, 절차들은 참여하는 아동의 부모들에게 논의 후,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부모교육 활동의 대부분이 지역교육기관 및 대행기관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위 사항에 근거하여 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부모들의 참여가 전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지역교육기관의 참여가 전제되고, 참여를 위해 구성되는 조직 또는 자조모임에서 부모들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state)단위 부모교육 전달체계

미국의 부모교육의 형태는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주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단위 프로그램은 전국부모교육네트워크(the National Parenting Education Network: NPEN)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국부모교육네트워크에서는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교수자, 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 및 부모교육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내하고 있다.

전국부모교육네트워크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모교육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아동기부터 건강한 성년기까지 지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모교육과 가족지원의 가장 좋은 예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모든 부모들에게 양육과 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전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 가정의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개별성을 인식하고 존중한다고 정의하고 있다(<http://npen.org/about-npen/core-principles>, 2017년 5월 27일 인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각 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단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51개 행정구역 내 총 195개의 부모교육 관련 사이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주는 Texas주로, 21개의 프

로그인 및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8)

이 중 몇 가지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코네티컷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Connecticut Parenting Education Network**는 아동들의 사회·정서·교육의 향상을 위한 부모들의 관심을 교육하기 위한 사이트이다. 해당 사이트의 자료실에서는 태어나서부터 3살 때까지의 교육부터 코네티컷 주에서 지원되는 내용, 조부모 양육, 지역 법률센터 등의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코네티컷 부모교육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tpen.org>에서 2017년 5월 27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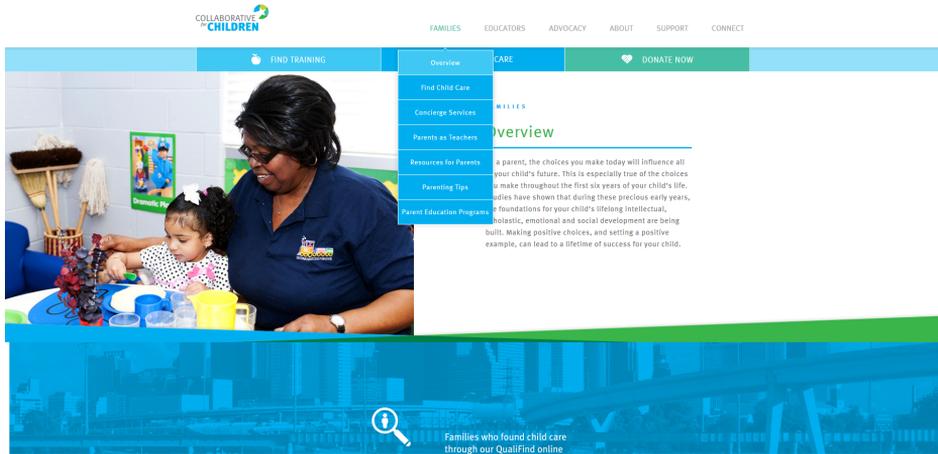


자료: CT-PEN 홈페이지, <http://ctpen.org>, 2017년 5월 27일 인출.

[그림 11-4-1] CT-PEN 자료실 내 부모교육 지원 내용

한편, 가장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Texas** 주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Collaborative for Children**은 부모교육, 부모참여, 양육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사이트이며, 자녀양육, 양육팁,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을 클릭하게 되면 각 항목의 설명과 함께 핫라인 전화번호와 담당 기관의 주소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 및 프로그램의 내용과 함께 기관의 홈페이지로 다시 연결해주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 경험 공유부터 문화체험 행사까지 다양한 부모교육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다.

8) <https://npen.org/professional-development/parenting-education-networks-organizations-and-programs-by-state/#tx>에서 2017년 5월 25일 인출.



자료: Collaborative for Children 홈페이지, <http://collabforchildren.org>, 2017년 5월 27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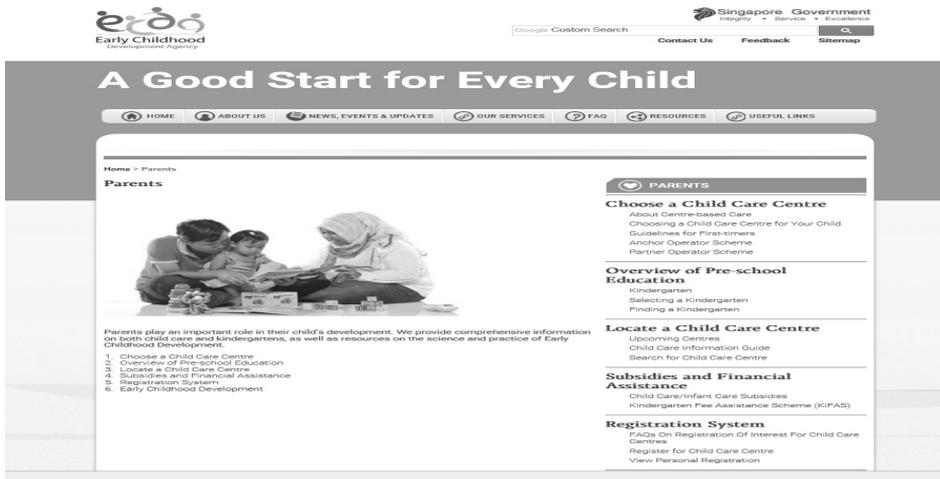
[그림 11-4-2] Collaborative for Children 부모교육

나.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모인 도시국가이다. 여러 인종과 문화에 영향을 받은 국민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각기 다른 문화를 계승하는 것을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통합된 가치관을 전수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싱가포르 정부가 인지하고 지원정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부모교육 전달체계

싱가포르의 부모교육은 크게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한 부모교육과 ECDA(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ECDA는 우리나라의 기관과는 다른 보육 통합 기관으로 볼 수 있다. ECDA에서 아동들의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보육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보육운영진, 부모, 교수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 부모에게 제공해주는 영역은 보육기관을 선정하는 방법, 양육지원센터 위치, 급간식 및 재정적 지원, 아동 발달 등이 있다.



자료: ECDA 홈페이지, <https://www.ecda.gov.sg/parents/Pages/Default.aspx>, 검색일: 2017년 5월 27일

[그림 11-4-3] ECDA 부모교육 콘텐츠

ECDA의 경우, 자료실에 아이들의 먹거리, 실내온도, 양육과정, 놀이 등 부모가 궁금해 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유아기의 발달에 대해서도 자세한 통계량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ECDA 홈페이지, <https://www.ecda.gov.sg>, 검색일: 2017년 5월 27일).

한편, 싱가포르 교육부에서는 **Nurturing Early Learners**라는 유치원 교육과정 설명서를 제공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들에게 세미나 형식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따로 **SPED(Special Education)**에 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 내 특수교육 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절차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싱가포르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v.sg>, 검색일: 2017년 5월 27일).

싱가포르에서는 영유아기 교육의 특징 중 다민족 다언어 정책(**Mother Tongue Language Policy**)의 일환으로 4가지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 기관에서 오전에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4가지 언어 중에 하나를 배우는 방식이다. 우선 공용어인 언어와 각기 다른 3가지 언어(말레이어, 타밀어, 중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부모교육 또한 정부에서 이 언어들에 맞추어서 교육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https://www.ecda.gov.sg/growatbeanstalk/pages/articlelist.aspx?type=4>, 검색일: 2017년 6월 5일).



자료: <https://www.moe.gov.sg/docs/default-source/document/education/special-education/files/parents-guide-children-special-educational-needs.pdf>, 검색일: 2017년 5월 27일

[그림 11-4-4] SPED 부모교육 가이드

CHINESE LANGUAGE RESOURCES

A Cozy Place to Sleep/ 小猫小睡要睡觉

Author: Gary Goh 吴国雄

Click here for book availability in public libraries.

A Dangerous Place to Live/ 一个危险的地方

Author: Gary Goh 吴国雄

Click here for book availability in public libraries.

Chili, Sharp and Spicy/ 辣椒, 又辣又够味



Author: Lim Shekkinah

Oh no! Chili has lost her flavour! If she can't help the chefs make her dishes sharp and spicy, she might get tossed out of the Asian Spice Kitchen. What can Chili do? Find out in this spicy tale about working hard and doing your best.

Click here for book availability in public libraries.

MALAY LANGUAGE RESOURCES

Adli's Dining Table/ Meja Makan Adli



Author: Riha Meleati Bahri

Follow Adli's humorous tale when his dining table gets taken away by Ah Pek, the rag-and-bone man!

Click here for book availability in public libraries.

Adi's Baju Melayu/ Baju Melayu Adi



Author: Riha Meleati Bahri

Join Adi as he disguises himself in a baju melayu and find out how this funny adventure ends!

Click here for book availability in public libraries.

TAMIL LANGUAGE RESOURCES

The Crane and the Crab/ கரங்கடி பன்றி



Author: SR Nathan

A long time ago in a kampong was a pond that was full of fish. But the pond soon began to dry, and a watchful and greedy crane had an idea. He took the fish one by one, thinking that he will bring them to a large opening lake. In the meantime, a crab who has been watching the crane had plans of his own.

Click here for book availability in public libraries.

The Snail Who Didn't Wait His Shell/ கருவேலி கழி



Author: Ramasathan Ramasathan

Snail Shell loves to race and finds a way to beat his friends. In the process, he learns that his shell is more valuable than he first believed it to be.

Click here for book availability in public libraries.

자료: <https://www.ecda.gov.sg/growatbeanstalk/Pages/ArticleDetail.aspx?type=3&articleid=285#.WTTAabeweUK>, 검색일: 2017년 6월 5일

[그림 11-4-5] MTL 관련 동화 및 부모 가이드 북

다. 일본

1) 학부모회 PTA

일본의 학부모 정책 관련법은 없으며, 정부 주도적으로 학부모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지 않다(강인수, 2017: 15). 일본의 학부모회인 PTA(Parent Teacher

Association)은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학교의 PTA에서 학부모 대상 연수회 및 오리엔테이션을 자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조직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강인수, 2017: 15).

다만, 문부과학성 사회교육과에서 학부모단체 지도를, 남녀공동참여학습과에서 가정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에서의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가정교육을 위한 팜플렛 제작 또는 부모수첩 등 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정도이며 학부모 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다(강인수, 2017: 15).

단위학교의 PTA는 임의단체로서 법적근거가 없다. 초등학교 PTA의 전국적인 조직인 (사)일본PTA전국협의회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국고등학교PTA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다. PTA는 부모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 모두가 가입할 수 있다. 개인 의사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지만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급식비, 교재비 등과 함께 납입고지서를 일괄 발부하고 있다. 회비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립학교는 지역별로 초, 중, 고 공통으로 월300엔(4,000원 정도)이다(강인수, 2017: 16). 이 회비의 용도는 바자회 기금, 학부모회 운영 경비, 학교의 교육활동 경비로 사용한다(강인수, 2017: 17).

2)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

취학전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양육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지역양육지원센터 사업은 1989년 ‘보육소지역활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이하정, 2010: 377). 1993년에 ‘보육소지역자녀양육지원모델사업’, 1995년에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오늘까지 추진되고 있다(최영신·김만호, 2006: 33; 이윤진·조혜주, 2014: 68 재인용). “2004년의 ‘차세대육성지원대책’에서는 모든 가정이 어느 자녀양육지원센터든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걸어가서 이용할 수 있고, 가볍게 상담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중학교 구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최영신·김만호, 2006: 34). 센터는 1995년에는 236개소였으나 1999년에는 997개소, 2004년에는 2,783개소, 2009년까지 4,4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였다(김영명, 2006: 289-286).

가) 목적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는 지역 전체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기 위해 설립되었다(최순자, 2008: 81).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 자녀양육을 위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보건시설과 연계를 해서 자녀양육상담, 자녀양육지원 모임 조직, 강연회, 프로그램 참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이운진·조혜주, 2014: 70). 한마디로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는 한 가정의 양육지원을 위해 지역 내 인적, 물적 인프라를 네트워킹하는 거점 기능을 하는 센터라 하겠다. 다음의 우에노다이지역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통해서도 센터의 설립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I-4-1〉 후지미노시 자녀양육지원센터 설립 목적

이념: 육아와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양육하는 지역사회 구축

1. 자녀의 '생명'과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는 의욕과 힘을 보장하는 인권'을 지킨다.
2. 또래 부모들과 연계한 '육아·부모됨'과 육아의 가치를 공유한다.
3. 지역 내 육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써 양육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자료: 上野台地域子育て支援センター・霞ヶ丘地域子育て支援センター(2013). 平成25年度 ふじみ野市立地域子育て支援センター事業概要. p.1(이운진·조혜주, 2014: 71 재인용).

나)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의 실시주체는 지자체인 시정촌(市町村)이다. 단,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육소 운영자 등의 영유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의료시설을 경영하는 자,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최순자, 2008: 81).

시정촌의 장이 사업을 실시하는 보육소를 지정한다. 보육소 외에 모자생활 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시설에는 지원활동을 기획, 조정, 실행하는 전문 지역육아지도자 및 보조업무 담당자를 배치한다(최순자, 2008: 81).

다) 주요 사업내용

①육아불안 등에 대한 상담 지도, ②자녀양육 모임 및 자녀양육 봉사활동의 육성 및 지원, ③지역의 수요에 맞는 적극적인 보육서비스 실시 및 보급 촉진, ④베이비시터 등 지역의 보육 자원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⑤가정 내 보육에 대한 상담과 지도, 정보제공, 연수 등을 통한 가정보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김영명, 2006: 289).

열거한 사업 중 3가지 사업(소규모형 지정시설은 2가지 선택)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지역이나 보육소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난감이나 도서대여, 놀이방 운영, 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김영명, 2006: 289).

라. 소결

미국은 매우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수요자 즉, 부모가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서 듣는 수요자 중심의 부모교육 체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방국가인 만큼, 표준화된 프로그램보다는 각 주의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민자들이 많은 국경지역에는 다양한 언어와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고, 실리콘벨리가 포함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장과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었다(NPEN, www.npen.org, 검색일: 2017년 5월 29일).

한편, 싱가포르의 ECDA 기관에서 4가지 언어(영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언어들에 맞춰서 부모교육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서 정부 중심의 부모교육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중심 교육의 단점 중 하나가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인데, 이러한 단점을 부모들의 언어에 맞게 제공해주는 것으로 인하여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https://www.moe.gov.sg>, 검색일: 2017년 5월 29일).

미국과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에서 언어교육이 중요하다. 공통언어인 영어뿐 아니라, 모국어로 제작한 책자, 팜플렛을 통해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육아 관련된 정부 정책, 기관 선정 방법, 기관 운영, 교육·보육 내용 등등을 부모가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일본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는 우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구임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인적, 물적 인프라를 연계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3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지자체, 유치원,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등에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중심의 하향식 부모교육이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나라들 모두 영유아기 교육·보육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교육의 참여권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

학교 이상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에 학부모 참여를 명시하여 연방, 주, 지역교육청, 학교에서의 학부모 참여 지원 관련 소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회인 PTA(Parent Teacher Association), PTO(Parent Teacher Organization), PTSA(Parent Teacher Student Association)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강인수 외, 2017: 13-14).

일본은 2004년 6월에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공립학교 운영에 참가하도록 하는 ‘학교운영협의회 제도(Community School)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2004년에 법제도화하기 이전부터 단위학교 수준에서 PTA가 자율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 주도의 학령기 학부모 정책은 없다(강인수 외, 2017: 15).

법적,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영유아기 부모교육 지원이 이들 국가에 비해 뒤쳐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유관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부모의 자발적 참여 정도이다. 우리의 경우, “밑에서부터”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부모교육 문화보다는 “정부 주도”로 부모교육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해도 무방하다. 물론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부 주도”의 부모교육 정책은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서 수요자가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수요자의 욕구와 괴리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들의 참여한 저조한 이유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Ⅲ.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실태: 가구조사

이 장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 유아교육진흥원(교육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여성가족부)를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 중, 강의식 부모교육, 상담프로그램,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응답자 및 자녀 특성

가.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는 총 757명이다. 경인권, 전라권, 서울 순으로 많이 표집되었으며, 지역규모로는 중소도시(51.9%), 대도시(42.0%), 읍면(6.1%)으로 약 9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 미만과 400~500만원 미만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87.6%가 어머니로 나타나, 어머니 변인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모학력은 4년제 대졸이 약 52%로 가장 많았고, 모 취업여부는 비취업모 50.6%, 취업모 49.4%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Ⅲ-1-1〉 응답자 특성: 부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전체		100.0(757)		전체		100.0(757)	
거주 권역				지역규모			
서울	18.9(143)			대도시	42.0(318)		
경인권	27.2(206)			중소도시	51.9(393)		
충청권	8.3(63)			읍면	6.1(46)		
전라권	20.3(154)			모 학력			
경상권	15.7(119)			고졸 이하	8.1(61)		
강원·제주권	9.5(72)			전문 대졸	27.3(207)		
월평균 가구소득				4년제 대졸	51.8(392)		
250만원 미만	11.2(85)			대학원 이상	12.8(97)		
250만원~300만원미만	15.2(115)			모 취업여부			

(표 III-1-1 계속)

구분	비율	구분	비율
300만원~400만원미만	25.5(193)	취업모	49.4(374)
400만원~500만원미만	23.2(176)	비취업모	50.6(383)
500만원~700만원미만	16.1(122)	응답자	
700만원 이상	8.7(66)	아버지	12.4(97)
		어머니	87.6(663)

나. 자녀 특성

응답자의 영유아 자녀의 특성은 <표 III-1-2> 와 같다. 여아가 51.4%로 남아보다 조금 더 많고, 연령은 만 5세 19.4%, 만 4세 17.6%, 만 2세 17.3% 순으로 평균 3.57세로 집계되었다. 영아보다는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정부지원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수는 평균 1.72명으로 해당 자녀는 막내 자녀(60.4%) 즉, 둘째가 가장 많았다(48.3%). 대부분(80.4%) 기관을 다니고 있으며, 어린이집(약 50%)과 유치원(약 30%)을 주로 다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2> 응답자의 자녀특성

구분	비율	구분	비율	평균
전체	100.0(757)	전체	100.0(757)	(표준편차)
성별		연령		
남자	48.6(368)	만0세	2.2	
여자	51.4(389)	만1세	11.2	
형제관계		만2세	17.3	
첫째자녀	36.3	만3세	16.9	3.57세
중간자녀	3.3	만4세	17.6	(1.70)
막내자녀	60.4	만5세	19.4	
기관이용여부		만6세	14.5	
이용	80.4(609)	만7세	0.8	
비이용	19.6(148)	자녀수		
이용기관종류		1명	41.0	
유치원	30.1(228)	2명	48.3	1.72명
어린이집	49.5(375)	3명	9.0	(0.71)
기타	0.8(6)	4명	1.3	
비이용	19.6(148)	5명	0.4	

주: 1)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큰 아이 기준으로 응답함.

2) 이용기관종류에서 '기타'는 놀이학교, 영어학원 등임.

2. 정부지원기관 이용 현황

응답자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겠다.

가. 이용시기·이용경로

해당 기관을 이용하게 된 기간은 평균 2.48년으로 나타났다. 즉, 약 2년 5개월 가량 이용했다는 것으로 장기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정부지원기관을 꾸준히 이용한 고객이라 하겠다.

거주권역을 보면, 서울의 이용기간이 2.68년으로 가장 길고, 강원·제주권이 2.26년으로 가장 짧았다. 지역규모는 대도시와 읍면의 이용기간은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중소도시가 2.39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모 취업여부에서는 취업모의 이용기간이 2.54년으로 비취업모 2.42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인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2-1〉 센터(기관) 이용 기간

구분	1년	12년	23년	34년	45년	56년	67년	평균	계	t/F
	만	만	만	만	만	만	만	(표준편차)	(사례수)	
전체	13.6	51.8	19.0	9.4	2.8	1.8	1.6	2.48(1.19)	100.0(757)	
거주권역										
서울	2.8	55.2	25.2	10.5	2.1	2.8	1.4	2.68(1.11)	100.0(143)	
경인권	14.6	51.9	16.0	10.7	4.9	1.0	1.0	2.46(1.17)	100.0(206)	
충청권	14.3	47.6	25.4	9.5	-	1.6	1.6	2.44(1.12)	100.0(63)	1.48
전라권	16.2	50.0	20.8	9.1	0.6	1.3	1.9	2.40(1.16)	100.0(154)	
경상권	16.8	51.3	13.4	8.4	4.2	3.4	2.5	2.52(1.39)	100.0(119)	
강원·제주권	20.8	52.8	15.3	5.6	2.8	1.4	1.4	2.26(1.16)	100.0(72)	
지역규모										
대도시	6.0	58.5	19.2	9.7	2.8	2.5	1.3	2.58(1.13)	100.0(318)	
중소도시	19.8	47.1	18.1	9.2	2.8	1.3	1.8	2.39(1.22)	100.0(393)	2.29
읍면	13.0	45.7	26.1	8.7	2.2	2.2	2.2	2.57(1.24)	100.0(46)	
모 취업여부										
취업모	11.0	53.7	19.3	9.1	2.9	1.3	2.7	2.54(1.23)	100.0(374)	2.00
비취업모	16.2	49.9	18.8	9.7	2.6	2.3	0.5	2.42(1.14)	100.0(383)	

해당 기관을 이용하게 된 경로로는 “지인 소개로”가 3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터넷 검색”, “집근처에 있어서 오다가다” 순으로 나타났다(“기타” 제외). 변인별로 보면, 대도시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경우가 27.4%, 해당 기관이 “복합시설에 있어서(예: 사회복지회관 또는 도서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같이 있는 경우) 다른 일로 왔다가” 알게 된 경우도 10.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은 “지인소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과 경인권은 “인터넷 검색”이, 경상권, 강원·제주권은 “지인소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모 학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검색”이 낮을수록 “지인소개” 비율이 높았다. 취업모는 “인터넷 검색”이, 비취업모는 “지인소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타의견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소개 및 안내로 응답한 비율이 19.8% 중 12.9%로 제일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지역 인터넷 카페(맘카페), 어린이집/유치원 강연 행사 순으로 응답이 조사되었다.

〈표 III-2-2〉 센터(기관) 이용 경로

								단위: %(명)
구분	지인 소개로	인터넷 검색	집근처	다른 일로 왔다가	지역 신문	기타	계 (사례수)	χ^2 (df)
전체	34.1	22.6	14.5	6.9	2.1	19.8	100.0(757)	
지역규모								
대도시	31.4	27.4	12.9	10.1	2.8	15.4	100.0(318)	25.42(10)**
중소도시	35.6	19.3	16.3	4.6	1.3	22.9	100.0(393)	
읍면	39.1	17.4	10.9	4.3	4.3	23.9	100.0(46)	
거주권역								
서울	24.5	27.3	12.6	14.0	4.2	17.5	100.0(143)	64.16(25)***
경인권	32.0	30.6	10.7	6.8	1.0	18.9	100.0(206)	
충청권	28.6	14.3	20.6	3.2	4.8	28.6	100.0(63)	
전라권	35.7	14.9	20.1	4.5	1.3	23.4	100.0(154)	
경상권 강원·제주권	42.0 47.2	18.5 20.8	18.5 5.6	4.2 5.6	1.7 1.4	15.1 19.4	100.0(119) 100.0(72)	
모 학력								
고졸 이하	41.0	11.5	13.1	4.9	-	29.5	100.0(61)	23.07(15)
전문(2~3년) 대졸	39.1	18.4	13.0	8.2	1.9	19.3	100.0(207)	
4년제 대졸	30.1	25.8	16.3	6.1	3.1	18.6	100.0(392)	
대학원 이상	35.1	25.8	11.3	8.2	-	19.6	100.0(97)	
모 취업여부								
취업모	30.7	25.9	13.9	6.7	2.7	20.1	100.0(374)	7.43(5)
비취업모	37.3	19.3	15.1	7.0	1.6	19.6	100.0(383)	

** $p < .01$, *** $p < .001$

나. 방문횟수·방문시기·방문목적

설문조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달 동안 해당 기관(센터)을 방문한 횟수를 알아본 결과, 주 1회 방문이 71.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 5회 이상 매일 방문한 경우는 5.0%에 그쳤다. 지역규모와 모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주 1회 방문이 많았다. 다만, 거주권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인권, 전라권, 경상권 등에서 주 2회 방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지난 한달 동안 센터(기관) 방문 횟수

단위: %(명)

구분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이상	계 (사례수)	χ^2 (df)
전체	71.5	15.9	4.4	3.3	5.0	100.0(757)	
지역규모							
대도시	72.3	15.4	4.7	3.8	3.8	100.0(318)	6.04(8)
중소도시	70.0	16.0	4.3	3.3	6.4	100.0(393)	
읍면	78.3	17.4	2.2	-	2.2	100.0(46)	
거주권역							
서울	74.8	14.0	4.2	4.2	2.8	100.0(143)	44.50(20)**
경인권	60.2	19.4	7.8	6.8	5.8	100.0(206)	
충청권	85.7	7.9	-	1.6	4.8	100.0(63)	
전라권	71.4	19.5	3.9	0.6	4.5	100.0(154)	
경상권	70.6	16.0	4.2	2.5	6.7	100.0(119)	
강원·제주권	86.1	8.3	-	-	5.6	100.0(72)	
모 취업여부							
취업모	72.7	14.7	5.3	3.2	4.0	100.0(374)	3.95(4)
비취업모	70.2	17.0	3.4	3.4	6.0	100.0(383)	

** $p < .01$

해당 기관을 주로 언제 방문하는 지를 알아본 결과, “주로 주중”에 방문하는 경우가 61.8%, “주로 주말”에 방문하는 경우가 22.7%로 나타났다. 주중 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주로 주중”이용이 많았으나, 읍면은 “주로 주말”이 54.3%로 “주로 주중”보다 주말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제주권은 “주로 주말” 이용이 “주로 주중” 이용보다 많았고, 서울과 경인권, 경상권이 “주로 주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충청권, 전라권이 “주로 주말”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보다 “주로 주말”이용이 2배 가량 많았으나, 절반가량이 “주

로 주중”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이용일 수도 있으나, 아버지(남편) 또는 조부모의 이용일 수도 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는 경우는 “주로 주중”이용이 대부분이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주말”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4〉 센터(기관) 방문 시기

단위: %(명)

구분	주로 주중	주로 주말	주중, 주말 상관없이 방문	계 (사례수)	$\chi^2 (df)$
전체	61.8	22.7	15.5	100.0(757)	
지역규모					
대도시	59.7	20.8	19.5	100.0(318)	33.80(4)***
중소도시	66.2	20.6	13.2	100.0(393)	
읍면	39.1	54.3	6.5	100.0(46)	
거주권역					
서울	74.1	7.7	18.2	100.0(143)	106.48(10)***
경인권	68.9	13.1	18.0	100.0(206)	
충청권	47.6	42.9	9.5	100.0(63)	
전라권	53.2	32.5	14.3	100.0(154)	
경상권	68.9	13.4	17.6	100.0(119)	
강원·제주권	36.1	56.9	6.9	100.0(72)	
모 취업여부					
취업모	52.1	29.9	17.9	100.0(374)	31.09(2)***
비취업모	71.3	15.7	13.1	100.0(383)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59.8	25.1	15.1	100.0(609)	10.28(2)**
비이용	70.3	12.8	16.9	100.0(148)	

주: 자녀 기관에서 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는 놀이학교, 영어학원 등을 의미함.

** $p < .01$, *** $p < .001$

해당 기관(센터)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76.1%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를 꼽았다.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모로 국한한 본 설문조사의 부모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장난감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 방문했다는 응답이 61.3%로, “부모교육 이용” 13.5%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왔다(이윤진, 조혜주, 2014: 91). 읍면은 “자녀가 좋아해서”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인권, 충청권, 경상권 및 4년제대졸 이상 모학력에서 “장난감/도서 대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통계

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센터(기관) 방문 목적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 이용	장난감/ 도서대여	자녀가 좋아해서	또래 부모들과의 만남	기타	계 (사례수)	$\chi^2(df)$
전체	76.1	10.6	7.4	2.0	4.0	100.0(757)	
지역규모							
대도시	76.1	15.1	3.8	1.9	3.1	100.0(318)	30.07(8)***
중소도시	75.1	8.1	9.4	2.3	5.1	100.0(393)	
읍면	84.8	-	15.2	-	-	100.0(46)	
거주권역							
서울	80.4	9.8	3.5	2.8	3.5	100.0(143)	48.38(20)***
경인권	75.7	13.1	7.8	1.5	1.9	100.0(206)	
충청권	68.3	19.0	6.3	4.8	1.6	100.0(63)	
전라권	70.1	7.8	12.3	1.3	8.4	100.0(154)	
경상권	76.5	12.6	3.4	1.7	5.9	100.0(119)	
강원·제주권	87.5	-	11.1	1.4	-	100.0(72)	
모 학력							
고졸이하	83.6	6.6	6.6	1.6	1.6	100.0(61)	7.16(12)
전문대졸	75.4	8.7	9.2	2.9	3.9	100.0(207)	
4년제대졸	75.5	11.5	6.9	1.5	4.6	100.0(392)	
대학원이상	75.3	13.4	6.2	2.1	3.1	100.0(97)	
모 취업여부							
취업모	76.5	10.7	8.3	2.1	2.4	100.0(374)	5.431(4)
비취업모	75.7	10.4	6.5	1.8	5.5	100.0(383)	

*** $p < .001$

3.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가. 이용시기·이용경로

해당 기관(센터)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수강하게 된 시점은 설문조사 기준으로 1년~2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2년~3년 미만 순이었다. 해당 자녀 평균 연령이 3.57세임 점을 감안하면, 자녀가 영아기때 부터 부모교육을 이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읍면 거주 부모가 2.37년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기가 가장 오래되었고(부모교육 이수 시기가 빠르고), 서울, 취업모가 상대적

으로 부모교육을 일찍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센터(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 기간

단위: %, 년, (명)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년 이상	평균 (표준편차)	계 (사례수)	t/F
전체	18.8	57.2	14.3	6.7	1.6	1.5	2.20(0.97)	100.0(757)	
지역규모									
대도시	11.3	66.7	11.9	7.9	0.9	1.3	2.24(0.88)	100.0(318)	
중소도시	25.2	50.9	14.5	5.6	2.0	1.8	2.14(1.04)	100.0(393)	1.823
읍면	15.2	45.7	28.3	8.7	2.2	-	2.37(0.93)	100.0(46)	
거주권역									
서울	8.4	63.6	16.1	10.5	0.7	0.7	2.34(0.86)	100.0(143)	
경인권	18.9	58.3	11.7	7.3	2.9	1.0	2.20(0.99)	100.0(206)	
충청권	19.0	54.0	20.6	6.3	-	-	2.14(0.80)	100.0(63)	0.936
전라권	18.8	56.5	17.5	5.2	-	1.9	2.17(0.93)	100.0(154)	
경상권	24.4	53.8	10.9	5.9	2.5	2.5	2.16(1.10)	100.0(119)	
강원·제주권	29.2	51.4	11.1	2.8	2.8	2.8	2.07(1.10)	100.0(72)	
모 취업여부									
취업모	15.2	59.9	14.7	6.4	1.9	1.9	2.25(0.98)	100.0(374)	2.703
비취업모	22.2	54.6	13.8	7.0	1.3	1.0	2.14(0.95)	100.0(383)	

주: 평균 수치가 클수록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것을 의미함.

해당 기관(센터)를 알게 된 경로로는 본인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35.4%,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추천으로” 30.6%, “지인의 소개로” 20.0% 순으로 나왔다. 부모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부모들은 스스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자각해서 자발적으로 기관(센터)를 방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도시와 읍면은 “스스로 필요해서”가 1순위로 나온 반면, 중소도시는 “자녀 이용 기관에서 추천”이 가장 많았다. 전라권 및 강원·제주권, 모 학력 고졸이라도 “자녀 이용 기관에서 추천”이 가장 많았다. 취업모는 “인터넷 검색”(12.0%)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서”가 51.4%로 가장 높았다.

〈표 III-3-2〉 센터(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로

단위: %(명)

구분	스스로 필요하다 고 느껴서	자녀 이용 기관에서 추천	지인 추천	인터넷 검색	배우자 추천	기 타	계 (사례수)	$\chi^2(df)$
전체	35.4	30.6	20.3	8.9	2.6	2.1	100.0(757)	

(표 III-3-2 계속)

구분	스스로 필요하다 고 느껴서	자녀 이용 기관에서 추천	지인 추천	인터넷 검색	배우자 추천	기 타	계 (사례수)	$\chi^2(df)$
지역규모								
대도시	40.9	20.8	21.7	8.8	4.4	3.5	100.0(318)	35.91(10)***
중소도시	31.3	38.7	18.8	8.7	1.3	1.3	100.0(393)	
읍면	32.6	30.4	23.9	10.9	2.2	-	100.0(46)	
거주권역								
서울	39.2	25.2	24.5	7.7	1.4	2.1	100.0(143)	109.84(25)***
경인권	44.2	18.9	17.0	9.7	5.8	4.4	100.0(206)	
충청권	42.9	34.9	14.3	6.3	1.6	-	100.0(63)	
전라권	20.8	53.9	16.2	7.1	1.3	0.6	100.0(154)	
경상권	43.7	24.4	23.5	5.0	1.7	1.7	100.0(119)	
강원·제주권	13.9	31.9	30.6	20.8	1.4	1.4	100.0(72)	
모 학력								
고졸이하	37.7	47.5	13.1	-	-	1.6	100.0(61)	19.04(15)
전문대졸	35.7	31.4	21.3	7.2	2.4	1.9	100.0(207)	
4년제대졸	34.9	28.1	21.2	10.7	2.8	2.3	100.0(392)	
대학원이상	35.1	28.9	19.6	10.3	4.1	2.1	100.0(97)	
모 취업여부								
취업모	33.4	28.6	21.7	12.0	3.2	1.1	100.0(374)	15.61(5)**
비취업모	37.3	32.6	19.1	5.7	2.1	3.1	100.0(383)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31.5	36.6	19.4	8.5	3.0	1.0	100.0(609)	71.14(5)***
비이용	51.4	6.1	24.3	10.1	1.4	6.8	100.0(148)	

** $p < .005$, *** $p < .001$

나. 이용목적

부모교육을 이수한 목적으로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49.8%로 가장 많았고, “양육정보를 얻으려고” 40.6%로 2순위를 차지했다. 대도시, 충청권은 “양육정보를 얻으려고”가 1순위로 나왔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녀를 위해 부모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면담조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도 지금 시대에 맞는 육아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모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저희(부부)들만 살다보니 아이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많더라구요.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은 달라서 부모님께 여쭙보기도 하지만, 이런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관심이 많아요.

〈표 III-3-3〉 센터(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 목적

단위 : %(명)

구분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자	양육정보 얻으려고	양육 스트레스 해소	자녀와 지내는 것이 심심해서	기타	계 (사례수)	χ^2 (df)
전체	49.8	40.6	6.2	2.8	0.7	100.0(757)	
지역규모							
대도시	44.3	44.7	6.3	4.1	0.6	100.0(318)	20.56(8)**
중소도시	52.9	38.9	6.4	1.0	0.8	100.0(393)	
읍면	60.9	26.1	4.3	8.7	-	100.0(46)	
거주권역							
서울	47.6	43.4	5.6	2.8	0.7	100.0(143)	33.08(20)*
경인권	45.1	41.7	9.2	2.9	1.0	100.0(206)	
충청권	42.9	49.2	1.6	6.3	-	100.0(63)	
전라권	55.2	38.3	3.9	1.9	0.6	100.0(154)	
경상권	44.5	41.2	10.1	3.4	0.8	100.0(119)	
강원·제주권	70.8	27.8	1.4	-	-	100.0(72)	
모 학력							
고졸이하	52.5	42.6	4.9	-	-	100.0(61)	8.98(3)*
전문대졸	44.4	44.4	9.2	1.4	0.5	100.0(207)	
4년제대졸	52.8	38.3	4.6	3.8	0.5	100.0(392)	
대학원이상	47.4	40.2	7.2	3.1	2.1	100.0(97)	
모 취업여부							
취업모	47.9	42.2	5.9	2.9	1.1	100.0(374)	3.15(4)
비취업모	51.7	38.9	6.5	2.6	0.3	100.0(383)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48.1	42.9	6.6	2.0	0.5	100.0(609)	15.09(4)**
비이용	56.8	31.1	4.7	6.1	1.4	100.0(148)	

* $p < .05$, ** $p < .01$

다. 신청방법·만족도 등

1) 이용개수 및 신청방법

해당 기관(센터)에서 이수했거나 이수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수는 1개라는 응답이 82.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의 응답 중에서 2개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부모들은 부모교육을 추가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의 프로그램만 듣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 개수

단위 : %(명)

구분	이용 개수					계(사례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전체	82.2	11.9	3.4	1.2	1.3	100.0(757)

주: 최대 5개까지 응답받음.

757명 대상으로 이수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수는 총 966개가 나왔다. 이들 프로그램을 신청한 방법과 교육방법을 알아본 결과, 오프라인 신청(65.1%)이 온라인(34.9%) 보다 많았다. 교육방법은 소형강의식이 62.3%로 가장 많았고, 대형강의, 실습, 상담 순이었다. 소형과 대형을 합쳐서 강의식 수업이 약 86%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부모교육은 강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습은 자녀와 함께 하는 경우 주로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으로 짐작되며 상담과 온라인은 극히 소수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5〉 부모교육 프로그램 신청방법·교육방법

단위 : %(명)

구분	신청방법		교육방식(복수응답)				
	오프라인	온라인	대형강의 (20명 이상)	소형강의 (20명 미만)	실습	상담	온라인
전체	65.1	34.9	25.2	62.3	14.5	2.2	0.1
계(사례수)	100.0(966)						

주: 전체 이용 프로그램 수, n=966

966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신청방법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읍면은 오프라인 위주로 실시되는 반면, 대도시는 온라인 비율이 41.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라권, 강원·제주권, 경상권은 온라인 방식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서울, 경인권, 충청권은 온라인 방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 학력 고졸 이하에서 오프라인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모 학력별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으로 부모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서 부모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녀를 동반해서 해당 기관(센터)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온라인 수강을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I-3-6〉 부모교육 프로그램 신청방법(변인별)

구분	오프라인	온라인	계(사례수)	단위: %(명) $\chi^2(df)$
전체	65.1	34.9	100.0(966)	
지역규모				
대도시	58.5	41.5	100.0(395)	14.15(2)**
중소도시	70.5	29.5	100.0(505)	
읍면	63.6	36.4	100.0(66)	
거주권역				
서울	56.8	43.2	100.0(185)	77.59(5)***
경인권	55.4	44.6	100.0(289)	
충청권	55.6	44.4	100.0(72)	
전라권	90.8	9.2	100.0(184)	
경상권	62.3	37.7	100.0(154)	
강원·제주권	74.4	25.6	100.0(82)	
모 학력				
고졸이하	73.2	26.8	100.0(71)	3.80(3)
전문대졸	64.8	35.2	100.0(270)	
4년제대졸	63.1	36.9	100.0(499)	
대학원이상	69.0	31.0	100.0(126)	
모 취업여부				
취업모	65.5	34.5	100.0(481)	0.59(1)
비취업모	64.7	35.3	100.0(485)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68.3	31.7	100.0(777)	18.19(1)***
비이용	51.9	48.1	100.0(189)	

주: 전체 이용 프로그램 수, n=966

** $p < .01$, *** $p < .001$

966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방법을 변인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소형강의, 대형강의, 실습, 상담 순으로 전체와 동일한 경향을 보인 반면, 읍면은 대형강의보다는 실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비이용보다 대형강의로 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많았다. 비이용은 소형강의, 실습, 그리고 상담으로 부모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높았다. 자녀가 기관을 다니지 않는 경우, 자녀를 집에서 돌보거나 자녀와 함께 부모교육을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형강의보다는 소형강의, 실습, 온라인 등의 교육방법으로 이수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교육방법은 대도시, 서울, 4년대졸, 취업모, 자녀 기관 이용에서 나왔다.

〈표 III-3-7〉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방법(변인별)

단위: %(명)

구분	대형강의	소형강의	실습	상담	온라인	계 (사례수)
전체	25.2	62.3	14.5	2.2	0.1	100.0(966)
지역규모						
대도시	25.3	62.8	10.9	2.5	0.3	100.0(395)
중소도시	27.5	61.6	15.6	1.8	-	100.0(505)
읍면	6.1	65.2	27.3	3.0	-	100.0(66)
거주권역						
서울	16.8	71.4	13.0	0.5	0.5	100.0(185)
경인권	22.1	66.1	12.5	3.1	-	100.0(289)
충청권	40.3	37.5	22.2	-	-	100.0(72)
전라권	27.2	62.0	12.0	1.6	-	100.0(184)
경상권	17.5	71.4	7.1	5.2	-	100.0(154)
강원·제주권	51.2	34.1	37.8	-	-	100.0(82)
모 학력						
고졸이하	33.8	53.5	12.7	-	-	100.0(71)
전문대졸	25.9	61.9	13.3	2.2	-	100.0(270)
4년제대졸	24.8	63.1	15.0	2.2	0.2	100.0(499)
대학원이상	19.8	65.1	15.9	3.2	-	100.0(126)
모 취업여부						
취업모	30.8	57.2	12.7	2.9	0.2	100.0(481)
비취업모	19.6	67.4	16.3	1.4	-	100.0(485)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28.3	60.4	14.4	1.7	0.1	100.0(777)
비이용	12.2	70.4	14.8	4.2	-	100.0(189)

주: 전체 이용 프로그램 수, n=966이며 복수응답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모 면담조사를 통해 유치원에서 선착순으로 부모교육 참여 인원을 제한한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부모교육 참여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제한했었어요 유치원에서. 50명 선착순으로... 저는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온 건 2-30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근데 올해는 선착순으로도 안 하고, 워낙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랬는지 그냥 다 신청서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도 올해 갔을 때도 2-30명 정도 밖에 안 왔어요. 5-7세 더 합쳐서요.

신청방법과 강의방법이 다양해지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만족도 및 도움정도

966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자녀양육의 도움정도는 대체로 높게 나왔다. 4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교육방법은 실습으로 3.93점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대형강의, 소형강의, 상담 순으로 집계되었다. 자녀양육의 도움 정도도 만족도와 동일하게 실습(3.84점), 대형강의(3.80점), 소형강의(3.72점), 상담(3.67점) 순으로 나왔다(사례수가 적은 온라인 제외).

가장 많이 실시된 소형강의의 만족도와 도움정도는 3순위로 밀렸으며 직접 실습하는 교육방법의 만족도와 도움정도 모두 높게 나왔다.

〈표 III-3-8〉 부모교육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도움정도(전체)

단위: 점(명)

구분	만족도					도움정도				
	대형강의	소형강의	실습	상담	온라인	대형강의	소형강의	실습	상담	온라인
전체 (사례수)	3.81	3.77	3.93	3.67	4.00	3.80	3.72	3.84	3.67	4.00
	(966)									

변인별에 따른 부모교육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경향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은 사례수가 적어서 제외하고 보면, 대도시가 상담의 만족도와 도움정도가 3.90점으로 높게 나왔다.

〈표 III-3-9〉 부모교육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변인별)

단위: 점(명)

구분	대형강의	소형강의	실습	상담	온라인	(사례수)
전체	3.81	3.77	3.93	3.67	4.00	(966)
지역규모						
대도시	3.77	3.80	3.93	3.90	4.00	(395)
중소도시	3.85	3.75	3.96	3.56	-	(505)
읍면	3.50	3.81	3.78	3.00	-	(66)
거주권역						
서울	3.87	3.74	3.88	3.00	4.00	(185)
경인권	3.69	3.82	3.97	3.78	-	(289)
충청권	3.69	3.78	3.75	-	-	(72)
전라권	3.80	3.72	3.95	4.00	-	(184)
경상권	3.93	3.80	4.00	3.50	-	(154)
강원·제주권	3.98	3.75	3.97	-	-	(82)

(표 III-3-9 계속)

구분	대형강의	소형강의	실습	상담	온라인	(사례수)
모 학력						
고졸이하	3.79	3.79	4.00	-	-	(71)
전문대졸	3.90	3.77	3.86	3.67	-	(270)
4년제대졸	3.77	3.79	3.95	3.73	4.00	(499)
대학원 이상	3.76	3.71	3.95	3.50	-	(126)
모 취업여부						
취업모	3.84	3.77	3.93	3.64	4.00	(481)
비취업모	3.76	3.78	3.92	3.71	-	(485)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3.81	3.76	3.91	3.54	4.00	(777)
비이용	3.83	3.83	4.00	3.88	-	(189)

주: 전체 이용 프로그램 수, n=966

〈표 III-3-10〉 부모교육 교육방법에 대한 도움정도(변인별)

구분	대형강의	소형강의	실습	상담	온라인	단위: 점(명)
						(사례수)
전체	3.80	3.72	3.84	3.67	4.00	(966)
지역규모						
대도시	3.73	3.69	3.74	3.90	4.00	(395)
중소도시	3.86	3.73	3.91	3.56	-	(505)
읍면	3.50	3.72	3.72	3.00	-	(66)
거주권역						
서울	3.81	3.64	3.71	3.00	4.00	(185)
경인권	3.69	3.74	3.89	3.78	-	(289)
충청권	3.69	3.89	3.75	-	-	(72)
전라권	3.82	3.70	3.73	4.00	-	(184)
경상권	3.89	3.73	3.91	3.50	-	(154)
강원·제주권	3.95	3.71	3.97	-	-	(82)
모 학력						
고졸이하	3.79	3.71	3.78	-	-	(71)
전문대졸	3.90	3.73	3.78	3.67	-	(270)
4년제대졸	3.75	3.73	3.87	3.73	4.00	(499)
대학원이상	3.76	3.62	3.85	3.50	-	(126)
모 취업여부						
취업모	3.82	3.70	3.85	3.64	4.00	(481)
비취업모	3.76	3.73	3.82	3.71	-	(485)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3.80	3.71	3.82	3.54	4.00	(777)
비이용	3.83	3.74	3.89	3.88	-	(189)

주: 전체 이용 프로그램 수, n=966

라. 향후 이용 계획

앞으로도 부모교육을 계속해서 수강할 계획인지를 알아본 결과, 여건이 되면 “가급적 수강할 계획이다”가 7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드시 수강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부모는 28.3%이고, “부모교육이 아닌 다른 강좌를 이수하겠다” 또는 “부모교육뿐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도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다”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향후 부모교육 이수에 대해 대부분의 부모는 가급적이면 수강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드시 이수하겠다는 적극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인 변인은 중소 및 읍면, 경인권과 강원·제주권, 고졸 이하, 취업모, 자녀 기관 비이용으로 나타났다.

〈표 III-3-11〉 향후 기관(센터)의 부모교육 이용 계획

단위: %(명)

구분	부모교육 반드시 수강	부모교육 가급적 수강	부모교육 외 다른 강좌 수강	이용하지 않을 계획	기타	계 (사례수)	χ^2 (df)
전체	28.3	70.4	0.7	0.3	0.4	100.0(757)	
지역규모							
대도시	27.4	71.1	1.3	-	0.3	100.0(318)	5.44(8)
중소도시	29.0	69.7	0.3	0.5	0.5	100.0(393)	
읍면	28.3	71.7	-	-	-	100.0(46)	
거주권역							
서울	27.3	69.9	2.8	-	-	100.0(143)	43.61(20)**
경인권	37.4	61.7	-	0.5	0.5	100.0(206)	
충청권	20.6	77.8	-	-	1.6	100.0(63)	
전라권	16.2	82.5	0.6	0.6	-	100.0(154)	
경상권	27.7	71.4	-	-	0.8	100.0(119)	
강원·제주권	37.5	62.5	-	-	-	100.0(72)	
모 학력							
고졸이하	29.5	70.5	-	-	-	100.0(61)	16.77(12)
전문대졸	28.0	70.0	1.0	0.5	0.5	100.0(207)	
4년제대졸	28.1	71.4	-	-	0.5	100.0(392)	
대학원이상	28.9	67.0	3.1	1.0	-	100.0(97)	
모 취업여부							
취업모	28.6	70.1	1.1	0.3	-	100.0(374)	4.85(4)
비취업모	27.9	70.8	0.3	0.3	0.8	100.0(383)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25.5	73.2	0.5	0.3	0.5	100.0(609)	14.83(4)**
비이용	39.9	58.8	1.4	-	-	100.0(148)	

** $p < .01$

부모교육을 수강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는 0.3%(7명)에게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수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2명, “내용이 생각보다 별로여서” “강사가 별로여서” “강의방식이 지루해서” “필요한 강좌는 웬만큼 수강해서” “자녀와 함께 수강해서 집중할 수 없어서”가 각 1명씩 응답했다.

4. 자녀 재원 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현황

가. 부모교육 참여 정도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757명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아학원을 이용하는 부모 609명 대상으로 이들 기관에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를 분석한 결과, 참여한다(최대한 참여+가급적 참여)는 응답이 76.7%로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 모 학력, 모 취업여부, 자녀 이용 기관종류 등 변인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도시, 4년제 대졸 이상, 비취업모,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보다 높았다.

〈표 III-4-1〉 자녀 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정도

단위: %(명)

구분	최대한 참여	가급적 참여	경우에 따라 참여 또는 비참여	거의 비참여	참여한 적 없음	공지 받은 적 없음	계 (사례수)	$\chi^2 (df)$
전체	39.4	37.3	11.8	4.6	3.0	3.9	100.0(609)	
지역규모								
대도시	38.8	36.2	11.2	3.9	4.7	5.2	100.0(232)	
중소도시	40.8	37.2	12.2	5.1	1.8	3.0	100.0(336)	7.77(10)
읍면	31.7	43.9	12.2	4.9	2.4	4.9	100.0(41)	
모 학력								
고졸이하	42.6	33.3	11.1	7.4	-	5.6	100.0(54)	
전문대졸	40.1	36.7	14.7	4.0	4.0	0.6	100.0(177)	
4년제 대졸	41.3	35.0	10.6	5.0	3.3	5.0	100.0(303)	21.36(15)
대학원 이상	28.0	50.7	10.7	2.7	1.3	6.7	100.0(75)	
모 취업여부								
취업모	34.3	40.0	14.0	5.1	3.2	3.5	100.0(315)	
비취업모	44.9	34.4	9.5	4.1	2.7	4.4	100.0(294)	8.96(5)
자녀 이용 기관종류								
유치원	42.5	34.2	13.2	4.8	2.6	2.6	100.0(228)	5.331(10)

(표 III-4-1 계속)

구분	최대한 참여	가급적 참여	경우에 따라 참여 또는 비참여	거의 비참여	참여한 적 없음	공지 받은 적 없음	계 (사례수)	$\chi^2(df)$
어린이집	37.6	38.9	10.9	4.5	3.2	4.8	100.0(375)	
기타	33.3	50.0	16.7	-	-	-	100.0(6)	

주: 자녀 기관 이용 응답자 n=609의 응답결과임.

한편 면담조사를 통해서 나온 의견 중에는 기관에 입학조건으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조사되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모교육을 사실상 의무화하여 유치원 입학 전 필수교육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제도가 없어졌다고 한다. 아동수가 감소하고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학원과 같이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되면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큰 애 같은 경우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조건이었어요. 부모교육을 몇 회 받아야지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져서....그런데 둘째 입학할 때는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아마 다른 데 보낼 수 있는 기관이 많아져서 부모교육을 받으면서까지 꼭 이 유치원을 보낼 메리트는 없어져서 그런 것(부모교육 이수 제도 폐지) 같아요.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의 경우(539명), 95.2%(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가 만족한다고 응답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점 척도로 환산하면, 324점으로 집계되었다. 중소도시(3.29점), 모 학력 고졸이하(3.38점),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3.28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III-4-2〉 자녀 자원 기관의 참여한 부모교육 만족도

구분							단위: %(명)		t/F
	①	②	③	④	불만족	만족	평균 (표준편차)	계 (사례수)	
전체	0.9	3.9	65.3	29.9	4.8	95.2	3.24(0.56)	100.0(539)	
지역규모									
대도시	1.5	5.5	68.0	25.0	7.0	93.0	3.17(0.58)	100.0(200)	
중소도시	0.7	3.0	63.0	33.3	3.6	96.4	3.29(0.55)	100.0(303)	3.02
읍면	-	2.8	69.4	27.8	2.8	97.2	3.25(0.50)	100.0(36)	
모 학력									
고졸이하	-	2.1	57.4	40.4	2.1	97.9	3.38(0.53)	100.0(47)	1.96

(표 III-4-2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불만족	만족	평균 (표준편차)	계 (사례수)	t/F
전문대졸	1.2	1.9	66.0	30.9	3.1	96.9	3.27(0.55)	100.0(162)	1.96
4년제대졸	1.1	4.2	65.4	29.3	5.3	94.7	3.23(0.57)	100.0(263)	
대학원이상	-	9.0	68.7	22.4	9.0	91.0	3.13(0.55)	100.0(67)	
모 취업여부									0.09
취업모	0.7	4.0	65.1	30.2	4.7	95.3	3.25(0.56)	100.0(278)	
비취업모	1.1	3.8	65.5	29.5	5.0	95.0	3.23(0.57)	100.0(261)	
자녀 이용기관종류									0.93
유치원	0.5	2.0	66.3	31.2	2.4	97.6	3.28(0.52)	100.0(205)	
어린이집	1.2	5.2	64.3	29.3	6.4	93.6	3.22(0.59)	100.0(328)	
기타	-	-	83.3	16.7	-	100.0	3.17(0.41)	100.0(6)	

주: 1) 자녀 기관 부모교육 참여 응답자 n=539의 응답결과임

2)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한(안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63.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방문이 어색해서” “다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등은 소수 의견이었다. 대도시, 모학력 전문대졸, 취업모, 어린이 집에서 “시간이 없어서”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기관 방문이 어색해서” 등의 이유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비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기타의견으로는 구청(지자체)에서 하는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과 입학한지 얼마되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4-3〉 자녀 자원 기관의 부모교육 비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참여 시간이 없어서	기관 방문이 어색 해서	다른 자녀의 양육 문제로	다른 매체로 정보 얻을수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되서	기타	계 (사례수)	$\chi^2(df)$
전체	63.0	8.7	8.7	6.5	2.2	10.9	100.0(46)	
지역 규모								
대도시	70.0	5.0	5.0	10.0	-	10.0	100.0(20)	7.58(10)
중소도시	60.9	8.7	8.7	4.3	4.3	13.0	100.0(23)	
읍면	33.3	33.3	33.3	-	-	-	100.0(3)	

(표 III-4-3 계속)

구분	참여 시간이 없어서	기관 방문이 어색해서	다른 자녀의 양육 문제로	다른 매체로 정보 얻을수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되서	기타	계 (사례수)	χ^2 (df)
모 학력								
고졸이하	25.0	25.0	25.0	25.0	-	-	100.0(4)	15.02(15)
전문대졸	71.4	-	14.3	7.1	-	7.1	100.0(14)	
4년제대졸	64.0	12.0	-	4.0	4.0	16.0	100.0(25)	
대학원이상	66.7	-	33.3	-	-	-	100.0(3)	
모 취업여부								
취업모	76.9	11.5	7.7	3.8	-	-	100.0(26)	10.91(5)
비취업모	45.0	5.0	10.0	10.0	5.0	25.0	100.0(20)	
자녀 이용기관종류								
유치원	64.7	17.6	5.9	5.9	-	5.9	100.0(17)	10.19(6)
어린이집	62.1	3.4	10.3	6.9	3.4	13.8	100.0(29)	

주: 자녀 기관 부모교육 비참여 응답자 n=46의 응답결과임.

한편 면담조사에서 참석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참여시간이 안 되는 것 외에 자녀가 많은 경우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같은 단지에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엄마들이 저 포함해서 4~5명이 되는 데 저만 부모교육을 가요. 다른 엄마들은 안 가고. 1명은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가더라고요. 셋째가 있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다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녀를 데리고 부모교육을 참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형태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답이 “참여시간이 없어서”로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부모교육이 낮에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교육은 주로 오전타임 10~11시에 아이들은 수업에 들어가고 엄마들이랑은 마주치지 않는 시간에 운영되고, 저녁에 하는 경우는 못봤어요. 상반기에는 엄마 교육, 하반기에는 아빠교육을 실시하는데 시간을 오전타임으로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부모교육의 운영시간을 부모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및 참여 이유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인지 및 참여 현황을 알아보았다. “안다”(대략적 + 자세히) 51.4%, “모른다”(전혀 + 구체적) 48.6%로 집계되었다. 4점 척도 점수로 환산하면, 2.61점으로 집계되었다. 대도시의 부모가 2.56점으로 운영위원회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 4년대졸 이상이 잘 아는 경우가 많았고, 비취업모보다 취업모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잘 아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III-4-4〉 자녀 재원 기관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전혀 모름	구체적 으로 모름	대략적 으로 알	자세히 알	평균 (표준편차)	계 (사례수)	t/F
전체	12.3	36.3	29.7	21.7	2.61(0.96)	100.0(609)	
지역규모							
대도시	12.9	38.8	27.2	21.1	2.56(0.96)	100.0(232)	1.330
중소도시	13.1	34.5	30.7	21.7	2.61(0.97)	100.0(336)	
읍면	2.4	36.6	36.6	24.4	2.83(0.83)	100.0(41)	
모 학력							
고졸이하	7.4	50.0	22.2	20.4	2.56(0.90)	100.0(54)	0.469
전문대졸	15.8	35.6	26.6	22.0	2.55(1.01)	100.0(177)	
4년제대졸	11.9	34.3	32.0	21.8	2.64(0.95)	100.0(303)	
대학원이상	9.3	36.0	33.3	21.3	2.67(0.92)	100.0(75)	
모 취업여부							
취업모	11.7	31.1	32.7	24.4	2.70(0.97)	100.0(315)	5.904*
비취업모	12.9	41.8	26.5	18.7	2.51(0.94)	100.0(294)	
자녀이용기관종류							
유치원	11.0	38.6	30.3	20.2	2.60(0.93)	100.0(228)	0.067
어린이집	13.1	34.9	29.3	22.7	2.62(0.98)	100.0(375)	
기타	16.7	33.3	33.3	16.7	2.50(1.05)	100.0(6)	

주: 1)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응답자 n=609의 응답결과임

2)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임.

* $p < .05$

자녀가 다니고 있는 현 기관에서 운영위원회가 실제 운영되었는 지를 알아본 결과, “운영하고 있다”가 70.5% “운영하고 있지 않다” 5.7%로 나와,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도 23.3%로 적지 않은 수치가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대도시가 가장 많고, 중소도시, 소도시, 읍면 순으로 나왔다. 모 학력 전문대졸과 대학원 이상이 모르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취업모보다 비취업모가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의 경우 모르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읍면, 유치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부모 면담조사에도 운영위원회의 운영 여부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되는 것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지만, 유치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는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거기서 운영했었어요. 원래 해야 되는 횃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데는 국공립 성격을 띠는 데여서 지키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들한테 안내문에 명단도 주시고, 무슨 회의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를 안내문으로 다 주셨었는데, 이제 유치원으로 옮기고 나서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운영위원회를 하실 어머니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까지만 하고 그 뒤에는 전달된 게 없었어요.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모든 부모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4-5〉 자녀 재원 기관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운영 여부

구분	단위: %(명)				$\chi^2(df)$
	운영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사례수)	
전체	70.9	5.7	23.3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68.5	4.7	26.7	100.0(232)	5.64(4)
중소도시	71.1	6.8	22.0	100.0(336)	
읍면도시	82.9	2.4	14.6	100.0(41)	
모 학력					
고졸 이하	77.8	5.6	16.7	100.0(54)	4.30(6)
전문대졸	67.2	7.3	25.4	100.0(177)	
4년제대졸	71.6	5.6	22.8	100.0(303)	
대학원이상	72.0	2.7	25.3	100.0(75)	
모 취업여부					
취업모	74.3	3.5	22.2	100.0(315)	7.14(2)*
비취업모	67.3	8.2	24.5	100.0(294)	

(표 III-4-5 계속)

구분	운영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사례수)	$\chi^2(df)$
자녀 이용 기관종류					
유치원	72.4	6.1	21.5	100.0(228)	10.30(4)*
어린이집	70.7	5.1	24.3	100.0(375)	
기타	33.3	33.3	33.3	100.0(6)	

주: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응답자 n=609의 응답결과임

* $p < .05$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실제 활동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결과, “활동하지 않는다” 81.9% “활동하고 있다” 18.1%로 비참여 부모가 훨씬 더 많았다. 도시보다 읍면의 부모들이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모 학력에서는 고졸이하가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4년제 대졸이 가장 적었다.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활동하고 있다는 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 그러나 변인별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III-4-6〉 자녀 자원 기관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부모대표 위원활동 여부

단위: %(명)

구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계(사례수)	$\chi^2(df)$
전체	18.1	81.9	100.0(432)	
지역규모				
대도시	16.4	83.6	100.0(159)	0.56(2)
중소도시	18.8	81.2	100.0(239)	
읍면	20.6	79.4	100.0(34)	
모 학력				
고졸 이하	21.4	78.6	100.0(42)	0.49(3)
전문(2~3년) 대졸	18.5	81.5	100.0(119)	
4년제 대졸	17.1	82.9	100.0(217)	
대학원 이상	18.5	81.5	100.0(54)	
모 취업여부				
취업모	15.4	84.6	100.0(234)	2.46(1)
비취업모	21.2	78.8	100.0(198)	
자녀 이용 기관종류				
유치원	18.2	81.8	100.0(165)	1.40(2)
어린이집	17.7	82.3	100.0(265)	
기타	50.0	50.0	100.0(2)	

주: 자녀 기관에서 ‘운영위원회’ 운영함 응답자 n=432의 응답결과임.

현재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78명의 부모에게 참여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았다. “원장 및 교사 추천”이 36.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관 운영을 알고 싶어서” 32.1%, “내 아이의 기관에서 보내는 일상을 알고 있어서” 15.4%, “지인의 추천으로” 14.1% 순으로 나왔다. 주변의 추천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약 50% 가장 많았으나(원장 및 교사 추천 + 지인 추천), 기관운영을 알고 싶어서 또는 내 아이의 일상을 알고 싶어서 등 자발적인 이유로 참여한 경우도 약 48%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적지만, 활동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화하기에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부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대도시 거주 부모의 경우 “기관운영을 알고 싶어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42.3%로 1순위로 나왔다. 읍면 거주 부모는 “원장 및 교사 추천”과 “내 아이의 일상을 알고 싶어서”가 동률로 가장 많이 나왔다. 모 학력 고졸이하에서 “기관 운영을 알고 싶어서” 44.4%로 가장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원장 및 교사 추천으로”가 1순위로 가장 많이 나왔다. 모 취업여부, 자녀 이용 기관종류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의 차이는 없었다.

〈표 III-4-7〉 자녀 자원 기관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부모대표 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원장 및 교사 추천 으로	기관운영을 알고 싶어서	내 아이의 기관에서 일상을 알고 싶어서	지인의 추천으로	기타	계 (사례수)	χ^2 (df)
전체	35.9	32.1	15.4	14.1	2.6	100.0(78)	
지역규모							
대도시	30.8	42.3	15.4	7.7	3.8	100.0(26)	
중소도시	37.8	28.9	11.1	20.0	2.2	100.0(45)	9.20(8)
읍면	42.9	14.3	42.9	-	-	100.0(7)	
모 학력							
고졸이하	11.1	44.4	22.2	11.1	11.1	100.0(9)	
전문대졸	31.8	36.4	13.6	13.6	4.5	100.0(22)	
4년제 대졸	40.5	27.0	13.5	18.9	-	100.0(37)	10.01(12)
대학원 이상	50.0	30.0	20.0	-	-	100.0(10)	

(표 III-47 계속)

구분	원장 및 교사 추천 으로	기관운영을 알고 싶어서	내 아이의 기관에서 일상을 알고 싶어서	지인의 추천으로	기타	계 (사례수)	$\chi^2(df)$
모 취업여부							
취업모	36.1	30.6	19.4	11.1	2.8	100.0(36)	1.20(4)
비취업모	35.7	33.3	11.9	16.7	2.4	100.0(42)	
자녀 이용 기관종류							
유치원	33.3	26.7	13.3	23.3	3.3	100.0(30)	5.70(8)
어린이집	38.3	34.0	17.0	8.5	2.1	100.0(47)	
기타	-	100.0	-	-	-	100.0(1)	

주: 자녀 기관의 운영위원회 참여함 응답자 n=78의 응답결과임.

대부분의 부모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시간이 없어서”가 약 절반 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대표 타이틀이 부담스러워서” 24.6%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0.2%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9.6% 순으로 비참여 이유를 꼽았다. 1순위의 응답이 동일한 가운데, 대도시와 읍면이 “시간이 없어서”를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했으며 중소도시는 “부모대표 타이틀이 부담스러워서”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도시 부모의 경우 “참여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를 꼽은 경우가 12.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 학력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대학원 이상 모에서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비율이 약 1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취업모의 약 58%가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반면, 비취업모는 “시간이 없어서” 약 39%, “부모대표 타이틀이 부담스러워서” 31.4%로 두 번째 이유가 취업모보다 높게 나왔다. 자녀 이용 기관종류에 따는 차이는 크게 없으나, 유치원은 “참여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어린이집은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부모면담조사에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지만, 막상 시간이 생겼는데도 “부모대표” 또는 “극성엄마”의 타이틀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여를 하면 좋겠으나, 저는 부모 타이틀이 부담스러워서요. 대표라는 짐이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여태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생겼는데.. 그냥 좀.

약간 극성엄마 타이틀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나서서 원가를 하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연락을 돌려서 엄마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피곤한 것 같아서 지금은 규모가 너무 크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중형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이 커지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표 III-4-8〉 자녀 자원 기관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부모대표 위원활동 비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시간이 없어서	부모대표 타이틀이 부담스러워서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기타	계 (사례수)	$\chi^2(df)$
전체	49.2	24.6	10.2	9.6	6.5	100.0(354)	
지역규모							
대도시	50.4	21.1	9.8	12.0	6.8	100.0(133)	
중소도시	47.4	27.3	10.3	8.8	6.2	100.0(194)	3.77(8)
읍면	55.6	22.2	11.1	3.7	7.4	100.0(27)	
모 학력							
고졸이하	51.5	21.2	9.1	12.1	6.1	100.0(33)	
전문대졸	47.4	27.8	9.3	11.3	4.1	100.0(97)	7.16(12)
4년제대졸	49.4	25.6	9.4	8.9	6.7	100.0(180)	
대학원이상	50.0	15.9	15.9	6.8	11.4	100.0(44)	
모 취업여부							
취업모	57.6	19.2	10.1	8.1	5.1	100.0(198)	
비취업모	38.5	31.4	10.3	11.5	8.3	100.0(156)	14.32(4)**
자녀 이용 기관종류							
유치원	44.4	31.9	8.1	10.4	5.2	100.0(135)	
어린이집	51.8	20.2	11.5	9.2	7.3	100.0(218)	8.21(8)
기타	100.0	-	-	-	-	100.0(1)	

주: 자녀 기관 '운영위원회' 비활동 응답자 n=354의 응답결과임.

** $p < .01$,

5. 부모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

가. 자녀 자원 기관의 부모 참여 정도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의 약 80%가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유아학원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많은 영유아기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참여에 대한 의

견을 알아보았다. 부모참여는 부모가 교육·보육의 주체 일환으로써, 기관의 제 반 사항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에 비해 적극성과 자발성이 높은 활동이다. 이러한 부모참여에 대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의 76.6%가 “학부모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모교육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 부모님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소한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20.3%로 2순위를 차지해서 이를 합치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96.9%로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소도시, 모 학력 4년대졸, 비취업모, 자녀 기관 비이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 III-5-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 참여 의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사례수)	$\chi^2(df)$
전체	76.6	20.3	0.4	2.0	0.7	100.0(757)	
지역규모							
대도시	74.8	23.3	0.6	0.6	0.6	100.0(318)	
중소도시	78.4	17.6	0.3	3.3	0.5	100.0(393)	13.35(8)
읍면	73.9	23.9	-	-	2.2	100.0(46)	
모 학력							
고졸이하	75.4	16.4	1.6	6.6	-	100.0(61)	
전문대졸	73.4	23.2	0.5	1.9	1.0	100.0(207)	17.51(12)
4년제대졸	79.8	17.9	0.3	1.3	0.8	100.0(392)	
대학원이상	71.1	26.8	-	2.1	-	100.0(97)	
모 취업여부							
취업모	74.1	23.0	0.3	2.1	0.5	100.0(374)	3.76(4)
비취업모	79.1	17.8	0.5	1.8	0.8	100.0(383)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75.7	20.9	0.5	2.3	0.7	100.0(609)	3.06(4)
비이용	80.4	18.2	-	0.7	0.7	100.0(148)	

주: ①학부모도 자녀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학부모는 자녀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최소한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학부모는 자녀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④잘 모르겠다.
 ⑤기타

나. 자녀 자원 기관의 부모 참여 제고 방안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내용은 “맞춤형 부모교육”으로 약 59%가 나왔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17.3%로 2순위를 차지했으며,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입소 우선권 제공,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은 응답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가장 많이 나온 “맞춤형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소도시, 서울, 강원·제주권,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모 학력 고졸이하, 비취업모, 자녀 기관 이용, 유치원 이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2순위로 나온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읍면, 충청권·경상권·경인권·전라권, 500만원 이상, 모 학력 전문대졸, 자녀 기관 이용, 유치원, 취업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이나 부모교육을 이수할 시간이 부족한 취업모에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게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유치원 입소 우선권 부여”는 대도시, 경인권·서울,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500만원, 모학력 대학원 이상, 기관 비이용에서 20.9%로 높게 나왔다. 국공립 기관이 부족한 서울 등 대도시의 고소득, 고학력 가정에서 “국공립 기관 입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I-5-2〉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제고방안

구분	①	②	③	④	⑤	단위: %(명)	
						계 (사례수)	χ^2 (df)
전체	58.8	17.3	11.8	11.2	0.9	100.0(757)	
지역규모							
대도시	58.2	15.1	15.4	10.4	0.9	100.0(318)	
중소도시	59.8	18.1	9.4	11.7	1.0	100.0(393)	10.72(8)
읍면	54.3	26.1	6.5	13.0	-	100.0(46)	
거주권역							
서울	63.6	13.3	14.0	7.7	1.4	100.0(143)	
경인권	51.0	18.4	16.5	13.1	1.0	100.0(206)	
충청권	61.9	22.2	6.3	9.5	-	100.0(63)	23.17(20)
전라권	61.0	18.2	9.7	10.4	0.6	100.0(154)	

(표 III-5-2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사례수)	$\chi^2(df)$
경상권	59.7	18.5	7.6	14.3	-	100.0(119)	
강원·제주권	62.5	13.9	9.7	11.1	2.8	100.0(72)	
월 평균 가구소득							
250만원미만	61.2	15.3	7.1	15.3	1.2	100.0(85)	
250만원~300만원미만	62.6	14.8	10.4	11.3	0.9	100.0(115)	
300만원~400만원미만	60.1	17.1	10.9	10.4	1.6	100.0(193)	12.55(20)
400만원~500만원미만	58.5	15.9	14.8	9.7	1.1	100.0(176)	
500만원~700만원미만	53.3	23.0	13.1	10.7	-	100.0(122)	
700만원 이상	56.1	18.2	12.1	13.6	-	100.0(66)	
모 학력							
고졸이하	59.0	19.7	14.8	6.6	-	100.0(61)	
전문대졸	56.0	21.7	10.6	11.6	-	100.0(207)	15.19(12)
4년제대졸	61.7	14.0	10.7	12.0	1.5	100.0(392)	
대학원이상	52.6	19.6	16.5	10.3	1.0	100.0(97)	
모 취업여부							
취업모	55.1	19.0	12.6	12.3	1.1	100.0(374)	4.27(4)
비취업모	62.4	15.7	11.0	10.2	0.8	100.0(383)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59.8	17.9	9.5	11.7	1.1	100.0(609)	16.57(4)**
비이용	54.7	14.9	20.9	9.5	-	100.0(148)	
자녀 이용 기관종류							
유치원	63.6	20.6	7.9	6.1	1.8	100.0(228)	
어린이집	57.3	16.3	10.7	14.9	0.8	100.0(375)	31.90(12)**
기타	66.7	16.7	-	16.7	-	100.0(6)	
비이용	54.7	14.9	20.9	9.5	-	100.0(148)	

주: ① 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예: 개별 상담 프로그램 등)
 ②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예: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③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 우선권 부여
 ④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게 마일리지 적립 및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사용
 ⑤ 기타

* $p < .05$, ** $p < .01$, *** $p < .001$

면담조사를 살펴보면, 육아중에서 1:1 부모교육 상담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투적인 이야기만 전달해서 별로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 지인은 매우 만족한다고 해서 기관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게 부모교육인지는 모르고, 1:1 상담을 해준다고. 남편직장동료가 알려줘서. 친구한테 얘기해줘서 친구가 갔다 왔는데, 되게 상투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1:1 상담을 하는데 뻘한 얘기, “그래도 아이의 마음을 더 들어주세요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진짜 전문가가 아닌. 그래서 제 친구가 갔다 와서 별로라고. 근데 남편회사동료가 한 곳은 되게 만족스러웠다고 그랬대요.

다.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해 64.6%(보기 문항 ①+④)의 부모가 타당하다고 응답했다. 즉, 영유아기의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많은 부모들의 생각이다. 의무화는 적절하지 않다(보기 문항 ②+③+⑤+⑥)는 34.9%가 나왔다. 요컨대, 의무화보다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무화할 경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실제 참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의무화하더라도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의무교육·보육도 아닌 데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등의 이유로 부모교육의 의무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35%이다.

보기 문항 ①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에 대한 요구는 도시, 경인권, 500~700만원 미만, 전문대졸, 비취업모, 자녀 기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의무화 보다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기 문항 ②)에 대한 요구는 읍면, 전라권, 250~300만원 미만, 고졸 이하, 비취업모, 자녀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 III-5-3〉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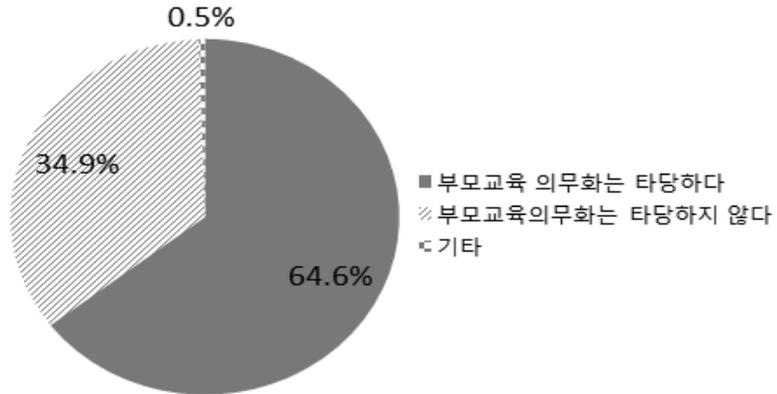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단위: %(명)	
								계 (사례수)	χ^2 (df)
전체	55.5	18.4	12.7	9.1	3.3	0.5	0.5	100.0(757)	
지역규모									
대도시	56.0	17.0	13.5	8.5	4.1	0.3	0.6	100.0(318)	
중소도시	56.0	18.6	12.0	9.2	3.1	0.8	0.5	100.0(393)	7.04(12)
읍면	47.8	26.1	13.0	13.0	-	-	-	100.0(46)	
거주권역									
서울	56.6	16.1	15.4	8.4	2.8	0.7	-	100.0(143)	
경인권	62.6	17.5	7.8	8.3	1.5	1.0	1.5	100.0(206)	
충청권	47.6	20.6	22.2	9.5	-	-	-	100.0(63)	
전라권	46.8	29.9	9.7	7.1	5.8	0.6	-	100.0(154)	60.59(30)**
경상권	56.3	16.0	11.8	10.9	4.2	-	0.8	100.0(119)	
강원·제주권	56.9	2.8	20.8	13.9	5.6	-	-	100.0(72)	

(표 III-5-3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계 (사례수)	χ^2 (df)
월 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54.1	21.2	8.2	12.9	3.5	-	-	100.0(85)	25.660
250만원~300만원 미만	54.8	24.3	9.6	7.8	2.6	-	0.9	100.0(115)	
300만원~400만원 미만	55.4	19.7	12.4	6.7	4.1	1.0	0.5	100.0(193)	
400만원~500만원 미만	56.8	15.3	13.1	10.8	3.4	0.6	-	100.0(176)	
500만원~700만원 미만	59.8	12.3	14.8	9.0	2.5	-	1.6	100.0(122)	
700만원 이상	47.0	19.7	19.7	9.1	3.0	1.5	-	100.0(66)	
모 학력									
고졸이하	45.9	26.2	18.0	8.2	1.6	-	-	100.0(61)	21.53(18)
전문대졸	58.5	19.8	10.1	9.2	1.9	-	0.5	100.0(207)	
4년제대졸	55.1	16.8	11.7	9.9	4.8	1.0	0.5	100.0(392)	
대학원이상	56.7	16.5	18.6	6.2	1.0	-	1.0	100.0(97)	
모 취업여부									
취업모	52.4	16.3	16.0	11.0	3.2	0.8	0.3	100.0(374)	14.33(6)*
비취업모	58.5	20.4	9.4	7.3	3.4	0.3	0.8	100.0(383)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55.2	18.7	12.8	8.9	3.1	0.7	0.7	100.0(609)	2.78(6)
비이용	56.8	16.9	12.2	10.1	4.1	-	-	100.0(148)	

- 주: ①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② 부모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맞벌이 가정 등 직장일로 바쁜 부모들을 고려하면,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④ 교육의 효과가 크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⑤ 영유아 교육·보육이 의무가 아니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⑥ 교육의 효과가 적으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 $p < .05$, ** $p < .01$



[그림 III-5-1]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면담조사에서도 부모교육의 의무화는 매우 침예하게 대립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의무화의 현실성과 부모의 선택권 존중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모든 부모교육의 결과는 교육적인 내용을 공급해 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의무화하면 되게 많이 더 알려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걸 받아야 하니깐. 근데 사실 선택적으로 하다보니까 정보도 찾아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몰라서 못 받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의무화로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들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같아요. 근데 정말 지식 이 없고 이런 걸 했다가 이런 걸 들으면 또, 의무화라는 건 어쨌든 다 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의무화한다고 할건지는 의문이에요

내가 몰라서 못 들었던 걸 기회가 돼서 꼭 들어야 할 때 들으면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폭이 얼마가 되나죠. 몇 회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책임을 명백히”(동법 제1조)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의 권리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 4조)를 의미하며 의무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뜻한다. 국민의 일원인 부모도 가정 구성원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동법 32조(건강가정교육)에서는 건강가정교육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부모는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라. 부모교육 커리큘럼 표준화에 대한 의견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전국 공용의 “클로버 교육”과 같이 부모교육 커리큘럼을 표준화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2.5%로 대부분의 부모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모의 다양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11.9%에 그쳤다.

도시, 전라권·충청권, 400~500만원 미만, 고졸이하, 비취업모, 기관 비이용에서

“바람직하다”(보기 문항 ①)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바람직하지 않다”(보기 문항 ③)는 읍면, 강원·제주권, 250만원 미만, 전문대졸, 취업모, 기관 이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중요성으로 의무교육 효과가 크지 않을 것(보기 문항 ②)이라는 응답은 읍면, 서울, 700만원 이상, 대학원 이상, 취업모, 기관 비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 III-5-4〉 영유아기 부모교육 커리큘럼 표준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①바람직하다	②강사수준에 따라 다르다	③ 바람직하지 않다	기타	계 (사례수)	χ^2 (df)
전체	72.5	13.6	11.9	2.0	100.0(757)	
지역규모						
대도시	73.9	13.2	10.7	2.2	100.0(318)	
중소도시	72.3	13.7	12.0	2.0	100.0(393)	4.215(6)
읍면	65.2	15.2	19.6	-	100.0(46)	
거주권역						
서울	71.3	16.8	10.5	1.4	100.0(143)	
경인권	73.3	14.1	9.2	3.4	100.0(206)	
충청권	74.6	11.1	14.3	-	100.0(63)	
전라권	74.7	10.4	13.6	1.3	100.0(154)	11.925(15)
경상권	68.1	16.8	12.6	2.5	100.0(119)	
강원·제주권	73.6	9.7	15.3	1.4	100.0(72)	
월 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68.2	10.6	17.6	3.5	100.0(85)	
250만원~300만원 미만	77.4	11.3	9.6	1.7	100.0(115)	
300만원~400만원 미만	73.1	13.0	13.0	1.0	100.0(193)	
400만원~500만원 미만	79.0	10.8	8.0	2.3	100.0(176)	18.796(15)
500만원~700만원 미만	66.4	18.9	12.3	2.5	100.0(122)	
700만원 이상	62.1	21.2	15.2	1.5	100.0(66)	
모 학력						
고졸이하	75.4	8.2	13.1	3.3	100.0(61)	
전문대졸	73.9	9.7	15.0	1.4	100.0(207)	
4년제대졸	73.2	15.1	10.2	1.5	100.0(392)	13.909(9)
대학원이상	64.9	19.6	11.3	4.1	100.0(97)	
모 취업여부						
취업모	71.4	14.2	12.8	1.6	100.0(374)	
비취업모	73.6	13.1	11.0	2.3	100.0(383)	1.390(3)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71.8	13.5	12.5	2.3	100.0(609)	
비이용	75.7	14.2	9.5	0.7	100.0(148)	2.795(3)

IV.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 실무자조사

이 장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 유아교육진흥원(교육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운영하는 실무자(또는 센터장)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는 총 114명이다. 설문조사 기간(2017년 8월 28일~2017년 9월 22일)동안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기관(센터)를 표집한 결과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50.0%, 건강가정지원센터 약 39%, 유아교육진흥원 11.4% 순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모집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장 많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취학 전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본 연구주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표집되었다. 기관(센터)이 소재한 지역규모는 중소도시가 약 47%, 대도시 43.0%로 도시지역이 주를 이루었고, 읍면은 약 11%에 그쳤다. 소재 지역으로는 경인권이 가장 많고, 경상권, 서울, 충청, 전라권 순으로 표집되었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여성이 약 96%로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20~30대가 대부분이며 최종학력은 4년대졸이 57.0%로 가장 많았다. 근속기간은 1년이상~3년미만이 35.1%로 가장 많고, 1년 미만, 3년~5년 미만 순으로 보고되었다.

〈표 IV-1-1〉 응답자 특성: 실무자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전체	100.0(114)	전체	100.0(114)
기관(센터)종류		성별	
유아교육진흥원	11.4(13)	남자	4.4
육아종합지원센터	50.0(57)	여자	95.6
건강가정지원센터	38.6(44)	연령	
지역규모		20대	30.7
대도시	43.0(49)	30대	46.5

(표 IV-1-1 계속)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중소도시	46.5(53)	40대	14.9
읍면	10.5(12)	50대	7.9
센터(기관) 소재지		현 기관 근속기간	
서울	18.4(21)	1년미만	28.9
경인권	28.1(32)	1년이상~3년미만	35.1
충청권	14.0(16)	3년이상~5년미만	15.8
전라권	11.4(13)	5년이상~7년미만	10.5
경상권	22.8(26)	7년이상~10년미만	7.0
강원·제주권	5.3(6)	10년이상	2.0
최종학력		응답자 지위	
전문대졸	9.6	기관장	1.8
4년대졸	57.0	실무자	98.2
대학원이상	33.3		

2.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가.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1) 참여도

각 기관(센터)에서 실시한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강의식 부모교육, 개별 상담, 집단 상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의 부모의 참여정도를 알아본 결과, 참여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가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3.85 점(4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개별 양육상담프로그램이 3.43점으로 부모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소규모 강의식 부모교육 3.24점, 집단 양육상담프로그램 3.10점, 대규모 강의식 부모교육 2.86점, 온라인으로 실시한 개별 양육상담프로그램이 2.59점으로 가장 참여도가 낮았다.

자녀와 함께하는 하는 프로그램이 영유아기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방식은 집단, 대규모 보다는 개별, 소규모 방식을 대체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더 높았다.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의 참여도는 센터(기관) 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높았다. 전체에서 가장 참여도가 낮게 나온 온라인의 개별상담프로그램의 경우, 유아교육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육아중

합지원센터는 이 프로그램보다 대규모강의식 부모교육의 참여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 센터(기관) 소재지 변인도 전체 경향과 큰 차이는 없는 가운데, 읍면의 대규모 강의식부모교육의 참여도는 2.0점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1〉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단위: 점(명)

구분	대규모 강의식 부모 교육	소규모 강의식 부모 교육	개별양육 상담프로그램		집단양육 상담프로 그램	부모-자녀 체험프로 그램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사례수)	2.86 (104)	3.24 (104)	2.59 (56)	3.43 (83)	3.10 (71)	3.85 (106)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3.58	3.67	2.33	3.80	3.17	3.82
육아종합지원센터	2.77	3.20	2.80	3.55	3.20	3.85
건강가정지원센터	2.75	3.24	1.67	3.12	2.92	3.85
지역규모						
대도시	2.87	3.25	2.44	3.38	2.90	3.80
중소도시	2.96	3.29	2.80	3.49	3.30	3.88
읍면	2.00	3.00	2.25	3.43	3.00	3.91
센터(기관) 소재지						
서울	2.74	3.32	2.64	3.47	2.82	3.79
경인권	3.00	3.13	2.43	3.48	3.30	3.90
충청권	2.80	3.40	3.00	3.50	3.33	3.87
전라권	2.80	3.45	2.43	3.29	3.00	3.83
경상권	2.78	3.04	2.65	3.39	2.94	3.83
강원·제주권	3.00	3.60	2.67	3.25	3.00	3.83

주: 1) 수치가 클수록 참여도가 높다는 의미임.
 2)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비해당으로 처리함.
 3) 대규모와 소규모의 기준은 20인을 기준으로 함.

2) 참여도가 높은(낮은) 이유

참여도가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1순위 기준). 결과, “유익한 교육내용”이 41.2%로 가장 많았고,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높은 관심”이 약 37%로 주를 차지했다. 이외의 강사, 홍보 등은 참여율을 높이는데 큰 변수를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유명강사”가 참여도를 높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사례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결과이다. 대도시와 읍면은 “유익한 교육내용”이 전체와 동일하게 1순위로 나왔으나, 중소도시는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높은 관심”이 1순위로 나왔다. 센터(기관) 소재지에 따라 1순위가 달랐다. 서울, 충청권, 전라권은 “유익한 교육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다면, 경인권, 경상권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높은 관심”이 가장 많았다.

<표 IV-2-2> 참여도가 높은 이유(1순위)

구분	단위 : %(명)							계 (사례수)	χ^2 (df)
	유익한 교육 내용	부모의 높은 관심	강사 전문 성	적극 적 홍보	유명 강사	기타	비 해당		
전체(1순위)	41.2	36.8	8.8	4.4	4.4	2.6	1.8	100.0(114)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30.8	23.1	15.4	7.7	23.1	-	-	100.0(13)	
육아종합지원센터	49.1	35.1	8.8	1.8	1.8	1.8	1.8	100.0(57)	18.72(12)
건강가정지원센터	34.1	43.2	6.8	6.8	2.3	4.5	2.3	100.0(44)	
지역규모									
대도시	42.9	32.7	12.2	6.1	4.1	-	2.0	100.0(49)	
중소도시	39.6	41.5	7.5	3.8	3.8	1.9	1.9	100.0(53)	14.48(12)
읍면도	41.7	33.3	-	-	8.3	16.7	-	100.0(12)	
센터(기관) 소재지									
서울	52.4	28.6	14.3	4.8	-	-	-	100.0(21)	
경인권	37.5	40.6	12.5	-	6.3	-	3.1	100.0(32)	
충청권	50.0	31.3	12.5	6.3	-	-	-	100.0(16)	
전라권	46.2	30.8	-	15.4	-	7.7	-	100.0(13)	34.26(30)
경상권	30.8	46.2	3.8	3.8	3.8	7.7	3.8	100.0(26)	
강원·제주권	33.3	33.3	-	-	33.3	-	-	100.0(6)	

주: 비해당은 “참여가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없음” 또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도가 저조함”임.

다음은 참여도가 높은 부모교육의 주된 이유를 순위별로 알아본 결과이다. 1순위와 거의 유사한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 “유익한 교육내용” 77.2%로 가장 많았고,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높은 관심” 65.8%, “적극적인 홍보” 21.9%, “강사의 전문성” 17.5%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강사의 전문성, 유명강사(강사의 높은 인지도)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읍면에서 “적극적 홍보”를 꼽은 비율이 3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읍면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읍면은 집과 기관(센터)의 이동거리가 크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

에 부모교육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여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IV-2-3> 참여도가 높은 이유(1+2순위)

단위 : %(명)

구분	유익한 교육 내용	부모의 높은 관심	적극적 홍보	강사 전문성	유명 강사	편리한 신청 시스템	기타	비해당	무응답	계 (사례수)
전체	77.2	65.8	21.9	17.5	7.9	0.9	5.3	1.8	1.8	(114)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61.5	53.8	15.4	38.5	30.8	-	-	-	-	(13)
육아종합지원센터	78.9	63.2	26.3	17.5	5.3	1.8	3.5	1.8	1.8	(57)
건강가정지원센터	79.5	72.7	18.2	11.4	4.5	-	9.1	2.3	2.3	(44)
지역 규모										
대도시	75.5	67.3	20.4	18.4	10.2	2.0	2.0	2.0	2.0	(49)
중소도시	81.1	66.0	20.8	18.9	5.7	-	3.8	1.9	1.9	(53)
읍면	66.7	58.3	33.3	8.3	8.3	-	25.0	-	-	(12)

주: 비해당은 “참여가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없음” 또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도가 저조함”임.

이와는 달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기관(센터)의 담당자에게 알아본 결과(1순위), “자녀동반이 어려워서”가 23.7%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낮은 관심” 20.2%,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18.4%, “홍보부족” 12.3% 순으로 나왔다.

센터(기관) 종류에 따라 순위가 달랐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은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간”과 “교육장소(접근성이 좋지 않아서)”로 인해 참여도가 낮았다는 응답이 23.1%로 동일하게 나와 1순위로 꼽혔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도 단위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기관수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면,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녀동반이 어려워서” “부모의 낮은 관심” “교육시간” 등이 참여도가 낮은 주된 이유로 꼽혔다. 대도시는 “자녀동반이 어려워서”, 중소도시는 “교육시간” 읍면은 “부모의 낮은 관심” “진부한 교육내용”이 1순위로 꼽혔다.

<표 IV-2-4> 참여도가 낮은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자녀 동반 어려워서	부모 낮은 관심	교육 시간 부족	교육 홍보 부족	진부 한 교육 내용	장소 접근 성	강사 전문 성 부족	불편 한 신청 시스템	기타	비 해 당	계 (사례수)	$\chi^2(df)$
전체	23.7	20.2	18.4	12.3	9.6	7.9	0.9	0.9	1.8	4.4	100.0(114)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7.7	15.4	23.1	15.4	-	23.1	7.7	-	-	7.7	100.0(13)	20.84 (18)
육아종합지원센터	26.3	17.5	15.8	14.0	14.0	7.0	-	-	1.8	3.5	100.0(57)	
건강가정지원센터	25.0	25.0	20.5	9.1	6.8	4.5	-	2.3	2.3	4.5	100.0(44)	
지역규모												
대도시	30.6	16.3	10.2	10.2	12.2	10.2	2.0	2.0	-	6.1	100.0(49)	18.79 (18)
중소도시	18.9	22.6	26.4	13.2	3.8	7.5	-	-	3.8	3.8	100.0(53)	
읍면	16.7	25.0	16.7	16.7	25.0	-	-	-	-	-	100.0(12)	

주: 비해당은 “참여가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없음” 또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도가 저조함”임.

참여도가 낮은 이유를 순위별로 복수응답을 받아본 결과, 1순위는 동일했지만 2위와 3위의 이유가 바뀌었다. 즉, 복수응답에서는 “교육시간”이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님의 낮은 관심”보다 더 많이 나왔다. “교육장소”의 문제도 복수응답에서는 높게 나왔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자녀동반이 어려워서” “교육장소”가 동일하게 1순위로 나왔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체 응답경향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부한 교육내용”의 응답비율이 20.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1순위는 “자녀동반이 어려워서”가 동일하게 나왔지만, 읍면은 “진부한 교육내용”이 50.0%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 대도시는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의 낮은 관심” “교육시간” 순으로 꼽았다면, 중소도시는 “교육시간”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의 낮은 관심” 순으로 나왔다.

<표 IV-2-5> 참여도가 낮은 이유(1+2순위)

단위 : %(명)

구분	자녀 동반 어려 워서	교육 시간	부모 낮은 관심	교육 장소 (접근 성)	홍보 부족	진부 한 교육 내용	강사 전문 성 부족	불편 한 신청 시스템	기 타	비 해 당	무 응 답	계 (사례수)
전체	59.6	34.2	28.9	21.1	17.5	16.7	4.4	1.8	7.0	4.4	4.4	(114)

(표 IV-2-5 계속)

구분	자녀 동반 어려 워서	교육 시간	부모 낮은 관심	교육 장소 (접근 성)	홍보 부족	진부 한 교육 내용	강사 전문 성 부족	불편한 신청시 스템	기 타	비 해당	무응 답	계 (사례수)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38.5	30.8	23.1	38.5	23.1	7.7	15.4	-	7.7	7.7	7.7	(13)
육아종합지원센터	66.7	31.6	29.8	22.8	15.8	15.8	5.3	1.8	3.5	3.5	3.5	(57)
건강가정지원센터	56.8	38.6	29.5	13.6	18.2	20.5	-	2.3	11.4	4.5	4.5	(44)
지역규모												
대도시	65.3	26.5	28.6	20.4	14.3	20.4	4.1	4.1	4.1	6.1	6.1	(49)
중소도시	60.4	45.3	26.4	22.6	18.9	5.7	5.7	-	7.5	3.8	3.8	(53)
읍면도시	33.3	16.7	41.7	16.7	25.0	50.0	-	-	16.7	-	-	(12)

주: 비해당은 “참여가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없음” 또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도가 저조함”임.

면담조사에서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저녁으로 옮기고, 자녀 및 형제들을 돌봐주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식사제공하고, 동생을 돌봐주겠다 라고 하면 좋아하세요. 원가를 제공해드리면 오는데 안 그러면 안 와요... 맞벌이 부부도 있고 해서 주로 시간을 저녁시간대로 옮겨서 진행하면 그나마 참석률이 높아져요.

이처럼 부모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동반과 함께 시간대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부모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실무자 입장에서 알아본 결과,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3.84점(4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소규모 강의식 부모교육” 3.76점, “오프라인 개별양육상담” 3.67점, “집단양육상담” 3.62점 순이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실시한 개별양육상담”(3.3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도의 조사결과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은 참여도와 만족도 모두 점수가 높게 나왔고, 참여도 점수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인 “온라인 개별양육상담”이 만족도 점수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도와 만족도의 점수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프로그램은 “대규모강의식 부모교육”으로

0.53점의 차이를 보였다. 점수차이가 크다는 것은 참여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은 참여도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온 유일한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변인별로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은 “집단양육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4.0점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보다도 높게 나왔으나, 사례수(6명)가 적어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3개 센터(기관) 모두 온라인 개별양육상담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이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읍면에서 “대규모강의식 부모교육”의 참여도가 2.0점으로 가장 낮았지만, 만족도에서는 3.57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읍면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온라인 개별양육상담”으로 3.0점이다. 충청권, 전라권을 제외한 나머지 소재지에서도 “온라인 개별양육상담”의 만족도가 대체로 가장 낮았다. 서울과 충청권에서 “소규모 강의식 부모교육”의 만족도가 부모-자녀체험 프로그램보다 높거나(서울) 동일하게(충청권) 나왔다.

〈표 IV-2-6〉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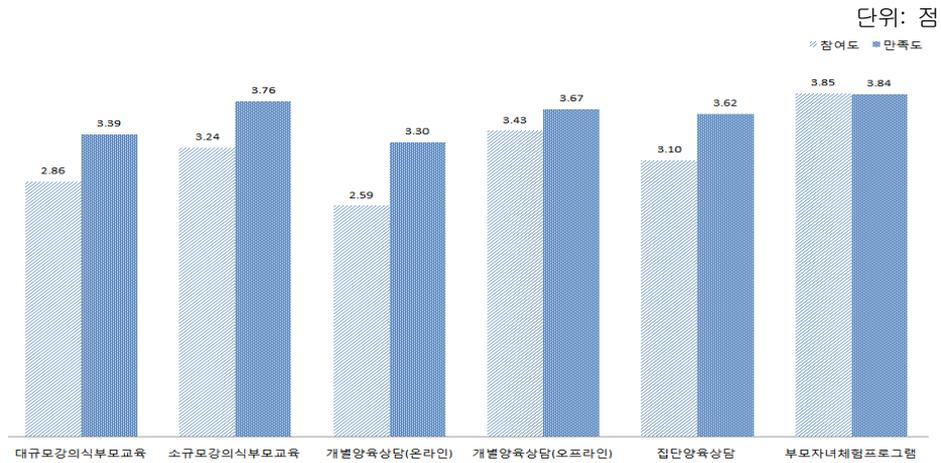
단위: 점(명)

구분	대규모 강의식 부모 교육	소규모 강의식 부모 교육	개별 양육상담프로그램		집단양육 상담프로 그램	부모- 자녀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사례수)	3.39 (104)	3.76 (104)	3.30 (56)	3.67 (83)	3.62 (71)	3.84 (106)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3.75	3.83	3.67	3.80	4.00	3.91
육아종합지원센터	3.35	3.77	3.41	3.79	3.68	3.85
건강가정지원센터	3.35	3.74	2.67	3.40	3.42	3.80
지역규모						
대도시	3.37	3.82	3.22	3.73	3.61	3.83
중소도시	3.39	3.77	3.44	3.64	3.67	3.86
읍면	3.57	3.50	3.00	3.57	3.43	3.82
센터(기관) 소재지						
서울	3.37	3.89	3.27	3.82	3.55	3.84
경인권	3.44	3.71	3.43	3.74	3.70	3.80
충청권	3.20	3.80	3.25	3.70	3.56	3.80
전라권	3.50	3.64	3.43	3.71	3.43	3.92

(표 IV-2-6 계속)

구분	대규모 강의식 부모 교육	소규모 강의식 부모 교육	개별 양육상담프로그램		집단양육 상담프로 그램	부모- 자녀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오프라인		
경상권	3.52	3.74	3.24	3.50	3.75	3.88
강원·제주권	3.00	3.80	3.00	3.25	3.40	3.83

주: 1) 수치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임.
 2)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비해당으로 처리함.
 3) 대규모와 소규모의 기준은 20인을 기준으로 함.



[그림 IV-2-1]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도 및 만족도

다.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선정기준

각 기관(센터)에서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준을 1, 2순위로 알아보았다. 결과, 부모님의 요청이 많은 프로그램(부모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82.5%(1순위 기준 48.2%)로, 부모의 요구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47.4%(1순위 기준 38.6%)를 차지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요청한 프로그램” 40.4%(1순위 기준 5.3%), 각 기관(센터)에서 부모로부터 실시한 프로그램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 16.7%(1순위 기준 3.5%) 순으로 나왔다.

복수응답 결과, 센터(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나온 선정 기준은 부

다. 지역규모로는 읍면이 “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의 응답비율이 58.3%로 가장 높았고, “강사초빙” 문제도 25.0%로 높게 나왔다. 대도시는 “담당인력부족”을 중소도시는 “예산”, “강사초빙”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표 IV-2-8〉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1순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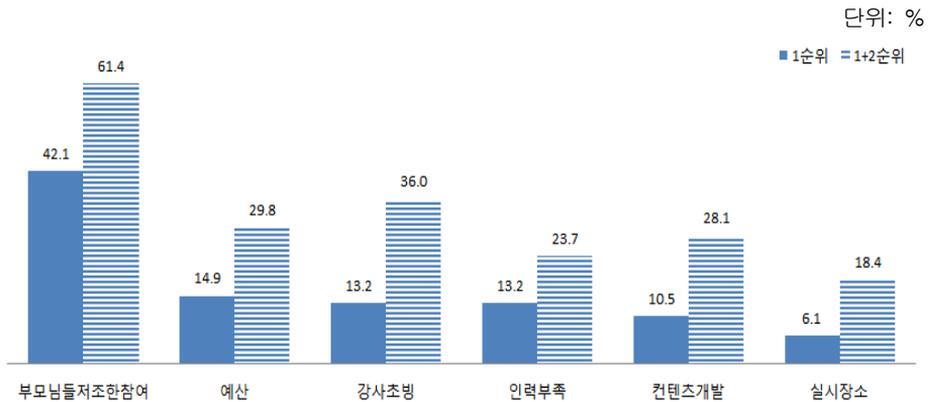
구분	부모님 저조함 참여	예산	강사 초빙	담당 인력 부족	부모교육 컨텐츠 개발	부모교육 실시장소	계 (사례수)
전체(1순위)	42.1	14.9	13.2	13.2	10.5	6.1	100.0(114)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38.5	7.7	15.4	15.4	15.4	7.7	100.0(13)
육아종합지원센터	35.1	10.5	10.5	21.1	14.0	8.8	100.0(57)
건강가정지원센터	52.3	22.7	15.9	2.3	4.5	2.3	100.0(44)
지역규모							
대도시	51.0	14.3	4.1	16.3	6.1	8.2	100.0(49)
중소도시	30.2	18.9	18.9	13.2	13.2	5.7	100.0(53)
읍면도시	58.3	-	25.0	-	16.7	-	100.0(12)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어려움을 순위별로 알아본 결과, 1순위와 어려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가 61.4%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동일하지만, 다음으로는 “강사초빙” “예산”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순으로 나왔다. 즉, 1순위 응답의 2위와 3위의 순서가 바뀌었다. 강사초빙의 문제가 예산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나왔다. “부모교육 콘텐츠개발”도 복수 응답에서는 “예산”도 비슷한 비율로 어려움으로 꼽혔다. 기관(종류) 센터별로는 3개 기관 모두 1순위의 어려움은 같았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강사초빙”(28.6%) “부모교육 담당인력 부족”(28.6%) 등 주로 인력 관련된 어려움을 꼽았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강사초빙”과 “예산” 문제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강사초빙”(50.0%)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지역규모로는 읍면에서 “강사초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 IV-2-9〉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1+2순위)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저조함 참여	강사 초빙	예산	부모 교육 컨텐츠 개발	담당 인력 부족	부모 교육 실시 장소	기타	계 (사례수)
전체(1+2순위)	61.4	36.0	29.8	28.1	23.7	18.4	2.6	(114)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67.3	28.6	26.5	26.5	28.6	22.4	-	(13)
육아종합지원센터	52.8	39.6	32.1	32.1	24.5	15.1	3.8	(57)
건강가정지원센터	75.0	50.0	33.3	16.7	-	16.7	8.3	(44)
지역규모								
대도시	67.3	28.6	26.5	26.5	28.6	22.4	-	(49)
중소도시	52.8	39.6	32.1	32.1	24.5	15.1	3.8	(53)
읍면도시	75.0	50.0	33.3	16.7	-	16.7	8.3	(12)



[그림 IV-2-2]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1순위, 1+2순위)

마.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자체 평가

각 기관(센터)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수요자인 부모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거의(98.2%)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절차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9%에 그쳤다. 센터(기관)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를 하는 경우도 약 44%로 적지 않았으며, 부모님들의 신청건수 및 참여건수를 평가하는 경우도 약 35%에 이르렀다. 유아교육진흥원은 100% 부모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

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약 55%로 3개 센터(기관) 중에서 가장 높았으나, 자체 평가 절차가 없다는 응답도 유일하게 나왔다.

〈표 IV-2-10〉 부모교육 프로그램 자체 평가 실시 여부(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부모대상으 로 자체평가	내부적으로 자체평가	신청건수 및 참여건수 분석	자체적으로 평가절차 없음	기타	(사례수)
전체	98.2	43.9	35.1	0.9	7.9	(114)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100.0	30.8	23.1	-	-	(13)
육아종합지원센터	98.2	38.6	36.8	-	7.0	(57)
건강가정지원센터	97.7	54.5	36.4	2.3	11.4	(44)

3. 부모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

가. 부모교육의 필요성

각 기관(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담당자 대상으로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는 단 한 사례도 없었다. 즉, 본 조사에 참여한 114명 모두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드시 필요하다” 92.1%로 “대체로 필요하다” 7.9%보다 훨씬 앞섰다. 4점 척도 점수로 환산하면 3.02점으로 집계되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교육 담당자 전원(100%)이 영유아기 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96.5%(3.96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84.1%(3.842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 순으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이 3.95점으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권이 3.83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3-1〉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필요성

단위: 점,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함	반드시 필요함	평균 (표준편차)	계 (사례수)	t/F
전체	-	-	7.9	92.1	3.92(0.27)	100.0(114)	

(표 IV-3-1 계속)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함	반드시 필요함	평균 (표준편차)	계 (사례수)	t/F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	-	-	100.0	4.00(-)	100.0(13)	3.361*
육아종합지원센터	-	-	3.5	96.5	3.96(0.19)	100.0(57)	
건강가정지원센터	-	-	15.9	84.1	3.84(0.37)	100.0(44)	
지역규모							
대도시	-	-	8.2	91.8	3.92(0.28)	100.0(49)	0.809
중소도시	-	-	5.7	94.3	3.94(0.23)	100.0(53)	
읍면	-	-	16.7	83.3	3.83(0.39)	100.0(12)	
기관 소재지							
서울	-	-	4.8	95.2	3.95(0.22)	100.0(21)	0.406
경인권	-	-	6.3	93.8	3.94(0.25)	100.0(32)	
충청권	-	-	6.3	93.8	3.94(0.25)	100.0(16)	
전라권	-	-	15.4	84.6	3.85(0.38)	100.0(13)	
경상권	-	-	7.7	92.3	3.92(0.27)	100.0(26)	
강원·제주권	-	-	16.7	83.3	3.83(0.41)	100.0(6)	

주: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면담조사의 결과에서도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이 자녀들의 교육정보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인성교육까지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게 사회적 현상이잖아요. 어머님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 아이에 대한 발달단계에 대한 정보는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만 1세면, 요즘에 어머님들이 조금만 굶혀도 되게 민감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들이 사회적인 위치에서 감이잖아요. 옛날에는 파이고 흥터가 날 정도로 돼야지만 병원을 갔었거든요. 예전에는 ‘다치면서 크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인성교육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건 의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원장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아이들의 발달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컨텐츠로 이용하는 비율만큼 부모들의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이어서,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 62.3%가 “영유아기의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고 응답했다. 그러

나 20.2%는 맞벌이 가정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서,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가 “타당하다”라고 유목화할 있는 보기 문항 ①과 ③을 합치면 약 70%가 의무화를 찬성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실적인 이유(보기 문항 ②) 또는 의무화 보다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기 문항 ④)는 부모교육의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유목화할 수 있는데, 이들 의견을 합치면 약 27%이다. 부모교육 담당자들은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해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가 보기 문항 ①을 가장 많이 꼽았고(68.4%) 유아교육진흥원은 보기 문항 ②와 ④를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23.1%, 15.4%).

읍면의 담당자가 대도시와 중소도시 담당자보다 의무화에 대해 높은 찬성(75.0%)을 보였으나, 자발적 참여(8.3%)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도시의 담당자들이 맞벌이 등의 이유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읍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서울의 담당자가 의무화를 가장 많이 지지했고(71.4%), 강원·제주권이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3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 IV-3-2>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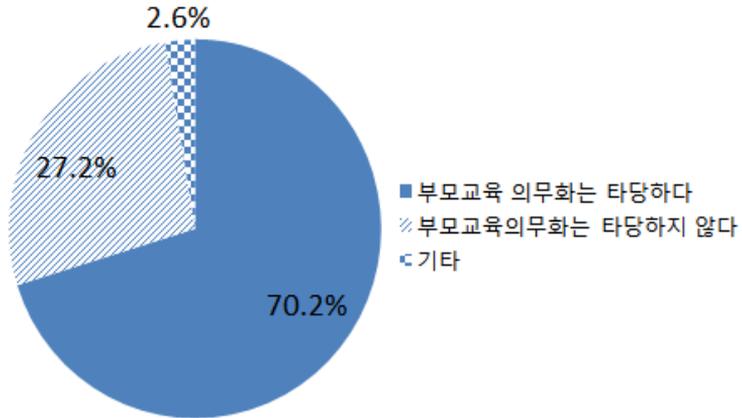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사례수)	χ^2 (df)
전체	62.3	20.2	7.9	7.0	2.6	100.0(114)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61.5	-	23.1	15.4	-	100.0(13)	13.94(8)
육아종합지원센터	68.4	22.8	5.3	1.8	1.8	100.0(57)	
건강가정지원센터	54.5	22.7	6.8	11.4	4.5	100.0(44)	
지역규모							
대도시	55.1	20.4	14.3	6.1	4.1	100.0(49)	6.47(8)
중소도시	66.0	20.8	3.8	7.5	1.9	100.0(53)	
읍면	75.0	16.7	-	8.3	-	100.0(12)	
센터(기관) 소재지							
서울	71.4	19.0	-	4.8	4.8	100.0(21)	40.06(20)**
경인권	65.6	25.0	-	3.1	6.3	100.0(32)	
충청권	62.5	12.5	-	25.0	-	100.0(16)	
전라권	61.5	23.1	7.7	7.7	-	100.0(13)	
경상권	53.8	15.4	30.8	-	-	100.0(26)	
강원·제주권	50.0	33.3	-	16.7	-	100.0(6)	

주: ①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 ② 맞벌이 가정 등 직장일로 바쁜 부모들을 고려하면,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 ③ 교육의 효과가 크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 ④ 부모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기타

** $p < .01$



[그림 IV-3-1]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실무자대상)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또한 원장 및 기관 담당자들 의견에서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들이 아동학대교육을 의무교육 받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낼 때는 부모님들도 연령에 맞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그 이수증을 갖고 와야지 입학할 수 있었으면 해요.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 사례가 기관 차원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의무화를 할 수 없는 구조이며, 국공립 기관의 경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다. 부모교육 커리큘럼 표준화에 대한 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전국 공용의 표준화된 “클로버 교육”과 같이 전국의 부모교육을 표준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아보았다. 표준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6.3%로 가장 많이 나오기는 했으나, 나머지 약 60%

는 표준화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사수준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표준화에 의한 교육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보기 문항 ②)가 33.3%로 적지 않은 응답이 나왔으며 “부모의 다양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보기 문항 ③)도 26.3%가 나왔다.

유아교육진흥원 담당자는 보기 문항 ③(53.8%)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기 문항 ①(45.6%),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기 문항 ②(36.4%)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각 센터(기관) 담당자의 부모교육 표준화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도시, 읍면은 보기 문항 ②(대도시 보기 문항 ①과 동률)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는 보기 문항 ①이 1순위로 나왔다. 특히, 읍면은 표준화에 대해 부정적이 입장이라 할 수 있는 보기 문항 ③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경상권은 보기 문항 ②가 가장 많이 나왔고, 나머지 지역은 보기 문항 ①이 1순위로 나왔다.

<표 IV-3-3> 부모교육 표준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사례수)	χ^2 (df)
전체	36.8	33.3	26.3	3.5	100.0(114)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38.5	7.7	53.8	-	100.0(13)	14.38(6)*
육아종합지원센터	45.6	36.8	14.0	3.5	100.0(57)	
건강가정지원센터	25.0	36.4	34.1	4.5	100.0(44)	
지역 규모						
대도시	32.7	32.7	30.6	4.1	100.0(49)	12.47(6)
중소도시	49.1	28.3	18.9	3.8	100.0(53)	
읍면	-	58.3	41.7	-	100.0(12)	
센터(기관) 소재지						
서울	33.3	38.1	28.6	-	100.0(21)	7.17(15)
경인권	37.5	31.3	21.9	9.4	100.0(32)	
충청권	37.5	31.3	31.3	-	100.0(16)	
전라권	46.2	30.8	23.1	-	100.0(13)	
경상권	30.8	34.6	30.8	3.8	100.0(26)	
강원·제주권	50.0	33.3	16.7	-	100.0(6)	

- 주: ① 지역이나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② 부모교육을 표준화해도 강사 수준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교육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③ 부모교육을 표준화하는 것은 부모의 다양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④ 기타

* $p < .05$

라.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1) 부모 참여 제고 방안

영유아기 부모들의 부모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맞춤형 교육”을 가장 많이 꼽았다(32.5%). 다음으로 “부모교육 이수한 부모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의 입소 우선 순위 부여” 21.9%, “부모교육 이수한 부모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 21.1%가 엇비슷하게 나왔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13.2%로 뒤를 이었다.

3개 센터(기관) 모두 “맞춤형 교육”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2순위는 같았다. 유아교육진흥원 담당자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2순위로 꼽은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는 “부모교육 이수한 부모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22.8%)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는 “부모교육 이수한 부모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의 입소 우선 순위 부여”(25.0%)를 2순위로 꼽았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맞춤형 교육”을 1순위로 꼽았다면, 읍면은 “부모교육 이수한 부모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이 가장 많이 나왔다. 서울은 “부모교육 이수한 부모에게 국공립 기관 입소 우선 순위 부여”가 가장 많이 나왔다.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국공립 기관의 입소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강원·제주권은 “부모교육 이수한 부모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이 66.7%로 가장 많았다.

기타의견으로는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기관과 연계, 부모교육을 듣기 위해 오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 참여를 위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표 IV-3-4>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참여 제고 방안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사례수)	$\chi^2(df)$
전체	32.5	21.9	21.1	13.2	11.4	100.0(114)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46.2	15.4	15.4	23.1	-	100.0(13)	
육아종합지원센터	28.1	21.1	22.8	17.5	10.5	100.0(57)	8.47(8)
건강가정지원센터	34.1	25.0	20.5	4.5	15.9	100.0(44)	

(표 IV-3-4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사례수)	$\chi^2(df)$
지역규모							
대도시	32.7	26.5	18.4	10.2	12.2	100.0(49)	6.11(8)
중소도시	34.0	17.0	20.8	18.9	9.4	100.0(53)	
읍면	25.0	25.0	33.3	-	16.7	100.0(12)	
센터(기관) 소재지							
서울	28.6	42.9	4.8	14.3	9.5	100.0(21)	28.81(20)
경인권	28.1	12.5	28.1	9.4	21.9	100.0(32)	
충청권	37.5	31.3	18.8	6.3	6.3	100.0(16)	
전라권	38.5	30.8	15.4	15.4	-	100.0(13)	
경상권	34.6	11.5	19.2	23.1	11.5	100.0(26)	
강원·제주권	33.3	-	66.7	-	-	100.0(6)	

- 주: ① 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예: 개별 상담 프로그램 등)
 ②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 우선권 부여
 ③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게 마일리지 적립 및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사용
 ④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예: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⑤ 기타

면담조사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의 두뇌검사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 아래의 내용은 한 어린이집의 자녀 두뇌검사 프로그램 관련한 내용이다.

일 년에 4번 프로그램을 꼭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BTI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 두뇌검사라고 해서 변화되는 것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검사 후 자녀가 미흡한 부분은 1년 동안 연결해서 그 강사선생님이 해주다 보니까 그 교육은 거의 100% 참석이고요...

이처럼 부모들의 참여도는 자녀의 교육과 연관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궁금한 내용이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2) 정부 지원 방안

영유아기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부모교육 담당자가 가장 많이 꼽은 사항은 “대국민 홍보”(25.4%) “부모교육 법제화”(24.6%)이다. 부모교육 담당자들은 정부가 부모교육을 홍보하고 법제화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모교육 담당인력 보충” “부모교육

운영비 지원” 순으로 꼽았다. 센터(기관) 종류에 따라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사항의 차이가 있었다. 유아교육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모교육 법제화”가 각각 30.8%, 27.3%로 1순위로 나왔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국민 홍보”(38.6%)를 1순위로 꼽았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 확충” 즉, 유아교육진흥원 확충을 23.1%로 2순위로 많이 나온 반면, 나머지 2개 센터는 기관 확충에 대한 요구는 적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프로그램과 인력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프로그램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컸다.

읍면의 담당자는 부모교육 법제화보다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더 많이 꼽았다. 서울, 경인권, 충청권, 강원·제주권은 “대국민 홍보”를 1순위로 가장 많이 나왔고, 전라권은 “프로그램 개발/보급”(30.8%)을, 경상권은 “부모교육 법제화”(34.6%)를 1순위로 꼽았다.

<표 IV-3-5>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사항

단위 : %(명)

구분	대국민 홍보	부모 교육 의무 화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담 당 인 력 확 충	부모 교육 운영 비 지원	센터 (기관) 확충	기 타	계 (사례수)	χ^2 (df)
전체	25.4	24.6	15.8	12.3	10.5	9.6	1.8	100.0(114)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	30.8	15.4	15.4	15.4	23.1	-	100.0(13)	
육아종합지원센터	38.6	21.1	14.0	14.0	5.3	7.0	-	100.0(57)	19.30(12)
건강가정지원센터	15.9	27.3	18.2	9.1	15.9	9.1	4.5	100.0(44)	
지역규모									
대도시	28.6	26.5	14.3	10.2	8.2	10.2	2.0	100.0(49)	
중소도시	28.3	22.6	11.3	13.2	13.2	11.3	-	100.0(53)	15.71(12)
읍면	-	25.0	41.7	16.7	8.3	-	8.3	100.0(12)	
센터(기관) 소재지									
서울	33.3	33.3	14.3	9.5	-	9.5	-	100.0(21)	
경인권	28.1	21.9	6.3	15.6	15.6	9.4	3.1	100.0(32)	
충청권	25.0	18.8	18.8	12.5	18.8	-	6.3	100.0(16)	
전라권	23.1	7.7	30.8	7.7	15.4	15.4	-	100.0(13)	21.16(30)
경상권	15.4	34.6	19.2	11.5	7.7	11.5	-	100.0(26)	
강원·제주권	33.3	16.7	16.7	16.7	-	16.7	-	100.0(6)	

V. 어린이집·유치원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 원장조사

이 장에서는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 대상으로 부모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학부모로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 권리적 측면에서 운영위원회 현황을 의무적 측면에서 부모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원장은 총 528명이다. 어린이집 원장 340명, 유치원 원장 188명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민간어린이집이 43.6%로 가장 많이 표집되었고,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순으로 표집되었다. 기관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재원아 수는 50인 이상~100인 미만이 38.1%로 가장 많았고, 21인 이상~50인 미만, 100인 이상, 20인 이하 순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 분포는 경인권인 약 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권, 서울, 충청권, 전라권, 강원·제주권이었다.

원장의 총경력력은 20년 이상이 가장 많고, 10년 이상~1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순이었다. 원장 최종학력은 4년제졸이 절반 이상이고, 대학원졸, 전문대졸 순이었다.

〈표 V-1-1〉 응답자 특성: 원장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전체	100.0(528)	전체	100.0(528)
기관유형		기관 소재지	
유치원	35.6(188)	서울	15.3(81)
어린이집	64.4(340)	경인권	29.7(157)
설립유형		충청권	11.7(62)
국공립유치원	18.2(96)	전라권	11.9(63)
사립유치원	17.4(92)	경상권	25.2(133)
국공립어린이집	12.3(65)	강원·제주권	6.1(32)

(표 V-1-1 계속)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민간어린이집	43.6(230)	원장 총경력	
법인어린이집	8.5(45)	5년 미만	15.5(82)
재원아수		5년 이상 10년 미만	18.8(99)
20인 이하	6.3(33)	10년 이상 15년 미만	23.3(123)
21인 이상~50인 미만	32.0(169)	15년 이상 20년 미만	18.6(98)
50인 이상~100인미만	38.1(201)	20년 이상	23.9(126)
100인 이상	23.7(125)		
원장 최종학력		4년제졸	51.3(271)
전문대졸	10.2(54)	대학원졸	38.4(203)

2. 부모교육 운영 현황

가. 2017년 상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개최 횟수

2017년 상반기(1월~6월) 기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평균 횟수를 알아보았다. 결과, 원장 또는 교사가 실시한 부모교육이 7.48회로 가장 많았고, 부모상담이 2.06회,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1.73회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전문강사 초빙으로 실시한 부모교육은 0.95회로 가장 낮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원장 또는 교사가 실시한 부모교육이 가장 많았고, 유치원은 부모상담 실시 횟수가, 어린이집은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실시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이 원장 또는 교사가 실시한 부모교육 실시가 각각 7.30회, 9.31회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모상담 실시 횟수가 전체보다 높았다. 강원·제주권, 충청권, 경상권은 원장 또는 교사가 실시한 부모교육이 평균 10회 이상을 웃돌았으며, 부모상담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권이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아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V-2-1> 2017년 상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평균 개최 횟수

구분	단위 : 회, %(명)					
	오리엔 테이션/ 설명회	전문 강사 초청 부모교육	원장/ 교사가 실시한 부모교육	원장/ 교사에 의한 부모상담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계 (사례수)
전체	1.48	0.95	7.48	2.06	1.73	100.0(528)
기관유형						
유치원	1.53	0.91	6.49	2.31	1.59	100.0(188)
어린이집	1.45	0.96	8.03	1.92	1.81	100.0(340)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1.43	0.76	5.72	2.38	1.46	100.0(96)
사립유치원	1.63	1.08	7.30	2.24	1.72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1.63	1.74	3.71	2.38	2.23	100.0(65)
민간어린이집	1.35	0.70	9.31	1.89	1.70	100.0(230)
법인어린이집	1.69	1.20	7.71	1.42	1.73	100.0(45)
기관 소재지						
서울	1.43	1.05	6.63	1.85	2.00	100.0(81)
경인권	1.55	0.93	1.61	1.12	1.55	100.0(157)
충청권	1.24	0.69	13.05	3.03	1.76	100.0(62)
전라권	1.41	0.87	7.90	2.98	1.57	100.0(63)
경상권	1.59	1.05	10.57	2.04	1.83	100.0(133)
강원·제주권	1.38	0.94	14.03	3.59	1.75	100.0(32)
재원아 수						
20인 이하	1.24	0.79	6.33	1.70	1.45	100.0(33)
21인 이상~50인 미만	1.40	0.73	7.46	2.17	1.69	100.0(169)
50인 이상~100인 미만	1.48	1.09	8.01	2.01	1.82	100.0(201)
100인 이상	1.65	1.04	6.98	2.10	1.71	100.0(125)

2) 학부모 참여 정도

2017년 상반기에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별로 학부모의 참여 정도를 보면, 오리엔테이션 및 설명회에 참여도가 3.3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3.36점, 부모상담 3.22점, 원장 또는 교사가 실시한 부모교육은 3.05점, 전문강사 초청 부모교육은 2.82점 순으로 집계되었다. 상반기에 개최를 가장 많이 한 원장 또는 교사가 실시한(표 V-2-1 참조) 부모교육의 참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부모의 참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 내에서는 부모상담을

제외하고는 국공립유치원이 사립보다 부모의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권이 오리엔테이션 및 설명회, 전문강사 초청 부모교육, 부모상담의 참여도가 높았다. 서울은 부모상담의 참여가 가장 높았고(3.62점), 경인권과 충청권은 오리엔테이션 및 설명회(각각 3.63점, 3.21점), 전라권과 경상권, 강원·제주권은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3.38점, 3.45점, 3.40점)의 참여도가 높았다. 기관 소재지에 따라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참여 정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재원아수 20인 미만은 오리엔테이션과 설명회에, 100인 이상은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2017년 상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평균 부모 참여 정도

단위 : 점, (명)

구분	오리엔테이션, 설명회	전문강사 초청 부모교육	원장/교사 실시한 부모교육	원장/교사에 의한 부모상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전체 (사례수)	3.37 (526)	2.82 (321)	3.05 (466)	3.22 (521)	3.36 (496)
기관유형					
유치원	3.49	2.88	3.18	3.31	3.48
어린이집	3.30	2.78	2.98	3.17	3.29
<i>t/F</i>	12.26**	1.100	11.28**	8.85**	9.16**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52	2.88	3.18	3.29	3.53
사립유치원	3.46	2.88	3.17	3.33	3.43
국공립어린이집	3.46	2.58	2.95	3.29	3.38
민간어린이집	3.26	2.84	2.98	3.16	3.28
법인어린이집	3.22	2.90	3.05	3.02	3.24
<i>t/F</i>	4.77**	1.52	2.99*	4.04**	2.96*
기관소재지					
서울	3.38	2.35	3.12	3.62	3.38
경인권	3.63	3.13	3.01	3.14	3.32
충청권	3.21	2.70	3.00	3.11	3.19
전라권	3.16	3.00	3.07	3.05	3.38
경상권	3.27	2.80	3.05	3.22	3.45
강원·제주권	3.13	2.47	3.13	3.06	3.40
<i>t/F</i>	10.55***	9.35***	0.51	13.15***	1.40
재원아 수					
20인 이하	3.39	3.00	3.11	3.31	3.28
21인 이상~50인미만	3.26	2.85	3.02	3.17	3.24
50인 이상~100인미만	3.42	2.75	3.04	3.22	3.41

(표 V-2-2 계속)

구분	오리엔 테이션, 설명회	전문강사 초청 부모교육	원장/교사 실시한 부모교육	원장/교사 에 의한 부모상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100인 이상	3.41	2.88	3.09	3.25	3.45
t/F	2.55	0.83	0.38	0.90	3.15*

주: 1) 수치가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2) 해당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비실시한 경우는 제외한 응답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상반기에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한 부모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것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 횟수와 부모 참여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92.7%). 개최 횟수와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전문강사 초청의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89.4%가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2순위를 차지했다. 부모상담에 대한 부모 평가는 79.3%로 수치가 가장 낮았다. 부모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는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이 더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내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평가를 더 많이 실시하였다. 원장 또는 교사가 실시한 부모교육 평가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약 60%만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설립유형의 80~90%에 비해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이 평가를 실시한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제외). 경인권과 강원·제주권이 개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대부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원아 수가 20인 이하 소규모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 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 2017년 상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부모 평가 실시 여부

구분	단위 : %(명)				
	오리엔 테이션, 설명회	전문강사 초청 부모교육	원장/교사 실시한 부모교육	원장/교사 에 의한 부모상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전체 (사례수)	88.4 (526)	89.4 (321)	83.3 (466)	79.3 (521)	92.7 (496)
기관유형					
유치원	78.7	82.9	71.8	66.7	88.6
어린이집	93.8	93.1	89.4	86.1	95.0

(표 V-2-3 계속)

구분	오리엔 테이션, 설명회	전문강사 초청 부모교육	원장/교사 실시한 부모교육	원장/교사 에 의한 부모상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chi^2(df)$	26.74(1)***	8.22(1)**	23.72(1)***	27.27(1)***	6.83(1)**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72.9	75.4	59.7	63.0	83.1
사립유치원	84.8	90.0	82.6	70.3	94.3
국공립어린이집	90.8	90.4	87.5	80.0	95.2
민간어린이집	94.3	93.4	89.4	86.8	94.9
법인어린이집	95.6	96.7	92.5	91.1	95.2
$\chi^2(df)$	33.96(4)***	15.59(4)**	39.32(4)***	30.98(4)***	14.91(4)**
기관소재지					
서울	75.0	81.8	64.9	50.6	92.3
경인권	95.5	94.8	91.8	92.9	97.9
충청권	87.1	81.8	89.5	85.5	86.2
전라권	92.1	94.7	89.7	88.5	89.7
경상권	84.1	86.4	79.5	72.1	90.6
강원·제주권	100.0	100.0	86.7	84.4	96.7
$\chi^2(df)$	29.34(5)***	12.30(5)*	29.71(5)**	67.42(5)***	11.79(5)*
재원아 수					
20인 이하	78.8	61.5	57.1	68.8	82.8
21인 이상~50인미만	86.2	89.5	82.0	79.3	91.8
50인 이상~100인미만	89.6	92.8	87.6	80.1	95.8
100인 이상	92.0	88.1	84.5	80.6	91.7
$\chi^2(df)$	5.58(3)	12.45(3)**	16.46(3)**	2.38(3)	7.29(3)

주: 수치는 학부모 자체 평가를 실시했다고 응답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3) 부모의 참여 이유

부모님들의 부모교육에 참여도가 높은 이유를 알아본 겨로가,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라서”가 68.4%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부모님들의 “부모교육 자체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약 15%, “유익한 교육내용” 6.6% 순으로 나왔다(1순위 기준). 강사의 전문성이나 인지도(유명강사)는 부모님들의 참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고 원장들은 판단하고 있었다. 1+2순위 응답 결과도 1순위 응답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앞서 부모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오리엔테이션과 설명회, 부모상담,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가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법인어린이집이 “자녀와 관련된 내

용이어서”를 80.0%로 가장 많이 꼽았고, 국공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은 “부모교육 자체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기관 소재지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왔다.

경상권, 서울은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으나 경인권은 55.4%에 그쳤고 대신, “부모님들의 높은 관심”과 “유익한 교육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원아 수가 적은 기관일수록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를 꼽았고, 재원아 수가 많을수록 “유익한 교육내용” “강사의 전문성” “강사의 인지도”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2-4> 부모교육 참여도가 높은 이유(1순위, 1+2순위)

									단위 : %(명)
구분	자녀와 관련된 내용 이라서	부모님 높은 관심	유익한 교육 내용	강사의 전문성	적극적 홍보	강사의 인지도	기타	계 (사례수)	χ^2 (df)
전체(1순위)	68.4	14.6	6.6	3.2	3.0	3.0	1.1	100.0(528)	
기관유형									
유치원	66.0	17.6	6.9	2.1	1.6	4.8	1.1	100.0(188)	8.10(6)
어린이집	69.7	12.9	6.5	3.8	3.8	2.1	1.2	100.0(340)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7.7	21.9	3.1	1.0	-	5.2	1.0	100.0(96)	31.22(24)
사립유치원	64.1	13.0	10.9	3.3	3.3	4.3	1.1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78.5	6.2	4.6	3.1	4.6	.0	3.1	100.0(65)	
민간어린이집	65.2	15.7	7.8	4.3	3.9	2.2	0.9	100.0(230)	
법인어린이집	80.0	8.9	2.2	2.2	2.2	4.4	-	100.0(45)	
기관 소재지									
서울	77.8	7.4	4.9	-	7.4	-	2.5	100.0(81)	62.64(30)***
경인권	55.4	19.7	14.0	3.8	1.9	5.1	-	100.0(157)	
충청권	69.4	14.5	1.6	6.5	1.6	4.8	1.6	100.0(62)	
전라권	69.8	17.5	1.6	3.2	3.2	3.2	1.6	100.0(63)	
경상권	78.2	12.0	3.0	1.5	3.0	1.5	0.8	100.0(133)	
강원·제주권	62.5	12.5	9.4	9.4	-	3.1	3.1	100.0(32)	
재원아 수									
20인 이하	78.8	12.1	3.0	-	3.0	-	3.0	100.0(33)	17.79(18)
21인 이상~50인 미만	70.4	16.6	4.7	2.4	3.6	1.2	1.2	100.0(169)	
50인 이상~100인 미만	67.2	13.4	7.5	4.0	3.5	3.0	1.5	100.0(201)	
100인 이상	64.8	14.4	8.8	4.0	1.6	6.4	-	100.0(125)	
전체(1+2순위)	86.4	49.8	31.4	13.8	11.0	5.5	2.1	(528)	

*** $p < .001$

이와는 반대로 부모들의 참여도가 낮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유를 알아본 결과, “부모님들의 낮은 관심”을 약 43%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교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31.3%, “진부한 교육내용” 10.2%, “자녀동반의 어려움” 8.7%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 “교육시간”과 “자녀동반의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유치원에 비해 많았고, 유치원은 “진부한 교육내용”을 꼽은 비율이 어린이집에 비해 많았다. 법인어린이집, 서울, 경상권이 참여도가 낮은 이유로 “교육시간”을 1순위로 꼽았다(이상, 1순위 응답 기준). 1+2순위 응답 결과도 1순위 응답 결과와 경향이 동일하였다.

부모님들의 낮은 관심과 더불어,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조사 결과에서 “부모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63.0%)가 가장 많이 나온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표 V-2-5> 부모교육 참여도가 낮은 이유(1순위, 1+2순위)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낮은 관심	교육 시간	진부한 교육 내용	자녀 동반 어려움	홍보 부족	강사 전문성 부족	교육 장소	기 타	계 (사례수)
전체(1순위)	42.6	31.3	10.2	8.7	2.3	1.7	1.1	2.1	100.0(528)
기관유형									
유치원	42.0	29.3	14.4	6.4	1.1	3.2	0.5	3.2	100.0(188)
어린이집	42.9	32.4	7.9	10.0	2.9	0.9	1.5	1.5	100.0(340)
$\chi^2(df)$	15.42(7)*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1.7	28.1	15.6	5.2	1.0	3.1	1.0	4.2	100.0(96)
사립유치원	42.4	30.4	13.0	7.6	1.1	3.3	-	2.2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43.1	29.2	6.2	10.8	4.6	-	4.6	1.5	100.0(65)
민간어린이집	44.3	31.7	9.6	9.1	1.7	0.9	0.9	1.7	100.0(230)
법인어린이집	35.6	40.0	2.2	13.3	6.7	2.2	-	-	100.0(45)
$\chi^2(df)$	35.85(28)								
기관소재지									
서울	27.2	48.1	6.2	11.1	2.5	-	1.2	3.7	100.0(81)
경인권	49.7	10.8	21.7	7.0	1.9	3.2	1.9	3.8	100.0(157)
충청권	56.5	33.9	4.8	-	1.6	-	-	3.2	100.0(62)
전라권	44.4	41.3	1.6	6.3	3.2	1.6	1.6	-	100.0(63)
경상권	36.8	39.8	6.8	10.5	3.0	2.3	0.8	-	100.0(133)
강원·제주권	40.6	28.1	6.3	25.0	-	-	-	-	100.0(32)
$\chi^2(df)$	108.28(35)***								

(표 V-2-5 계속)

구분	부모님 낮은 관심	교육 시간	진부한 교육 내용	자녀 동반 어려움	홍보 부족	강사 전문성 부족	교육 장소	기 타	계 (사례수)
재원아 수									
20人以下	39.4	36.4	15.2	3.0	3.0	-	-	3.0	100.0(33)
21인 이상~50인 미만	39.1	32.5	10.7	10.1	2.4	1.2	1.2	3.0	100.0(169)
50인 이상~100인 미만	47.8	27.4	9.0	7.5	2.5	2.0	2.0	2.0	100.0(201)
100인 이상	40.0	34.4	10.4	10.4	1.6	2.4	-	0.8	100.0(125)
$\chi^2(df)$						13.76(21)			
전체(1+2순위)	64.8	57.4	27.5	23.1	8.9	8.0	4.7	5.7	(528)

* $p < .05$, *** $p < .001$

나. 연간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거의 대부분의 원장은 부모교육의 연간계획을 수립한다고 응답했다. 부모교육의 연간수립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지표이기도 하다. 유치원은 100%로 수립한다고 했고, 어린이집은 0.6%의 극히 소수는 수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서울과 경인권, 원장 총경력이 짧을수록(10년 미만) 수립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소수 나왔다.

<표 V-2-6> 연간 계획 시 부모교육 수립 계획 여부

구분	예	아니오	계(사례수)	$\chi^2(df)$
전체	99.6	0.4	100.0(528)	
기관유형				
유치원	100.0	-	100.0(188)	1.11(1)
어린이집	99.4	0.6	100.0(340)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100.0	-	100.0(96)	3.22(4)
사립유치원	100.0	-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98.5	1.5	100.0(65)	
민간어린이집	99.6	0.4	100.0(230)	
법인어린이집	100.0	-	100.0(45)	
기관소재지				
서울	98.8	1.2	100.0(81)	2.95(5)
경인권	99.4	0.6	100.0(157)	
충청권	100.0	-	100.0(62)	
전라권	100.0	-	100.0(63)	

단위 : %(명)

(표 V-2-6 계속)

구분	예	아니오	계(사례수)	χ^2 (df)
경상권	100.0	-	100.0(133)	2.95(5)
강원·제주권	100.0	-	100.0(32)	
재원아 수				
20인 이하	100.0	-	100.0(33)	4.27(3)
21인 이상~50인 미만	98.8	1.2	100.0(169)	
50인 이상~100인 미만	100.0	-	100.0(201)	
100인이상	100.0	-	100.0(125)	
원장 총경력				
5년미만	98.8	1.2	100.0(82)	3.90(4)
5년이상~10년 미만	99.0	1.0	100.0(99)	
10년이상~15년 미만	100.0	-	100.0(123)	
15년이상~20년 미만	100.0	-	100.0(98)	
20년이상	100.0	-	100.0(126)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에 수립할 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선정할 지에 대한 선정 방식을 알아보았다. 결과, “교사회의에서 결정” 약 40%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도 37.1%로 높게 나왔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은 약 13%, “교육부 또는 지자체의 권고 프로그램으로 결정”은 약 6% 정도에 그쳤다. 기관 자체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변인별로 선정 기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은 “학부모의 의견 반영”이 약 49%로 가장 많았지만, 어린이집은 “교사회의에서 결정”이 약 42%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16.2%로 유치원 6.9%에 비해 많았다. 법인어린이집은 “학부모의 의견 반영”이 1순위였다. 서울, 경인권, 전라권, 강원·제주권은 교사회의에서 주로 결정하지만, 충청권과 경상권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재원아 수가 20인 이하와 100인 이상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0인 이하의 경우 “교육부 또는 지자체 권고 프로그램”을 반영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원장 총경력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V-2-7> 연간 계획 시 부모교육 프로그램 선정 방식

단위 : %(명)

구분	교사회의 에서 결정	학부모 의견 반영해서 결정	운영위원 회에서 결정	교육부/ 지자체 권고를 수용해서 결정	원장 단독 으로 결정	기 타	계 (사례수)
전체	39.8	37.1	12.9	5.9	3.0	1.3	100.0(528)
기관 유형							
유치원	35.6	48.9	6.9	4.8	1.6	2.1	100.0(188)
어린이집	42.1	30.6	16.2	6.5	3.8	0.9	100.0(340)
$\chi^2(df)$	24.28(5)***						
설립 유형							
국공립유치원	37.5	50.0	4.2	5.2	-	3.1	100.0(96)
사립유치원	33.7	47.8	9.8	4.3	3.3	1.1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47.7	33.8	9.2	4.6	3.1	1.5	100.0(65)
민간어린이집	41.3	27.8	19.6	6.5	4.3	0.4	100.0(230)
법인어린이집	37.8	40.0	8.9	8.9	2.2	2.2	100.0(45)
$\chi^2(df)$	40.38(20)**						
기관 소재지							
서울	54.3	30.9	8.6	4.9	-	1.2	100.0(81)
경인권	36.3	33.8	19.1	5.7	3.2	1.9	100.0(157)
충청권	24.2	45.2	12.9	11.3	6.5	-	100.0(62)
전라권	47.6	36.5	4.8	4.8	1.6	4.8	100.0(63)
경상권	36.8	42.9	12.8	4.5	3.0	-	100.0(133)
강원·제주권	46.9	31.3	9.4	6.3	6.3	-	100.0(32)
$\chi^2(df)$	42.73(25)*						
재원아 수							
20인이하	36.4	39.4	9.1	12.1	3.0	-	100.0(33)
21인이상~50인 미만	39.1	32.0	14.8	8.3	3.6	2.4	100.0(169)
50인이상~100인 미만	43.3	36.3	10.9	6.0	3.0	0.5	100.0(201)
100인이상	36.0	44.8	14.4	0.8	2.4	1.6	100.0(125)
$\chi^2(df)$	18.72(15)						
원장 총경력							
5년미만	40.2	40.2	8.5	8.5	-	2.4	100.0(82)
5년이상~10년미만	36.4	46.5	9.1	7.1	1.0	-	100.0(99)
10년이상~15년미만	45.5	27.6	14.6	6.5	5.7	-	100.0(123)
15년이상~20년미만	38.8	37.8	16.3	3.1	3.1	1.0	100.0(98)
20년이상	37.3	36.5	14.3	4.8	4.0	3.2	100.0(126)
$\chi^2(df)$	27.76(20)						

* $p < .05$, ** $p < .01$, *** $p < .001$

다. 부모교육 운영의 어려운 점

부모교육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예산부족” “교육시간”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강사초빙” 순으로 나왔다. 유치원은 “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를 어린이집은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유치원은 “강사초빙”의 문제를 2순위로 많이 꼽았다. 유치원 내에서도 국공립유치원이 “강사초빙”의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 사립유치원은 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를 가장 많이 꼽았고, 법인어린이집은 예산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실시시간과 콘텐츠 개발이 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보다 어려움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설립유형에 따라 부모교육 운영의 어려움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권, 강원·제주권은 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를 가장 많이 꼽았다면, 서울,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은 예산을 운영의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특히, 전라권과 서울은 강사초빙의 어려움을, 경상권은 실시시간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재원아 수가 적은 기관의 경우 예산을 꼽은 비율이 높게 나왔고, 많을수록 콘텐츠 개발과 강사초빙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다. 원장 총경력이 적을수록 부모들의 저조한 참여를, 경력이 많을수록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이상, 1순위 응답 기준임).

1+2순위 결과도 1순위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예산과 실시시간의 응답비율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즉, 부모교육 실시시간의 어려움을 2순위로 꼽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8> 부모교육 운영의 어려움(1순위, 1+2순위)

단위 : %(명)

구분	부모들의 저조한 참여	예 산	부모교 육실시 시간	부모교 육컨텐 츠개발	강사 초빙	부모교 육실시 장소	기타	계 (사례수)
전체(1순위)	37.5	21.0	13.8	12.1	11.4	3.2	0.9	100.0(528)
기관유형								
유치원	40.4	13.3	12.2	13.3	17.0	2.1	1.6	100.0(188)
어린이집	35.9	25.3	14.7	11.5	8.2	3.8	0.6	100.0(340)
$\chi^2(df)$				20.43(6)**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2.3	13.5	12.5	15.6	20.8	2.1	3.1	100.0(96)
사립유치원	48.9	13.0	12.0	10.9	13.0	2.2	-	100.0(92)

(표 V-2-8 계속)

구분	부모들의 저조한 참여	예 산	부모교 육실시 시간	부모교 육컨텐 츠개발	강사 초빙	부모교 육실시 장소	기타	계 (사례수)
국공립어린이집	33.8	20.0	13.8	18.5	7.7	4.6	1.5	100.0(65)
민간어린이집	40.0	27.0	13.5	7.4	7.4	4.3	0.4	100.0(230)
법인어린이집	17.8	24.4	22.2	22.2	13.3	-	-	100.0(45)
$\chi^2(df)$								54.95(24)***
기관소재지								
서울	34.6	19.8	12.3	6.2	16.0	9.9	1.2	100.0(81)
경인권	51.6	12.7	8.3	13.4	9.6	3.8	0.6	100.0(157)
충청권	29.0	33.9	8.1	14.5	11.3	-	3.2	100.0(62)
전라권	25.4	23.8	11.1	15.9	20.6	1.6	1.6	100.0(63)
경상권	29.3	24.8	24.8	12.8	8.3	-	-	100.0(133)
강원·제주권	50.0	18.8	15.6	6.3	3.1	6.3	-	100.0(32)
$\chi^2(df)$								3.13(30)***
재원아 수								
20인 이하	36.4	30.3	9.1	6.1	9.1	-	9.1	100.0(33)
21인 이상~50인 미만	30.2	26.6	17.8	10.7	10.1	4.1	0.6	100.0(169)
50인 이상~100인 미만	40.3	20.9	11.9	12.9	10.4	3.5	-	100.0(201)
100인 이상	43.2	11.2	12.8	14.4	15.2	2.4	0.8	100.0(125)
$\chi^2(df)$								47.78(18)***
원장 총경력								
5년미만	43.9	11.0	8.5	19.5	17.1	-	-	100.0(82)
5년이상~10년미만	41.4	21.2	14.1	7.1	11.1	4.0	1.0	100.0(99)
10년이상~15년미만	38.2	24.4	17.1	7.3	8.9	4.1	-	100.0(123)
15년이상~20년미만	32.7	20.4	14.3	11.2	13.3	7.1	1.0	100.0(98)
20년이상	33.3	24.6	13.5	16.7	8.7	0.8	2.4	100.0(126)
$\chi^2(df)$								39.74(24)*
전체(1+2순위)	57.8	39.4	36.6	29.4	25.4	8.5	3.0	(528)

* $p < .05$, ** $p < .01$, *** $p < .001$

3.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가. 운영위원

1) 운영위원 구성 현황

2017년에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의 인원수는 평균 7.07명으로 집계되었다. 5~6명 구성 32.4%, 7~8명 구성 31.3%로 주를 이루었다. 유치원은 평균 6.81명, 어린

이집은 평균 7.21명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5명 이상~11명 이내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인원수의 범위는 없고 학부모 대표가 1/2이상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유치원의 평균 인원은 6명 이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명 미만이 약 32%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의 운영이 원칙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린이집⁹⁾과 유치원¹⁰⁾은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국공립유치원의 운영위원 수가 5.11명으로 가장 적고, 5명 미만도 62.5%로 가장 많은데, 이는 소규모 학급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많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수가 평균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경인권의 운영위원수가 많고, 충청권이 6.58명으로 가장 적었다. 재원아 수가 적을수록 또는 많을수록 운영위원수가 그에 비례했다.

<표 V-3-1>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구분	단위 : %, 명, (명)						계 (사례수)	t/F
	5명 미만	5~6 명	7~8 명	9~10 명	11명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1	32.4	31.3	16.7	7.6	7.07(2.33)	100.0(528)	
기관유형								
유치원	31.9	19.1	11.2	24.5	13.3	6.81(3.23)	100.0(188)	3.70
어린이집	1.2	39.7	42.4	12.4	4.4	7.21(1.62)	100.0(340)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2.5	12.5	7.3	9.4	8.3	5.11(3.01)	100.0(96)	
사립유치원	-	26.1	15.2	40.2	18.5	8.58(2.41)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1.5	30.8	47.7	16.9	3.1	7.37(1.50)	100.0(65)	33.70***
민간어린이집	1.3	40.4	42.2	11.3	4.8	7.19(1.62)	100.0(230)	
법인어린이집	-	48.9	35.6	11.1	4.4	7.13(1.77)	100.0(45)	
기관소재지								
서울	3.7	34.6	35.8	14.8	11.1	7.51(2.50)	100.0(81)	2.27*
경인권	10.2	29.9	29.9	22.9	7.0	7.35(2.28)	100.0(157)	
충청권	14.5	35.5	37.1	11.3	1.6	6.58(1.94)	100.0(62)	
전라권	14.3	25.4	34.9	20.6	4.8	6.95(2.22)	100.0(63)	
경상권	14.3	37.6	24.1	12.8	11.3	6.92(2.44)	100.0(133)	
강원·제주권	25.0	25.0	37.5	9.4	3.1	6.41(2.27)	100.0(32)	

9)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됨.

10) 국공립유치원과 정원 20인 이상 사립유치원이 해당됨.

(표 V-3-1 계속)

구분	5명 미만	5~6 명	7~8 명	9~10 명	11명 이상	평균 (표준편차)	계 (사례수)	t/F
재원아 수								
20인이하	48.5	39.4	9.1	3.0	-	4.85(1.50)	100.0(33)	64.29***
21인이상~50인미만	14.8	50.9	26.0	4.1	4.1	6.20(1.91)	100.0(169)	
50인이상~100인미만	10.4	31.3	40.8	12.9	4.5	6.96(2.03)	100.0(201)	
100인이상	1.6	7.2	28.8	43.2	19.2	9.02(2.16)	100.0(125)	

* $p < .05$, ** $p < .01$, *** $p < .00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원장, 교사,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 평균 7.07명을 기준으로 보면, 이 중 학부모 대표가 3.63명으로 가장 많고, 교사 1.62명, 원장 1.0명 순이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학부모 대표가 1/2이상이어야 한다.

<표 V-3-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 현황

구분	원장	교사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기타	전체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1.00(-)	1.62(1.05)	3.63(1.68)	0.77(0.56)	0.05(0.33)	7.07(2.33)	(528)

주: 기타는 간사, 원감(부원장), 고문, 대표자, 이사장 등임.

2) 학부모 대표 선정 방법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부모를 학부모 대표로 선정한 방법을 알아보았다. “학부모의 자원”이 40.3%로 가장 많았고, “반(학급) 대표 학부모 중에서 추천(또는 투표)” 22.2%, “학부모들의 추천” 13.1%, “반(학급) 대표 학부모 중에서 자원” 11.7% 순이다. 학부모의 자원으로 유목화할 수 있는 “학부모 자원”과 “반(학급) 학부모 대표 중 자원”을 합치면, 약 52%로 절반 이상이다. 즉, 운영위원의 학부모 대표는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은 “학부모의 자원” 비율이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반(학급) 대표 학부모 중에서 추천(또는 투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충청권과 전라권이 학부모 자원 비율이 높았고, 경인권은 “반(학급) 대표 학부모 중에서 추천(또는 투표)”로 뽑는 경우가 1순위로 가장 많이 나왔다. 서울과 경상권은 기관에서 임명(지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재원아 수에 따

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3> 학부모 대표 선정 방법

단위 : %(명)

구분	반(학급)		반(학급)		기관 에서 임명 (지정)	순번 으로	기 타	계 (사례수)
	학부모 자원	대표 학부모 중 추천(투표)	학부모 추천	대표 중 자원				
전체	40.3	22.2	13.1	11.7	9.3	0.4	3.0	100.0(528)
기관유형								
유치원	41.5	26.1	13.3	9.0	6.9	0.5	2.7	100.0(188)
어린이집	39.7	20.0	12.9	13.2	10.6	0.3	3.2	100.0(340)
$\chi^2(df)$	6.00(6)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7.5	32.3	9.4	11.5	3.1	1.0	5.2	100.0(96)
사립유치원	45.7	19.6	17.4	6.5	10.9	-	-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46.2	21.5	7.7	13.8	7.7	-	3.1	100.0(65)
민간어린이집	37.4	19.1	16.1	12.2	12.2	-	3.0	100.0(230)
법인어린이집	42.2	22.2	4.4	17.8	6.7	2.2	4.4	100.0(45)
$\chi^2(df)$	37.30(24)*							
기관소재지								
서울	34.6	13.6	11.1	13.6	17.3	-	9.9	100.0(81)
경인권	32.5	38.9	1.3	19.7	3.8	-	3.8	100.0(157)
충청권	51.6	14.5	24.2	4.8	4.8	-	-	100.0(62)
전라권	60.3	7.9	15.9	9.5	4.8	-	1.6	100.0(63)
경상권	35.3	17.3	21.1	7.5	16.5	1.5	0.8	100.0(133)
강원·제주권	53.1	25.0	15.6	3.1	3.1	-	-	100.0(32)
$\chi^2(df)$	136.76(30)***							
재원아 수								
20인이하	39.4	18.2	15.2	9.1	12.1	-	6.1	100.0(33)
21인이상~50인미만	32.0	21.9	11.8	16.0	13.6	1.2	3.6	100.0(169)
50인이상~100인미만	42.8	22.9	14.9	8.0	8.0	-	3.5	100.0(201)
100인이상	48.0	22.4	11.2	12.8	4.8	-	0.8	100.0(125)
$\chi^2(df)$	26.25(18)							

* $p < .05$, *** $p < .001$

3) 학부모 대표 선정 시 어려운 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다. 앞서 분석한 결과에서 “학부모의 자원”이 많이 때문에, 선정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원하는 학부모님이 없어서

선정의 어려움이 많았다(보기 문항 ②)“가 2순위로 나왔다. “선정의 어려움이 있다”로 유목화할 수 있는 보기 문항 ②와 ③(“새롭게 자원하는 학부모님이 없어서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다”)을 합치면, 약 38%가 학부모 대표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부모 대표를 선정하는 기관 자체적인 기준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 선정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이 선정의 어려움이 가장 없으며 법인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학부모 대표 선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상권도 서울에 비해 응답비율은 낮지만, 선정이 어려움이 있다가 1순위로 나왔다. 충청권, 전라권, 경인권이 선정의 어려움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인권은 “새롭게 자원하는 학부모님이 없어서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다”(21.0%)으로 높게 나왔고, 강원·제주권은 “구성하는 원칙(예: 학부모대표, 순번 등)이 있어서 선정의 어려움이 없었다”(25.0%)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재원아 수가 많을수록 선정의 어려움이 없고, 적을수록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기타의견으로는 학부모 대표가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학부모 대표를 선정하지 않는 기관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원하는 부모님이 대부분 대표로 선정된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표 V-3-4> 학부모 대표 선정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사례수)	$\chi^2(df)$
전체	44.1	28.2	10.2	6.6	2.8	8.0	100.0(528)	
기관유형								
유치원	45.7	31.4	5.3	4.8	2.1	10.6	100.0(188)	12.75(5)*
어린이집	43.2	26.5	12.9	7.6	3.2	6.5	100.0(340)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8.5	34.4	4.2	6.3	2.1	14.6	100.0(96)	30.74(20)
사립유치원	53.3	28.3	6.5	3.3	2.2	6.5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38.5	30.8	12.3	9.2	4.6	4.6	100.0(65)	
민간어린이집	46.1	23.9	14.3	6.5	2.2	7.0	100.0(230)	
법인어린이집	35.6	33.3	6.7	11.1	6.7	6.7	100.0(45)	

(표 V-3-4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사례수)	χ^2 (df)
기관소재지								
서울	18.5	49.4	14.8	8.6	3.7	4.9	100.0(81)	
경인권	52.2	17.8	21.0	1.3	-	7.6	100.0(157)	142.34(25)***
충청권	67.7	12.9	4.8	1.6	1.6	11.3	100.0(62)	
전라권	52.4	25.4	1.6	7.9	-	12.7	100.0(63)	
경상권	34.6	37.6	3.0	9.0	8.3	7.5	100.0(133)	
강원·제주권	46.9	21.9	3.1	25.0	-	3.1	100.0(32)	
재원아 수								
20인이하	24.2	51.5	9.1	6.1	3.0	6.1	100.0(33)	
21인이상~50인미만	39.6	32.0	10.7	5.3	3.6	8.9	100.0(169)	17.92(15)
50인이상~100인미만	47.3	25.4	10.9	7.5	2.5	6.5	100.0(201)	
100인이상	50.4	21.6	8.8	7.2	2.4	9.6	100.0(125)	

- 주: ① 자원하는 학부모님이 많아서 선정의 어려움이 없었다
 ② 자원하는 학부모님이 없어서 선정의 어려움이 많았다
 ③ 새로운 학부모님으로 구성하고 싶었으나, 새롭게 자원하는 학부모님이 없어서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④ 구성하는 원칙(예: 학부모대표, 순번 등)이 있어서 선정의 어려움이 없었다
 ⑤ 구성하는 원칙(예: 학부모대표, 순번 등)이 없어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⑥ 기타

* $p < .05$, *** $p < .001$

나. 활성화 정도

1) 2017년 상반기 개최 횟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올해 상반기(1월~6월)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를 알아본 결과, 평균 2.33회로 집계되었다. 석 달에 한번 꼴로 개최되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분기별 1회 이상(연간 4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이 2.47회, 어린이집 2.25회로 유치원의 개최 횟수가 더 많았다. 국공립유치원이 2.52회로 가장 많이 개최하였고, 법인어린이집이 2.24회로 가장 적었다.

서울이 2.10회로 가장 적고, 경인권이 2.64회로 가장 많았다. 재원아 수가 20인 이하가 2.45회로 가장 많았고, 21인 이상~50인 미만이 2.28회로 가장 적었다.

<표 V-3-5>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구분							단위 : 회, %(명)		t/F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평균 (표준편차)	계 (사례수)	
전체	2.3	70.3	22.3	3.0	1.3	0.8	2.33(0.71)	100.0(528)	
기관유형									
유치원	4.8	53.2	36.7	2.1	1.6	1.6	2.47(0.82)	100.0(188)	12.04**
어린이집	0.9	79.7	14.4	3.5	1.2	0.3	2.25(0.62)	100.0(340)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2	47.9	40.6	3.1	2.1	1.0	2.52(0.82)	100.0(96)	3.43**
사립유치원	4.3	58.7	32.6	1.1	1.1	2.2	2.42(0.83)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1.5	70.8	23.1	3.1	1.5	-	2.32(0.64)	100.0(65)	
민간어린이집	0.4	82.2	12.2	3.9	1.3	-	2.23(0.59)	100.0(230)	
법인어린이집	2.2	80.0	13.3	2.2	-	2.2	2.24(0.74)	100.0(45)	
기관소재지									
서울	2.5	86.4	9.9	1.2	-	-	2.10(0.41)	100.0(81)	11.28***
경인권	1.9	49.0	38.9	4.5	4.5	1.3	2.64(0.88)	100.0(157)	
충청권	-	77.4	19.4	3.2	-	-	2.26(0.51)	100.0(62)	
전라권	3.2	76.2	19.0	1.6	-	-	2.19(0.50)	100.0(63)	
경상권	3.0	72.9	18.8	3.8	-	1.5	2.29(0.73)	100.0(133)	
강원·제주권	3.1	96.9	-	-	-	-	1.97(0.18)	100.0(32)	
재원아 수									
20인 이하	6.1	48.5	39.4	6.1	-	-	2.45(0.71)	100.0(33)	0.82
21인 이상~50인 미만	3.0	75.1	16.0	3.6	1.8	0.6	2.28(0.72)	100.0(169)	
50인 이상~100인 미만	1.0	73.1	20.9	3.0	1.0	1.0	2.33(0.69)	100.0(201)	
100인 이상	2.4	64.8	28.8	1.6	1.6	0.8	2.38(0.71)	100.0(125)	

** $p < .01$, *** $p < .001$

2) 2017년 상반기 학부모 대표 참여 정도

올해 상반기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대표의 참여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대표가 참석한 경우가 없음”은 단 한 사례도 없었다. 4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58점으로 집계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참여 정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국공립유치원의 참여도가 3.61점으로 가장 높고, 법인어린이집이 3.45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충청권이 3.37점으로 낮고, 경인권이 3.71점으로 가장 높았다. 기관소재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아 수가 적은 기관의 학부모 대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V-3-6>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참여 정도

단위 : %,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낮음	높음	평균 (표준편차)	계 (사례수)	t/F
전체	-	0.2	3.4	40.3	56.1	0.2	96.4	3.58(0.51)	100.0(528)	
기관유형										
유치원	-	0.5	3.2	37.8	58.5	0.5	96.3	3.59(0.53)	100.0(188)	0.32
어린이집	-	-	3.5	41.8	54.7	-	96.5	3.57(0.50)	100.0(340)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	1.0	2.1	35.4	61.5	1.0	96.9	3.61(0.55)	100.0(96)	0.75
사립유치원	-	-	4.3	40.2	55.4	-	95.7	3.58(0.50)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	-	6.2	40.0	53.8	-	93.8	3.57(0.50)	100.0(65)	
민간어린이집	-	-	3.0	40.0	57.0	-	97.0	3.59(0.49)	100.0(230)	
법인어린이집	-	-	2.2	53.3	44.4	-	97.8	3.45(0.50)	100.0(45)	
기관소재지										
서울	-	-	6.2	40.7	53.1	-	93.8	3.57(0.50)	100.0(81)	5.82***
경인권	-	-	1.9	28.7	69.4	-	98.1	3.71(0.46)	100.0(157)	
충청권	-	-	3.2	61.3	35.5	-	96.8	3.37(0.49)	100.0(62)	
전라권	-	1.6	3.2	52.4	42.9	1.6	95.2	3.41(0.59)	100.0(63)	
경상권	-	-	4.5	37.6	57.9	-	95.5	3.61(0.49)	100.0(133)	
강원·제주권	-	-	-	43.8	56.3	-	100.0	3.56(0.50)	100.0(32)	
재원아 수										
20인이하	-	3.0	-	27.3	69.7	3.0	97.0	3.64(0.65)	100.0(33)	0.88
21인이상~50인미만	-	-	4.7	37.9	57.4	-	95.3	3.60(0.49)	100.0(169)	
50인이상~100인미만	-	-	3.5	40.3	56.2	-	96.5	3.58(0.49)	100.0(201)	
100인 이상	-	-	2.4	47.2	50.4	-	97.6	3.52(0.50)	100.0(125)	

주: 1) ① 학부모 대표가 참석한 경우가 없음
 ② 대회 학부모 대표는 거의 참석하지 않음
 ③ 대회 학부모 대표의 절반 정도만 참석함
 ④ 대회 학부모 대표 대부분이 참석함
 ⑤ 대회 학부모 대표 전원이 참석함
 2) 평균 점수는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p < .001$

다.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운 점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는 “개최일정 조정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경인권, 21인 이상~50인 미만, 50인 이상에서 개최일정 조정의 어려움을 지적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기타의견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

답한 비율이 기타의견 비율 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운영위원회가 협조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다만 맞벌이가정의 부모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나타내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적인 특성으로 지역인사의 부적절성과 지역인사의 일정조정의 어려움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3-7>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개최일정 조정의 어려움	학부모의 낮은 관심	운영위원 선정의 어려움	운영 경험 부족	기타	계 (사례수)
전체	53.8	11.4	9.8	5.5	19.5	100.0(528)
기관 유형						
유치원	42.6	11.2	9.6	9.0	27.7	100.0(188)
어린이집	60.0	11.5	10.0	3.5	15.0	100.0(340)
$\chi^2(df)$	23.53(4)***					
설립 유형						
국공립유치원	37.5	13.5	10.4	10.4	28.1	100.0(96)
사립유치원	47.8	8.7	8.7	7.6	27.2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49.2	18.5	12.3	4.6	15.4	100.0(65)
민간어린이집	63.9	10.0	9.1	3.0	13.9	100.0(230)
법인어린이집	55.6	8.9	11.1	4.4	20.0	100.0(45)
$\chi^2(df)$	33.60(16)**					
기관소재지						
서울	43.2	21.0	16.0	6.2	13.6	100.0(81)
경인권	63.1	4.5	8.9	5.7	17.8	100.0(157)
충청권	48.4	8.1	3.2	8.1	32.3	100.0(62)
전라권	47.6	12.7	6.3	1.6	31.7	100.0(63)
경상권	54.9	14.3	12.0	6.8	12.0	100.0(133)
강원·제주권	53.1	12.5	9.4	-	25.0	100.0(32)
$\chi^2(df)$	48.15(20)***					
재원아 수						
20인 이하	45.5	15.2	6.1	6.1	27.3	100.0(33)
21인 이상~50인 미만	57.4	10.7	10.1	7.1	14.8	100.0(169)
50인 이상~100인미만	50.7	13.9	10.4	4.5	20.4	100.0(201)
100인 이상	56.0	7.2	9.6	4.8	22.4	100.0(125)
$\chi^2(df)$	10.29(12)					
원장 총 경력						
5년 미만	50.0	14.6	8.5	7.3	19.5	100.0(82)
5년 이상 10년 미만	56.6	9.1	12.1	6.1	16.2	100.0(99)

(표 V-3-7 계속)

구분	개최일정 조정 의 어려움	학부모 의 낮은 관심	운영위원 선정의 어려움	운영 경험 부족	기타	계 (사례수)
원장 총 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	55.3	14.6	9.8	8.1	12.2	100.0(123)
15년 이상 20년 미만	55.1	11.2	10.2	2.0	21.4	100.0(98)
20년 이상	51.6	7.9	8.7	4.0	27.8	100.0(126)
$\chi^2(df)$						18.39(16)

** $p < .01$, *** $p < .001$

4. 부모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

가. 부모교육의 필요성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대상으로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필요성 정도를 알아본 결과, “반드시 필요하다” 83.1% “대체로 필요하다” 16.3%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100% 가까이 나왔다. 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의견이 센터장과 거의 동일하게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4점 척도를 환산하면 3.83점으로 집계되었다. 변인별로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가운데, 법인어린이집 원장이 3.96점으로 가장 높고, 국공립유치원 원장이 3.77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강원·제주권, 경상권, 전라권이 3.9점 이상으로 높았고, 경인권이 3.68점, 서울 3.7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소개지 변인은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재원아 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원장 총경력이 많을수록 대체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V-4-1>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필요성 정도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음		별로 필요 대체로 반드시 필요		불필 필 요		평균 (표준 편차)	계 (사례수)	t/F
전체	-	0.6	16.3	83.1	0.6	99.4	3.83(0.39)	100.0(528)	

단위 : %, 점, (명)

(표 V-41 계속)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음	별로 필요 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	반드시 필요	불필 요	필 요	평균 (표준 편차)	계 (사례수)	t/F
기관유형									
유치원	-	0.5	16.5	83.0	0.5	99.5	3.82(0.40)	100.0(188)	0.003
어린이집	-	0.6	16.2	83.2	0.6	99.4	3.83(0.39)	100.0(340)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	1.0	20.8	78.1	1.0	99.0	3.77(0.45)	100.0(96)	2.33
사립유치원	-	-	12.0	88.0	-	100.0	3.88(0.33)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	-	20.0	80.0	-	100.0	3.80(0.40)	100.0(65)	
민간어린이집	-	0.9	17.4	81.7	0.9	99.1	3.81(0.42)	100.0(230)	
법인어린이집	-	-	4.4	95.6	-	100.0	3.96(0.21)	100.0(45)	
기관소재지									
서울	-	1.2	21.0	77.8	1.2	98.8	3.77(0.45)	100.0(81)	8.65***
경인권	-	1.3	29.3	69.4	1.3	98.7	3.68(0.49)	100.0(157)	
충청권	-	-	11.3	88.7	-	100.0	3.89(0.32)	100.0(62)	
전라권	-	-	7.9	92.1	-	100.0	3.92(0.27)	100.0(63)	
경상권	-	-	6.8	93.2	-	100.0	3.93(0.25)	100.0(133)	
강원·제주권	-	-	6.3	93.8	-	100.0	3.94(0.25)	100.0(32)	
재원아 수									
20인이하	-	-	18.2	81.8	-	100.0	3.82(0.39)	100.0(33)	0.18
21인이상~50인미만	-	0.6	17.2	82.2	0.6	99.4	3.82(0.40)	100.0(169)	
50인이상~100인미만	-	0.5	16.9	82.6	0.5	99.5	3.82(0.40)	100.0(201)	
100인이상	-	0.8	13.6	85.6	0.8	99.2	3.85(0.38)	100.0(125)	
원장 총경력									
5년미만	-	1.2	19.5	79.3	1.2	98.8	3.78(0.45)	100.0(82)	1.41
5년이상~10년미만	-	-	21.2	78.8	-	100.0	3.79(0.41)	100.0(99)	
10년이상~15년미만	-	0.8	17.1	82.1	0.8	99.2	3.81(0.41)	100.0(123)	
15년이상~20년미만	-	-	10.2	89.8	-	100.0	3.90(0.30)	100.0(98)	
20년이상	-	0.8	14.3	84.9	0.8	99.2	3.84(0.39)	100.0(126)	

주: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p < .001$

나.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보기 문항 ①)”가 6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보기 문항 ②)”는 의견이 13.8%,

의무화보다는 부모가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기 문항 ③)”가 10.6% 순으로 나왔다.

의무화가 타당하다로 유목화할 수 있는 보기 문항 ①과 보기 문항 ④(“교육 효과가 크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를 합치면 71.0%로 대부분의 원장은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의무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유목화할 수 있는 보기 문항 ②, ③, ⑤, ⑥을 합치면 28.4%이다.

변인별로 전체 응답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충청권, 재원아수 100인 이상, 원장 총경력 5년이상~10년 미만이 보기 문항 ①을 꼽은 경우가 많았다.

<표 V-4-2>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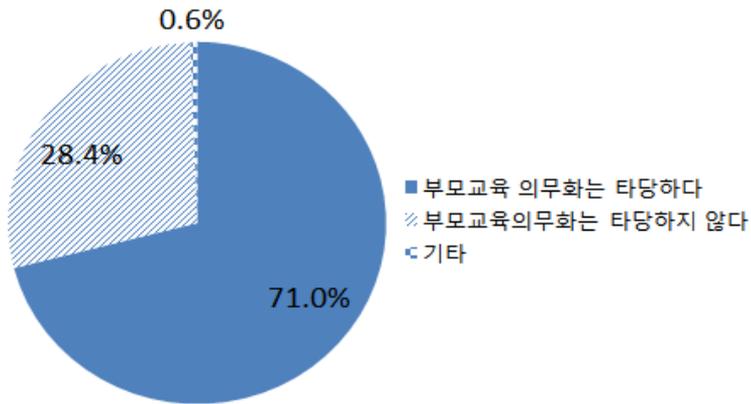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단위 : %(명) 계(사례수)
전체	64.4	13.8	10.6	6.6	2.1	1.9	0.6	100.0(528)
기관 유형								
유치원	62.2	14.4	10.1	8.0	1.1	3.2	1.1	100.0(188)
어린이집	65.6	13.5	10.9	5.9	2.6	1.2	0.3	100.0(340)
$\chi^2(df)$	6.46(6)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7.3	19.8	11.5	6.3	-	3.1	2.1	100.0(96)
사립유치원	67.4	8.7	8.7	9.8	2.2	3.3	-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73.8	7.7	13.8	4.6	-	-	-	100.0(65)
민간어린이집	66.5	11.7	9.6	6.5	3.5	1.7	0.4	100.0(230)
법인어린이집	48.9	31.1	13.3	4.4	2.2	-	-	100.0(45)
$\chi^2(df)$	38.16(24)*							
기관소재지								
서울	50.6	23.5	7.4	16.0	1.2	-	1.2	100.0(81)
경인권	60.5	15.9	15.9	3.2	2.5	1.9	-	100.0(157)
충청권	82.3	8.1	3.2	3.2	-	3.2	-	100.0(62)
전라권	77.8	3.2	6.3	4.8	1.6	3.2	3.2	100.0(63)
경상권	63.2	10.5	11.3	9.0	3.8	2.3	-	100.0(133)
강원·제주권	62.5	25.0	12.5	-	-	-	-	100.0(32)
$\chi^2(df)$	69.87(30)***							
재원아 수								
20인이하	57.6	18.2	9.1	6.1	3.0	-	6.1	100.0(33)
21인이상~50인미만	62.1	16.0	10.1	7.1	3.0	1.8	-	100.0(169)
50인이상~100인미만	64.2	14.4	11.4	6.5	1.0	2.0	0.5	100.0(201)
100인이상	69.6	8.8	10.4	6.4	2.4	2.4	-	100.0(125)
$\chi^2(df)$	26.59(18)							

(표 V-42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사례수)
원장 총경력								
5년미만	68.3	12.2	8.5	6.1	1.2	3.7	-	100.0(82)
5년이상~10년미만	71.7	11.1	10.1	2.0	3.0	1.0	1.0	100.0(99)
10년이상~15년미만	58.5	17.9	10.6	8.9	1.6	2.4	-	100.0(123)
15년이상~20년미만	61.2	12.2	15.3	7.1	2.0	2.0	-	100.0(98)
20년이상	64.3	14.3	8.7	7.9	2.4	0.8	1.6	100.0(126)
$\chi^2(df)$	19.58(24)							

- 주: ①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② 맞벌이 가정 등 직장일로 바쁜 부모들을 고려하면,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③ 부모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교육의 효과가 크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⑤ 영유아 교육·보육이 의무가 아니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⑥ 교육의 효과가 적으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⑦ 기타

* $p < .05$, *** $p < .001$



[그림 V-4-1]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원장대상)

다. 부모교육 커리큘럼 표준화에 대한 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클로버교육”과 같이 전국 공용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표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결과, 절반 이상인 54.0%의 원장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강사 수준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교육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보기 문항 ②)” 28.0%,

“부모의 다양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보기 문항 ③)” 15.2% 순으로 나왔다. 표준화에 대해 회의적인 응답으로 유목화할 수 있는 보기 문항 ②, ③을 합치면 43.2%로 적지 않은 수치이다.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원장이 표준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표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장 많이 취했고 (63.5%), 국공립유치원 원장이 보기 문항 ①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다 (45.8%). 유치원 원장은 강사에 따라 부모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 어린이집 원장에 비해 더 많았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부모의 다양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27.7%). 충청권, 전라권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압도적 많은 반면, 서울과 경인권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0% 전후에 그쳤다. 서울은 “다양성 배제로 바람직하지 않다”이 약 30% 가까이 나왔고, 경인권은 보기 문항 ②(부모교육을 표준화해도 강사 수준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교육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가 45.2%로 1순위로 나왔다. 지역에 따라 부모교육 표준화에 대한 의견이 유의미하게 달랐다. 재원아 수, 원장 총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V-4-3> 부모교육 커리큘럼 표준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사례수)	$\chi^2(df)$	
전체	54.0	28.0	15.2	2.8	100.0(528)		
기관유형							
유치원	46.3	31.4	17.6	4.8	100.0(188)	9.38(3)*	
어린이집	58.2	26.2	13.8	1.8	100.0(340)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5.8	31.3	17.7	5.2	100.0(96)	26.78(12)**	
사립유치원	46.7	31.5	17.4	4.3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46.2	24.6	27.7	1.5	100.0(65)		
민간어린이집	63.5	24.3	10.0	2.2	100.0(230)		
법인어린이집	48.9	37.8	13.3	-	100.0(45)		
기관 소재지							
서울	38.3	28.4	29.6	3.7	100.0(81)	72.12(15)***	
경인권	40.8	45.2	12.1	1.9	100.0(157)		
충청권	79.0	8.1	12.9	-	100.0(62)		
전라권	71.4	14.3	7.9	6.3	100.0(63)		
경상권	58.6	24.1	13.5	3.8	100.0(133)		
강원·제주권	56.3	25.0	18.8	-	100.0(32)		

(표 V-43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계(사례수)	χ^2 (df)
재원아 수						
20인이하	42.4	36.4	12.1	9.1	100.0(33)	9.39(9)
21인이상~50인 미만	56.2	26.0	14.2	3.6	100.0(169)	
50인이상~100인 미만	53.2	27.9	16.4	2.5	100.0(201)	
100인이상	55.2	28.8	15.2	0.8	100.0(125)	
원장 총경력						
5년미만	52.4	28.0	17.1	2.4	100.0(82)	13.87(12)
5년이상~10년미만	56.6	26.3	15.2	2.0	100.0(99)	
10년이상~15년미만	55.3	28.5	13.8	2.4	100.0(123)	
15년이상~20년미만	57.1	32.7	10.2	-	100.0(98)	
20년이상	49.2	25.4	19.0	6.3	100.0(126)	

주: ① 지역이나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② 부모교육을 표준화해도 강사 수준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교육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③ 부모교육을 표준화하는 것은 부모의 다양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④ 기타

* $p < .05$, ** $p < .01$, *** $p < .001$

라.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1) 부모 참여 제고 방안

영유아기 부모교육에 대해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부모교육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부모교육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 결과,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보기 문항 ①)”이 41.3%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보기 문항 ②)” 25.0%, 부모교육 이수 시간을 적립해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보기 문항 ③)” 17.0% 순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는 거의 없는 가운데, 유치원은 보기 문항 ③을, 어린이집은 보기문항 ④(부모교육 이수 부모에게 국공립 기관 입소 우선 순위 부여)를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유일하게 보기 문항 ④를 1순위로 꼽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부모교육 이수 등으로 입소 제한을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이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에 대해 40% 이상으로 많이 꼽았다. 특히, 충청권은 50% 이상 나왔다. 경인권과 서울은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입소순위 우선 부여”를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경상권, 전라권은 “마일리지 적립”이 상

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재원아수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고, 원장 총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맞춤형 부모교육”이 40%대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5년 미만의 경우 “입소 우선 부여”를 꼽은 비율(20.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 V-4-4> 부모교육의 참여 제고 방안

구분						단위 : %(명)	χ^2 (df)
	①	②	③	④	⑤	계(사례수)	
전체	41.3	25.0	17.0	12.3	4.4	100.0(528)	
기관유형							
유치원	40.4	26.1	19.1	9.6	4.8	100.0(188)	2.84(4)
어린이집	41.8	24.4	15.9	13.8	4.1	100.0(340)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9.6	25.0	20.8	10.4	4.2	100.0(96)	44.95(16)***
사립유치원	41.3	27.2	17.4	8.7	5.4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30.8	15.4	13.8	33.8	6.2	100.0(65)	
민간어린이집	45.7	25.7	18.3	7.0	3.5	100.0(230)	
법인어린이집	37.8	31.1	6.7	20.0	4.4	100.0(45)	
기관소재지							
서울	40.7	28.4	11.1	16.0	3.7	100.0(81)	28.15(20)
경인권	33.8	28.7	15.3	17.8	4.5	100.0(157)	
충청권	51.6	17.7	17.7	11.3	1.6	100.0(62)	
전라권	41.3	25.4	19.0	6.3	7.9	100.0(63)	
경상권	47.4	21.1	21.8	6.8	3.0	100.0(133)	
강원·제주권	34.4	28.1	15.6	12.5	9.4	100.0(32)	
재원아 수							
20인이하	45.5	33.3	9.1	6.1	6.1	100.0(33)	17.44(12)
21인이상~50인 미만	42.6	24.9	15.4	10.1	7.1	100.0(169)	
50인이상~100인 미만	37.8	23.9	19.9	16.9	1.5	100.0(201)	
100인이상	44.0	24.8	16.8	9.6	4.8	100.0(125)	
원장 총경력							
5년미만	32.9	28.0	18.3	20.7	-	100.0(82)	21.22(16)
5년이상~10년미만	39.4	25.3	18.2	13.1	4.0	100.0(99)	
10년이상~15년미만	43.1	30.1	15.4	8.1	3.3	100.0(123)	
15년이상~20년미만	44.9	24.5	15.3	10.2	5.1	100.0(98)	
20년이상	43.7	18.3	18.3	11.9	7.9	100.0(126)	

- 주: ① 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예: 개별 상담 프로그램 등)
 ②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예: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③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게 마일리지 적립 및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사용
 ④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 우선권 부여
 ⑤ 기타

*** $p < .001$

2) 정부 지원 방안

영유아기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강사비 지원과 같은 “부모교육 운영비 지원”을 38.3%로 가장 많이 희망했다. 다음으로 “부모교육 의무화(법제화)” 약 26%,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약 16%, 대국민 홍보 8.5% 순으로 나왔다.

운영비 지원에 대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원장의 요구가 높았으며, 유치원 원장은 운영비 지원과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비슷하게 나왔다.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부모교육 의무화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사립유치원, 민간 및 법인어린이집은 운영비 지원을 1순위로 꼽아서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인권은 부모교육 의무화가 가장 많이 나왔고(33.1%), 서울도 운영비 지원(33.3%)과 부모교육 의무화(32.1%)가 비슷하게 많이 나왔다. 유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센터 확충에 대한 요구는 소수 의견에 그쳤다. 재원인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운영비 지원에 대해, 50인 이상에서는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20인 이하 소규모 기관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21.2%). 원장 총경력 20년 이상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44.4%) 10년 미만에서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4-5>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단위 : %(명)

구분	①운영비 지원	②부모교육 의무화	③프로그램 개발/보급	④대국민홍보	⑤인건비 지원	⑥기관(센터) 확충	⑦기타	계 (사례수)
전체	38.3	25.8	15.7	8.5	7.8	2.8	1.1	100.0(528)
기관유형								
유치원	29.8	28.7	17.0	11.2	7.4	4.3	1.6	100.0(188)
어린이집	42.9	24.1	15.0	7.1	7.9	2.1	0.9	100.0(340)
$\chi^2(df)$	11.82(6)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27.1	31.3	16.7	10.4	6.3	7.3	1.0	100.0(96)
사립유치원	32.6	26.1	17.4	12.0	8.7	1.1	2.2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24.6	49.2	13.8	6.2	4.6	-	1.5	100.0(65)
민간어린이집	47.8	17.4	14.8	7.8	9.6	2.2	0.4	100.0(230)
법인어린이집	44.4	22.2	17.8	4.4	4.4	4.4	2.2	100.0(45)

(표 V-45 계속)

구분	①운영비 지원	②부모 교육 의무화	③프로 그램 개발/ 보급	④대국 민홍보	⑤인건비 지원	⑥기관 (센터) 확충	⑦ 기타	계 (사례수)
$\chi^2(df)$	53.80(24)***							
기관 소재지								
서울	33.3	32.1	18.5	7.4	4.9	1.2	2.5	100.0(81)
경인권	29.3	33.1	17.8	14.0	1.9	3.8	-	100.0(157)
충청권	50.0	16.1	11.3	-	17.7	4.8	-	100.0(62)
전라권	42.9	27.0	9.5	6.3	11.1	-	3.2	100.0(63)
경상권	44.4	16.5	16.5	8.3	9.8	3.8	0.8	100.0(133)
강원·제주권	37.5	28.1	15.6	6.3	9.4	-	3.1	100.0(32)
$\chi^2(df)$	63.70(30)***							
재원아 수								
20인이하	45.5	9.1	21.2	6.1	12.1	3.0	3.0	100.0(33)
21인이상~50인미만	43.2	17.8	17.8	7.7	10.7	1.2	1.8	100.0(169)
50인이상~100인미만	37.3	31.3	11.4	9.0	5.5	5.0	0.5	100.0(201)
100인이상	31.2	32.0	18.4	9.6	6.4	1.6	0.8	100.0(125)
$\chi^2(df)$	32.17(18)*							
원장 총경력								
5년미만	34.1	30.5	14.6	13.4	3.7	3.7	-	100.0(82)
5년이상~10년미만	35.4	33.3	14.1	5.1	10.1	2.0	-	100.0(99)
10년이상~15년미만	38.2	17.1	18.7	6.5	13.0	4.1	2.4	100.0(123)
15년이상~20년미만	36.7	25.5	21.4	9.2	2.0	4.1	1.0	100.0(98)
20년이상	44.4	25.4	10.3	9.5	7.9	0.8	1.6	100.0(126)
$\chi^2(df)$	36.77(24)*							

- 주: ① 부모교육 운영비 지원(예: 강사비 지원 등)
 ② 부모교육 의무화(법제화)
 ③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④ 대국민 홍보
 ⑤ 부모교육 담당자 인건비 지원
 ⑥ 육아중·건가·유아교육진흥원 확충(접근성 제고)
 ⑦ 기타

* $p < .05$, *** $p < .001$

VI. 요약 및 영유아기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안

본 연구는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내실화 방안 도출을 위해 문헌, 면담조사,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부모교육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되는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7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 교육’을 신설하였다. 영유아기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건강가정지원법”에는 이전부터 건강가정생활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다. “건강가정지원법”에는 건강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다 같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과 더불어 보호자(부모)의 책임(의무)만이 명시되어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 한편, 의무교육단계인 초중등학교의 학부모 정책은 학부모를 교육주체의 하나로 규정하고, 학교교육 발전에 참여하는 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학부모의 참여(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법령을 보면, 두 법령 모두 처음 제정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보호자(부모)의 교육과 보육의 책임(의무)을 명시했었다. 그러다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2011년, 2012년에 운영위원회 법조항을 제정하여 학부모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기관의 자율성 및 투명성 제고(투명성은 영유아보육법에만 명시)를 위함이다. 기관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학부모 대표를 선정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학부모를 교육·보육활동의 하나의 주체로 간주했음

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최근 영유아보육법에 '보호자 교육(책임)' 조항이 제정되었다. 법 제정을 통해 부모의 책임(의무)→참여(권리)→책임(의무) 순으로 정책기조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외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민족 국가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의무화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소자녀화라는 시대적 변화에서 부모(대부분 모)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게 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아교육진흥원의 일부 기능과 동일하다. 부모 면담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도 이구동성으로 핵가족 구조에서 모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란 어렵고 힘든 일이라 호소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운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은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교육의 참여도는 낮다. 예를 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비해 역사가 더 오래된 초·중등학교의 학부모회는 일본에 비해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 학부모회에 대한 과거의 안 좋은 이미지가 겹쳐서 학부모 교육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떨어지고, 참여하는 학부모만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대체로 저조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참여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전국의 영유아기 부모교육에 대한 가구조사(최종 757명 표집)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조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강의식 부모교육, 전문가가 실시한 부모상담,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부모의 특성은 구속력이 없는 부모교육을 자발적으로 신청, 이수했다는 점이다. 이들 부모들은 해당 센터(기관)를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용했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용기간도 평균 2.20년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도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서"가 가장 많았고, 참여 목적도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자"가 가장 많았다. 즉,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부모교육에 스스로 신청, 이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발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찾아서 신청, 수강하는 이들 부모들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학원(놀이학원, 영어학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도 약 78%가 참여하고 있었다. 비참여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는데, 취업모가 이 부분에서 가장 취약했다(취업모 76.9%, 비취업모 45.0%).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체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부모님은 18.1%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의 비참여 이유도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이므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기관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77%로 대부분의 부모는 기관 운영에 있어 부모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실무자 대상 센터조사(최종 114명 표집)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참여도가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소규모 강의식 프로그램, 개별양육 상담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소규모, 개별방식의 부모교육을 선호한다는 것을 실무자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강사의 유명세보다는 교육내용이 유익할 때, 참여도가 높았으며 참여도가 낮은 주된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를 동반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게 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도보다는 만족도가 높았다. 부모교육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모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자체평가하고 부모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을 구성하는 등 부모의 욕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낮은 참여도가 가장 큰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92.1%)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는 타당하다(약 70.0%)고 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클로버교육과 같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클로버교육을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찬성하는 응답이 많았으나, 유아교육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다섯째,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조사(최종 528명 표집)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올해(2017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실시한 부모교육은 원장 또는 교사가 실시한 부모교육이며 가장 적게 실시한 부모교육은 전문강사 초청의 부모교육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자체적으로 부모교육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여도는 부모-자녀체험 프로그램이 원장/교사에 의한 부모교육보다 높았다. 많이 실시하는 부모교육과 참여하

는 부모교육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이유로는 ‘자녀와 관련되어서’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프로그램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의 참여도는 낮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연간 계획안에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평가(인증) 지표이기도 하다. 부모교육 주제나 내용은 교사회에서 또는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는 실무자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부모들의 저조한 참여’가 가장 많았다.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선정 기준은 ‘학부모 자원’이 가장 많았고 실제 자원하는 학부모가 많아서 선정운영의 어려움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 대목에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기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83.1%) 의무화는 타당하다(약 71%)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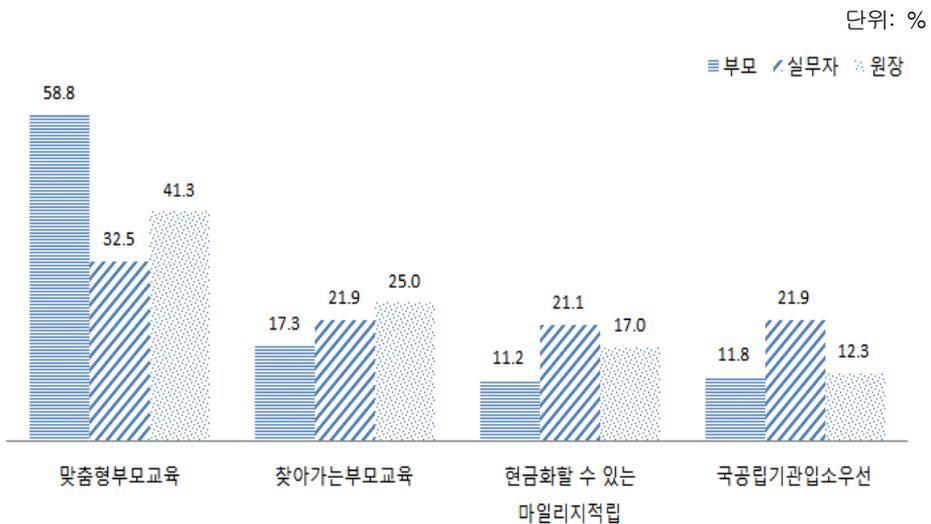
여섯째, 설문조사 대상인 이들 3개 집단(부모, 실무자, 원장)의 공통 질문에 대해 의견조사를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은 본문에서 이미 언급했으므로 상세한 기술은 생략하겠다. 3개 집단 모두 영유아기 부모의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으나, 부모의 찬성하는 응답비율(64.6%)이 실무자와 원장(70%대)에 비해 낮았다.

나머지 정책방안 관련된 공통질문에 대해 집단 간 비교분석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VI-1-1, VI-1-2, VI-1-3 참조). 먼저,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맞춤형 부모교육”을 3개 집단 모두 1순위로 꼽았으나, 응답비율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약 60% 가량이 이를 지지했다면, 실무자는 이에 절반에 가까운 30% 정도가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는 제시한 지원방안에 대해 응답이 골고루 갈렸다. 실무자는 “찾아가는 부모교육” “현금화할 수 있는 부모교육 이수 마일리지 적립” “국공립입소 우선권 부여”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원장은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대해 응답비율이 높았다. 영유아기 부모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다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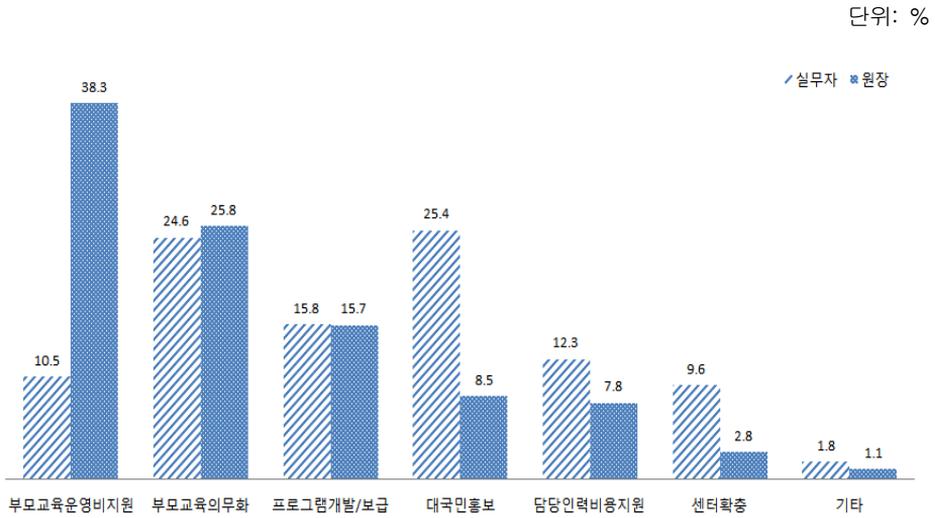
다음으로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집단 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실무자는 대국민 홍보와 부모교육 의무화를 거의 비슷하게 많이 꼽았다면, 원장은 부모교육 운영비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원장도 부모교육의 의무화를 2순위로 지적했다. 대국민 홍보에

대해서는 원장은 7.8%에 그쳤다. 정부지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실무자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평가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알지 못하면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각 센터(기관) 단위 별로 실시하는 홍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정부가 담당했으면 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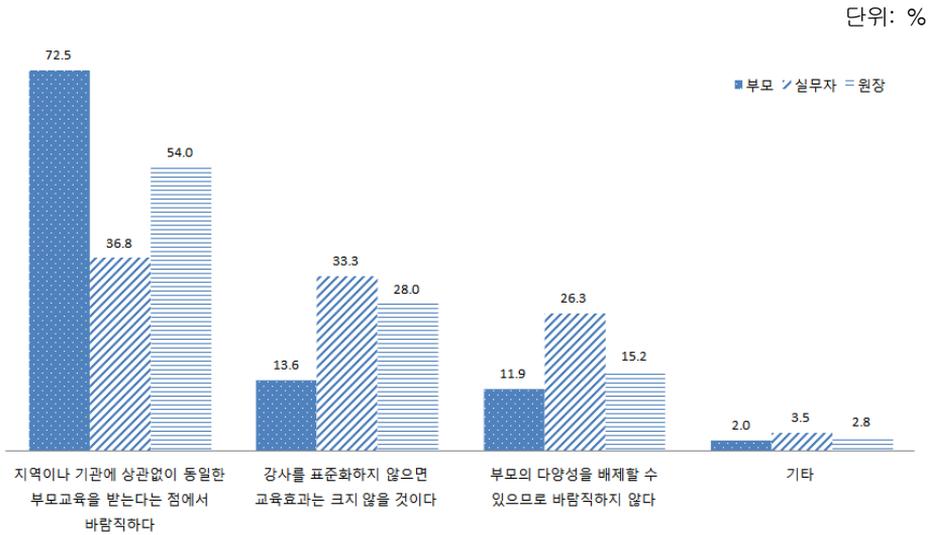
끝으로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전국 공용으로 표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 실무자, 원장 모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실무자는 “강사를 표준화하지 않으면 (표준화에 따른) 교육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도 1 순위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 실무자는 교육내용의 표준화 못지않게 강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실무자는 “부모의 다양성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3개 집단 중에서 가장 많았다. 부모가 이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는 부모 조사결과에서 맞춤형 부모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상충되는 결과이다. 맞춤형 부모교육은 부모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정책방안을 도출해야 하겠다.



[그림 VI-1-1]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제도 방안 비교분석



[그림 VI-1-2]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위해 정부 우선 지원사항 비교분석



[그림 VI-1-3] 영유아기 부모교육 표준화 의견에 대한 비교분석

2. 정책방향

가. 부모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균형있는 관점

많은 영유아기 부모들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부모교육의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면담조사를 통해 학부모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지만 원장 입장에서는 '지나친 간섭'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장 및 실무자 면담에서 요즘 젊은 부모들은 '내 자식'(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견을 많이 나왔다. 1~2명 자녀만 출산하다 보니, 내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것이다. 아이가 얼굴에 약간만 상처가 생겨도 CCTV를 보자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내 아이도 다른 아이한테 그럴 수 있다는 이해심이 부족하고, 기관의 운영하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점점 커져서 전보다 기관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장과 실무자들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반대로 부모 면담조사에서는 내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도 원장이나 교사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아이가 다쳐서 왔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대처한다는 점, 아이가 담임 교사를 무서워해도 기관에 솔질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점 등등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학계 전문가도 입장 차이가 있다. 유아교육이나 아동학계에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교육학계에서는 다원화 사회에서 학교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모교육이란 것을 받아보지 않고 부모가 되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고, 전통 사회 조부모, 부모, 친인척 등 다양한 성인들로부터 양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던 요즘 30대 부모들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부모교육이 필요한 것은 맞고, 부모들도 이에 대한 욕구가 컸다.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권리와 의무라는 양축을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 부모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자녀양육의 경험은 없지만, 부모들의 평균적인 학력수준, 의식수준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뿐 아니라 부모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의식 수준을

갖고 있으므로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단순히 의무화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부모로서의 권리(참여)와 책임(의무)을 균형있게 지원하는 수준 높은 부모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나.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

1) 공론화 과정 필요

본 설문조사에서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이 부모, 실무자, 원장 3개 집단 모두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부모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발견할 수 있으나, 앞서 기술했듯이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의무화해서 우리사회가 얻는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면밀하게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을 의무화한 국외사례를 찾고자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데 왜, 우리나라는 해야 하는 지도 함께 논의할 주제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교육 목표는 자녀행복추구권 추구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한다면, 부모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정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해야 만, 교육내용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미국의 경우,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해서 퇴원을 할 때, 아버지(배우자)가 반드시 간단한 양육방법(씻기기, 모유수유 등)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녀를 인계받을 수 있다고 한다(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 부모가 되었다면 기초적인 양육기술의 숙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실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였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이용률이 80% 이상 상회), 기관 이용의 예절교육을 부모가 의무적으로 이

수해야 한다는 의견, 정부가 양육수당 및 누리과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에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가정교육의 일종으로 ‘부모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한다면 교육목표는 ‘아동의 행복추구권’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건강가정법 제22조에 자녀양육은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도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관 법률들의 공통점이 ‘아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 의무 부모교육의 교육목표는 ‘자녀(아동)의 행복(이익)’을 지향한다. 의무 부모교육을 통해 좋은 부모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부모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는 점, 그래서 자녀의 행복과 이익의 기준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있다는 점을 의무 부모교육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발달특성 상,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양육기술, 양육정보, 기관이용 시 예절교육은 다른 차원에서 실시해야 하는 부모교육이지 의무화해서까지 실시해야 할 교육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3)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 이수 시간은 최소화

본 설문조사에 취업모의 표집이 49.4%로 상당히 많이 표집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모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취업모도 비취업모 못지않게 자녀양육에 관심이 많고, 부모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욕구도 컸다. 취업모의 센터 이용기간이 비취업모보다 더 길게 나왔으며 센터를 알게 된 경위도 ‘인터넷 검색’이 비취업모보다 높게 나온 점들이 단적인 사례들이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참여도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취업모 집단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왔다.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에서도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의무화는 타당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으나(취업모 52.4%, 비취

업모 58.5%), 취업모의 경우 '맞벌이 가정 등을 고려하면,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16.0%로 비취업모 9.4%에 비해 높았다.

영유아기 부모 중에서 취업모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맞벌이 가정을 고려해서 부모교육 의무 이수 시간(기간)은 최소화한다. 구체적인 교육 이수 횟수와 이수 시간은 향후 조사연구를 통해 명료화한다.

4)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 이수 시기는 '예비부모기(期)'가 적절

앞서 논의한 의무교육 이수 시간과 연계되는 내용이다. 이수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는데 관련해서 부모교육 의무 이수 시기는 자녀가 출산하기 전이 가장 현실적이고 따라서 교육 효과도 클 것이다. 실무자 조사에서 부모교육의 낮은 참여의 이유로 '자녀동반이 어려워서'를 1순위로 꼽았다(1+2 순위 결과도 동일). 자녀가 어리거나 다른 자녀가 있으면 부모교육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자녀동반을 하더라도 부모교육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자녀출산 전이 적절하다.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를 가는 데, 이 때 연계해서 부모교육을 이수한다.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며 출산 후 퇴원할 때까지는 의무 부모교육을 받도록 한다. 의무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일방의 배우자 있으면, 퇴원할 때, 자녀를 인수받지 못한다.

의무 부모교육 이수를 자녀 1명당 기준으로 할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처럼 유효한 일정 기간을 정하도록 할지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5)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교육 이수와 인센티브 연계는 지양

의무 부모교육을 국공립기관 입소 우선권 부여, 이수시간의 마일리지 적립 및 현금화 사용, 양육수당 및 누리과정지원금 등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한다. 본 부모대상 설문조사에서 이에 대한 응답이 10%대 초반으로 적게 나왔다. 이에 비해 실무자 및 원장 설문조사에서는 인센티브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부모교육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듯이, 의무 부모교육을 이수해야만 출산 후 퇴원 시, 자녀를 인수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이 때 부여되었기 때문에 향후 계속되는 조건은 부모에게 부담감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의무 부모교육은 부모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조건없이' 받는 교

육이란 기본 방침으로 운영하되, 의무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게 교육이수증을 수여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게 될 때, 이수증을 필수로 제출한다.

6) 부모교육 관련 법령 정비

“영유아보육법”의 보호자 교육을 규정한 제9조의 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건강가정지원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관련 법조항이 없다.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은 두 법령이 동일하나, 하나는 “실시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실시하여야 한다”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고 관련 시행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영아기 부모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7) 부모교육은 예비부모부터 체계적으로 실시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정기검진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부모교육을 제공한다.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대입입시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교육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하기에는 어렵더라도 유초학년에 실시하는 성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직하다.

3. 정책방안

가. 법령 정비

영유아기 부모교육은 영유아보육법과 건강가정지원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려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어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강가

정지원법에는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범조항이 있으므로 의무화로 규정하기에는 법체계상 순조로울 수 있다. 또, 의무교육 대상을 예비부모로 하게 되면 건강가정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시행령 제정

건강가정지원법에 부모교육을 열거한 제32조 건강가정교육 조항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최근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 2(보호자 교육)와 관련해서도 시행령,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해당 부처가 정책으로 추진하려면 시행령이 필요하다. 영유아기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체계를 완비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되므로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이유(교육목표), 의무화 내용(교육내용), 이수 시기 등을 관련 법률이 정해지면 하위 법 체계인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한다.

다. 정부 역할 강화

1) 센터 확충

본 조사에서 부모 스스로가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크고, 부모교육의 필요성도 높게 나왔다.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부모는 부모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국가와 지자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양적으로 확대하는 추이다. 중앙 및 중앙정부는 이러한 기관이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이들 기관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접근성은 기관 이용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단순한 양적 확충보다는 보다 많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이들 센터를 설치한다.

2) 전문강사 양성 및 배치

의무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소는 출산 전의 병원(산부인과)이나 보건소이다. 정부는 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해서 부모교육이 실시되는 이 곳에 강사

를 배치한다. 전문 강사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이나 보건소의 인력을 재교육해서 부모교육 강사로 활용한다.

3) 의무 예비부모교육의 가이드라인 제정

예비 부모교육을 의무화한 교육에 대해서 기본방향 및 지침 등을 제정해서 현장에서 보급한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더라도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이수시간, 횟수 등의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제공한다.

라. 부모교육의 체계화

1) 예비부모

출산 전인 예비부모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의무 부모교육을 이수한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는 이들 예비부모들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지역사회 내에 이러한 센터가 없다면, 병원이나 보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영아기 부모

영아기 부모의 부모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집에서 실시한다. 만약, 사정이 있어서 예비 부모시기에 의무 부모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가 있다면 이들 기관에서 실시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클로버 교육”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예비부모 때 받은 교육이수증을 제출한다. 이수증은 해당 병원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상시 발급받을 수 있게 시스템화한다.

3) 유아기 부모

유아기 부모의 부모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다. 유치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클로버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 첫 입학하게 되

는 유치원에는 예비부모 의무 교육이수증을 제출한다.

마. 부모교육 참여 지원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2017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특별휴가(제7조의3)를 신설해서 학교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및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전주시지부 www.jswu.co.kr, 검색일: 2017년 10월 20일). 부모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모교육 참여도 특별휴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휴가의 사유로 행사, 상담만 적용하고 있는 데 여기에 부모교육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예비부모교육을 의무화하게 되면, 이에 해당되는 교육이수시간이나 일수는 유급 특별휴가로 하고 해당 법령에 명문화 한다.

바. 다양한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영유아기 부모들에게서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으로 나왔다. 강의식 부모교육, 부모상담의 참여도와 만족도도 높게 나왔으나,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본 설문조사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부모에게 제공하는 부모교육 중에서 체험프로그램의 비율은 낮았지만, 참여도는 가장 높았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개발 시, 자녀와 함께 체험하는 콘텐츠 개발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인수(2017).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의 권리 실현과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방향. 한국학부모학회 제6차 정기학술대회—학부모의 교육주체화—. 한국학부모학회. pp.3-25.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하나 조례 연수자료집(2013. 2.).
- 권미경·도남희·강은진·최지은·신윤승·서원경·김유미(2015).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도남희·강은진·최지은·정효진(2015). 부모참여 확대를 위한 열린보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경희·김선영·김신영·김지은·김혜금·문혁준·서소정·안선희·안효진·이희경·정선아·황혜원(2006). 보육학 개론. 창지사.
- 김길숙·김지현·이혜민(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영명(2006). 일본 보육소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 사업의 한국보육시설에의 적용 검토 및 시사점. 미래유아교육학회. 13(3). pp.283-306.
- 김영옥(2016). 부모교육. 경기도: 공동체
- 김은설·장혜진·김문정·Susan Walker(2011).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최진·조혜주·김경미(2009). 유아지원기관 부모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장혜진·김문정·Susan Walker(2011).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희진(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과 지원. 과란마음.
- 마미정 외(2015).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부모교육연구 12(2).
- 박성희(2010). 아동청소년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독일의 교육복지적 가족지원과

- 부모교육 방법의 의의, 한국교육 37(1호).
-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a).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b). 보육사업안내 부록.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5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2015. 10. 8.).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여성가족부(2017a).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6). 2015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실적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외교부(2013) 싱가포르 개황. 외교부.
- 이순형·민하영·권혜진·정윤주·한유진·최윤경·권기남(2011). 부모교육. 학지사.
-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김의향·신혜원·신윤승·신영아·배성연·김영란(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보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09-01.
- 이윤진·김아름·임준범(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조혜주(2014).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정옥분·정순화(2012).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최순자(2008). 일본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에 관한 일고찰-동경도(東京都) 무사노시 '0123 길상사' 사례-.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2(2). pp.79-93.

[인터넷 사이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3.do. 2017년 5월 27일 인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전주시지부 www.jswu.co.kr, 검색일: 2017년 10월 20일

전국학부모지원센터.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HAFAAAA&bmode=view&idx=HAFAAAA>. 2017년 5월 26일 인출.

중앙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d1_600062.jsp. 2017년 5월 26일 인출.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홈페이지 유아교육진흥원, http://www.kapkt.info/sub/map.asp?m_type=3, 2017년 5월 26일 인출.

NPEN 홈페이지, <http://npen.org/about-npen/core-principles>. 2017년 5월 27일 인출.

코네티컷 부모교육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tpen.org>. 2017년 5월 27일 인출.

Collaborative for Children 홈페이지, <http://collabforchildren.org>, 2017년 5월 27일 인출.

ECDA 홈페이지, <https://www.ecda.gov.sg/parents/Pages/Default.aspx>, 2017년 5월 27일 인출.

싱가포르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v.sg>, 2017년 5월 27일 인출.

<관련법>

미국 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https://legcounsel.house.gov/Comps/Elementary%20And%20Secondary%20Education%20Act%20Of%201965.pdf>)

Abstract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Participation in Parent Education by Parents of Young Children and Methods of Improvement

Lee Yunjin, Lee Jungrim, Lim Junbu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participation in parent education by parents of young children and to seek measures for improving participation. In order to support parent education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the government is working on enacting relevant legislations and policies. Nonetheless, participation in parent education is still low. This study focused on parents of young children who took interests in parent education and willingly participated in it "in order to be good parents." To understand parents'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and the status of parent education, the study surveyed 757 parents who participated in parent education offered by Child Care Support Centers (under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und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 Promotion Centers (under Ministry of Education) which, unlike education offered by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parents are under no obligation to attend. The study also surveyed 114 staff members in charge of parent education working at aforementioned institutes as well as 528 kindergarten and day care center principals on the status of parent education and their opinion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mentioned below. First, major findings of the survey on parents are as follows. 1) The rate of participation was 49.4% for working mothers and 50.6% for nonworking mothers, which shows higher participation by working mothers than in other studies. In other words, working mothers showed a high level of

participation in parent education as well. 2) The status of parents using the institutes indicated the average duration of attending institutes was 2.48 years, most of the parents visited institutes once a week(71.5%) and more parents visited institutes on weekdays than on weekend. 3) Parents first started to participate in parent education when their children were young and the most common reason for participation was in order “to be helpful to children(49.8%)”. Parental satisfaction of parent education was as high as 3.93 point(out of 4) while degree of helpfulness to children was as high as 3.90 point(out of 4). 4) With 76.7% of their children attending either kindergartens or day care centers, the most common reason for not participating in parent education offered by those institutes was because “they didn’t have time(63.0%)”. 5) Most commonly, parents answered “customized parent education(58.8%)” was needed for activating parent education.

Second, major findings of the survey on 114 staff members are as follows. 1) Higher participation of parents was most often because “the content of parent education is helpful(41.2%)” while lower participation was most often because “it was difficult to bring children with them(23.7%)” and “parents are not much interested in parent education(20.2%).” 2) Most common difficulty staff members face when runn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was “low participation of parents(42.1%).” 3) Staff members answered that “PR(25.4%)” and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parent education(24.6%)” was needed for activating parent education.

Third, major findings of the survey on principals are as follows. 1) Instructors of parent education offered in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were most commonly principals or teachers. 2) Participation rate was the highest for “parent education which includes content related to children” and the most common reasons for low participation in parent education were because “parents are not much interested in parent education(42.6%)” and “the time of education did not work for parents(31.3%).” 3) Most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included parent education in their yearly plans. 4) Most common difficulty when runn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in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was also “low participation of parents(37.5%).”

Fourth, when groups of parents, staff members and principals were asked whether making parent education mandatory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is necessary, an overwhelming majority(65~70%) of all three groups answered “it is necessary.”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findings above are as follows. 1) Though the majority was in favor of making parent education mandatory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the issue is to be carefully dealt with and publicly discussed first as it is unprecedent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any other countries. 2) If parent education is to be mandatory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objectives of education should be to seek the right of children to pursue happiness, duration of education should be minimized, period of education should be before the birth of children and associating mandatory education with an incentive(childcare allowance) should be avoided. 3)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arent education, it is recommended tha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e complemented, professional instructors for parent education be trained and placed, Child Care Support Cent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 Promotion Centers and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be expanded, systematic parent education for parents in each stage of life(pre-parenthood, parents of children from 1 month to 1 year old, parents of children from 2 to 5 years old) be offered and special holidays be given to parents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parent education at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부록

부록 1. 부모용 설문지

부록 2. 기관(센터)용 설문지

부록 3. 원장용 설문지

- ② 자녀 포레들이 많아서/자녀가 좋아해서
- ③ 장난감이나 도서를 대여하려고
- ④ 비슷한 연배의 부모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 ⑤ 기타 (자세히 : _____)

IV.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부모교육 강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강연식 교육(대집단 교육, 소집단 교육 및 아버지교육 모두 포함)
 ② 영유아 부모 대상 상담프로그램(부부상담, 자녀양육상담 모두 포함)
 ③ 영유아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요리, 000만들기, 주말체험학습, 초등연계프로그램 모두 포함)
 ※ 선문1에서 응답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문 11 귀하께서는 지금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언제 처음 들으셨습니까?

년 월부터

문 12 지금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내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 ② 지인의 추천으로
- ③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우연히
- ④ 배우자의 추천으로
- 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추천해서
- ⑥ 기타 (자세히 : _____)

문 13 귀하께서 이 기관에서 수강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수강 중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이라면 모두 작성해 주세요.

※ 프로그램명을 기입한 후,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명	신청방법 (1개만 선택)	교육방식 (복수응답 가능)	프로그램의 만족 (1개만 선택)	실제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 (1개만 선택)
		① 오프라인 ② 온라인	① 대형강의(20명 이상) ② 소형강의(20명 미만) ③ 실습 ④ 상담 ⑤ 온라인	① 매우 만족함 ② 대체로 만족함 ③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④ 전혀 만족하지 않음
(프로그램명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프로그램명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프로그램명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프로그램명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프로그램명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번호 기입)

문 14 지금 기관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목적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양육정보를 얻으려고(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 ②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 ③ 양육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으려고(양육스트레스 해소)
- ④ 집에서 자녀와 지내는 것이 심심해서
- ⑤ 기타 (자세히 : _____)

문 15 앞으로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수강하실 계획이십니까?

- ① 새로운 강좌가 개설되면 반드시 수강할 계획이다. **☞ 문17로 이동**
- ② 여건이 되면 가끔씩 수강할 계획이다. **☞ 문17로 이동**
- ③ 부모교육보다는 다른 강좌를 수강할 계획이다. **☞ 문16으로 이동**
- ④ 부모교육뿐 아니라 다른 모든 강좌나 프로그램도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 문16으로 이동**
- ⑤ 기타 (자세히 : _____) **☞ 문17로 이동**

문 16 [문 15의 ③, ④ 응답자만] 부모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응답하신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내용이 생각보다 별로여서
- ② 강사가 별로여서
- ③ 강의 방식이 지루해서
- ④ 필요한 강좌는 웬만큼 다 수강해서
- ⑤ 수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⑥ 자녀와 함께 수강을 해서 집중할 수 없어서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V. 해당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 자녀가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문 17 [문 4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외부강사 초빙 또는 원장/교사가 직접 부모 대상으로 실시)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① 부모교육이 있다면 최대한/거의 참여한다. **☞ 문18로 이동**
- ② 시간이 되면 가끔씩 참여한다. **☞ 문18로 이동**
- ③ 참여할 때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때도 있다. **☞ 문18로 이동**
- ④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 문19로 이동**
- ⑤ 참여한 적이 없다. **☞ 문19로 이동**
- ⑥ 실시한다고 공지 받은 적이 없다. **☞ 문20으로 이동**

문 18 [문 17의 ①, ②, ③ 응답자만]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 ②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 ③ 대체로 만족스럽다
- ④ 매우 만족스럽다

문 19 [문 17의 ④, ⑤ 응답자만]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전에 들어봤는데 도움이 안 되서)
- ② 참석할 시간이 없어서
- ③ 다른 매체(책, TV, 인터넷 등)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 ④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색해서(불편해서)

- ② 학부모는 자녀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최소한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③ 학부모는 자녀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자세히 : _____)

문 27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부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예: 개별 상담 프로그램 등)
- ②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 우선권 부여
- ③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게 마일리지 적립 및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사용
- ④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예: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 ⑤ 기타 (자세히 : _____)

문 28 귀하께서는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영유아 교육·보육이 의무가 아니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 ②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 ③ 교육의 효과가 적으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 ④ 교육의 효과가 크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 ⑤ 맞벌이 가정 등 직장일로 바쁜 부모들을 고려하면,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 ⑥ 부모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문 29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국 공용의 ‘클로버교육’이라 해서 부모교육을 표준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부모교육 표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역이나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 ② 부모교육을 표준화하는 것은 부모의 다양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③ 부모교육을 표준화해도 강사 수준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교육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 ④ 기타 (자세히 : _____)

문 30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Ⅶ.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대전 ⑤ 광주 ⑥ 인천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문32 실례지만, 귀하와 배우자의 나이를 기입해주세요.(배우자가 없으면 빈칸으로 두십시오).

귀하(본인)	만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세	배우자	만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세
--------	---	---	---	-----	---	---	---

문33 귀하와 배우자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귀하(본인)	(번호 기입)	배우자	(번호 기입)
--------	---------	-----	---------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2~3년)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졸업 이상 ⑤ 비해당(배우자가 없는 경우)

문34 귀하와 배우자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귀하(본인)	(번호 기입)	배우자	(번호 기입)
--------	---------	-----	---------

- ① 농/임/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전업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⑨ 비해당(배우자가 없는 경우)

문35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말씀해주세요.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250만원 미만
 ⑤ 250만원~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400만원 미만
 ⑦ 400만원~500만원 미만 ⑧ 500만원~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1,000만원 미만 ⑩ 1,000만원 이상

※ 응답을 잘못 표기하거나 불분명하게 표기했을 때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 연락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연락처는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본 조사의 검증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응답자 성함		응답자 전화번호	—	—
--------	--	----------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기관(센터)용 설문지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조사 (실무자/기관장용)

ID							
----	--	--	--	--	--	--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부모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움을 주고자 설치·운영해 오고 있는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부모님들 중에서 영유아 자녀(미취학 자녀)가 있는 부모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실시기관 : 닐슨컴퍼니코리아
■ 담당자 : 임준범(02-398-7766)	■ 담당자 : 손일란(02-2122-7123)

I.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귀 기관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실무자가 작성하기 어려우시면, 부모교육 운영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센터(기관)장님도 답변 가능합니다.

문1. 성별	① 남 ② 여
문2. 연령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문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2~3년)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졸업 이상
문4. 현재 기관 근무기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부터 현재까지 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근무함 <p style="text-align: right;">※현재: 설문조사 기준</p>
문5. 근무 기관명	① 시도(광역) 기관 ☞ 기관명 : _____ ② 시군구 기관 ☞ 기관명 : _____
문6. 직위	① 기관장 ② 실무자

II.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 본 연구에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란
 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대개 강의식 부모교육), ② 양육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상담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양육 상담 프로그램, ③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문7 귀 기관이 운영하는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의 평균적인 참여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비해당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내용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비해당
1) 대규모 강의식 부모교육(20명 이상)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2) 소규모 강의식 부모교육(20명 미만)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3) 전문가에 의한 개별 양육상담 프로그램(온라인)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4) 전문가에 의한 개별 전문가 양육상담 프로그램(오프라인)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5) 전문가에 의한 집단 양육상담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6)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문8 귀 기관이 운영하는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의 평균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비해당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내용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비해당
1) 대규모 강의식 부모교육(20명 이상)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2) 소규모 강의식 부모교육(20명 미만)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3) 전문가에 의한 개별 양육상담 프로그램(온라인)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4) 전문가에 의한 개별 전문가 양육상담 프로그램(오프라인)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5) 전문가에 의한 집단 양육상담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6)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문9 귀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주제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번호 기입) **2순위** (번호 기입)

- 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프로그램
- ② 부모님의 요구가 많은 프로그램
- ③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 요구가 많은 프로그램
- ④ 부모님이 평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온 프로그램
- ⑤ 다른 기관에서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 ⑥ 특별한 선정기준 없이 실시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함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문 10 귀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운영하는데 겪고 계시는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다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번호 기입)	2순위	(번호 기입)
-----	---------	-----	---------

- ① 강사초빙
- ② 예산
- ③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 ④ 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
- ⑤ 부모교육 담당 인력 부족
- ⑥ 부모교육 실시 장소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문 11 귀 기관에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부모님들의 **참여가 높았던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가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응답할 수 없다면, 보기 ⑥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1순위	(번호 기입)	2순위	(번호 기입)
-----	---------	-----	---------

- ①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높은 관심
- ② 유익한 교육내용
- ③ 강사의 전문성
- ④ 센터에서 적극적 홍보
- ⑤ 편리한 신청 시스템
- ⑥ 강사의 높은 인지도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 ⑧ 참여가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없음/모든 프로그램 참여도가 저조함

문 12 귀 기관에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부모님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가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응답할 수 없다면, 보기 ⑥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1순위	(번호 기입)	2순위	(번호 기입)
-----	---------	-----	---------

- ①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낮은 관심
- ② 진부한 교육내용
- ③ 강사의 전문성 부족
- ④ 홍보 부족
- ⑤ 불편한 신청 시스템
- ⑥ 교육시간
- ⑦ 교육장소(접근성 및 편리성 등)
- ⑧ 자녀동반이 어려워서
- ⑨ 기타 (자세히 : _____)
- ⑩ 참여가 저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없음/모든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음

문 13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

- ①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② 부모교육 프로그램별로 신청건 및 참여건수 분석 실시
 - ③ 내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분석 실시
 - ④ 기타 (자세히 : _____)
 - ⑤ 자체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절차가 없음
- (※ ①, ②, ③, ④ 응답자는 ⑤를 함께 응답할 수 없음)

III. 부모교육 참여 내실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4 귀하는 영유아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대체로 필요하다
- ④ 반드시 필요하다

문 15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부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한 가지** **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예: 개별 상담 프로그램 등)
- ②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 우선권 부여
- ③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게 마일리지 적립 및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사용
- ④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예: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 ⑤ 기타 (자세히 : _____)

문 16 귀하께서는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한 가지** **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영유아 교육·보육이 의무가 아니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 ②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 ③ 교육의 효과가 적으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 ④ 교육의 효과가 크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 ⑤ 맞벌이 가정 등 직장일로 바쁜 부모들을 고려하면,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 ⑥ 부모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문 17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국 공용의 ‘클로버교육’이라 해서 부모교육을 표준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부모교육 표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역이나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 ② 부모교육을 표준화하는 것은 부모의 다양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③ 부모교육을 표준화해도 강사 수준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교육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 ④ 기타 (자세히 : _____)

문 18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한 가지** **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② 담당자 인력 확충
- ③ 부모교육 법제화
- ④ 대국민 홍보
- ⑤ 부모교육 운영비 지원(예: 강사비 지원 등)
- ⑥ 육아중·간가·유아교육진흥원 확충(접근성 제고)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문 19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III.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및 유치원교육법 제19조3에 의거해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는 해당 기관의 원장, 교사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문8 귀 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어주십시오.

※ 운영위원회에 해당 인원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인원수
1) 원장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명
2) 교사대표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명
3) 학부모대표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명
4) 지역사회 인사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명
5) 기타 (자세히 : _____)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명
총계	총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명

문9 귀 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올해(2017년) 상반기**에 총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2017년 상반기(1월~6월) 총 회 개최
 총 합

문10 귀 원의 **운영위원회 활성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매우 미비함
- ② 다소 미비함
- ③ 대체로 활성화된 편임
- ④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문11 귀 원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운영위원 개최 일정 조정의 어려움
- ② 운영 경험 및 전문성 부족
- ③ 운영위원 선정의 어려움
- ④ 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의 낮은 관심
- ⑤ 기타 (자세히 : _____)

문12 귀 원에서는 올해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부모님의 자원
- ② 반(학급) 대표 학부모님 중에서 자원
- ③ 반(학급) 대표 학부모님 중에서 추천 또는 투표
- ④ 학부모님들의 추천
- ⑤ 원에서 임명(지정)
- ⑥ 정해놓은 순번으로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문 13 귀 원에서 올해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 선정 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가장 주요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자원하는 학부모님이 많아서 선정의 어려움이 없었다.
- ② 자원하는 학부모님이 없어서 선정의 어려움이 많았다.
- ③ 구성하는 원칙(예: 학부모대표, 순번 등)이 있어서 선정의 어려움이 없었다.
- ④ 구성하는 원칙(예: 학부모대표, 순번 등)이 없어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 ⑤ 새로운 학부모님으로 구성하고 싶었으나, 새롭게 자원하는 학부모님이 없어서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 ⑥ 기타 (자세히 : _____)

문 14 귀 원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대표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회 학부모 대표 전원이 참석함
- ② 매회 학부모 대표 대부분이 참석함
- ③ 매회 학부모 대표의 절반 정도만 참석함
- ④ 매회 학부모 대표는 거의 참석하지 않음
- ⑤ 학부모 대표가 참석한 경우가 없음

IV. 귀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5 귀 원에서 올해(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개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 실시하지 않은 부모교육 종류는 개최횟수에 0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부모교육 종류	개최횟수	학부모 참여 정도				학부모 평가 실시 여부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1) 오리엔테이션, 설명회	<input type="text"/> 회	①	②	③	④	①예 ②아니오
2) 전문강사 초청 부모교육	<input type="text"/> 회	①	②	③	④	①예 ②아니오
3) 원장 또는 교사에 의한 부모교육	<input type="text"/> 회	①	②	③	④	①예 ②아니오
4) 원장 또는 교사에 의한 부모상담	<input type="text"/> 회	①	②	③	④	①예 ②아니오
5) 부모-자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운동회, 참여수업 포함	<input type="text"/> 회	①	②	③	④	①예 ②아니오

문 16 귀 원에서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높은 부모교육의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번호 기입) **2순위** (번호 기입)

- ①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라서(예: 자녀상담 등)
- ② 부모에게 유익한 교육내용
- ③ 적극적 홍보(예: 안내문, 가정통신문 등 배포)
- ④ 강사의 높은 인지도
- ⑤ 강사의 전문성(예: 유아교육 및 아동학 교수)
- ⑥ 부모교육 자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높은 관심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문 17 귀원에서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모교육의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번호 기입) **2순위** (번호 기입)

- ① 부모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낮은 관심
- ② 진부한 교육내용
- ③ 강사의 전문성 부족
- ④ 홍보 부족
- ⑤ 교육시간
- ⑥ 교육장소(원내 넉넉한 공간 부족)
- ⑦ 자녀동반이 어려워서
- ⑧ 기타 (자세히 : _____)

문 18 귀원에서는 **연간 사업계획서 수립 시 부모교육을 포함**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 19 귀원에서는 부모교육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원장 단독으로 결정
- ② 교사회에서 결정
- 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④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⑤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권고를 수용하여 결정
- ⑥ 기타 (자세히 : _____)

문 20 귀원에서 부모교육을 운영하는데 겪고 계시는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다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번호 기입) **2순위** (번호 기입)

- ① 강사초빙
- ② 예산
- ③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 ④ 부모님들의 저조한 참여
- ⑤ 부모교육 실시 시간(요일)
- ⑥ 부모교육 실시 장소
- ⑦ 기타 (자세히 : _____)

연구보고 2017-09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인 소장직무대행 이미화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승림디앤씨 02-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22-0 9337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